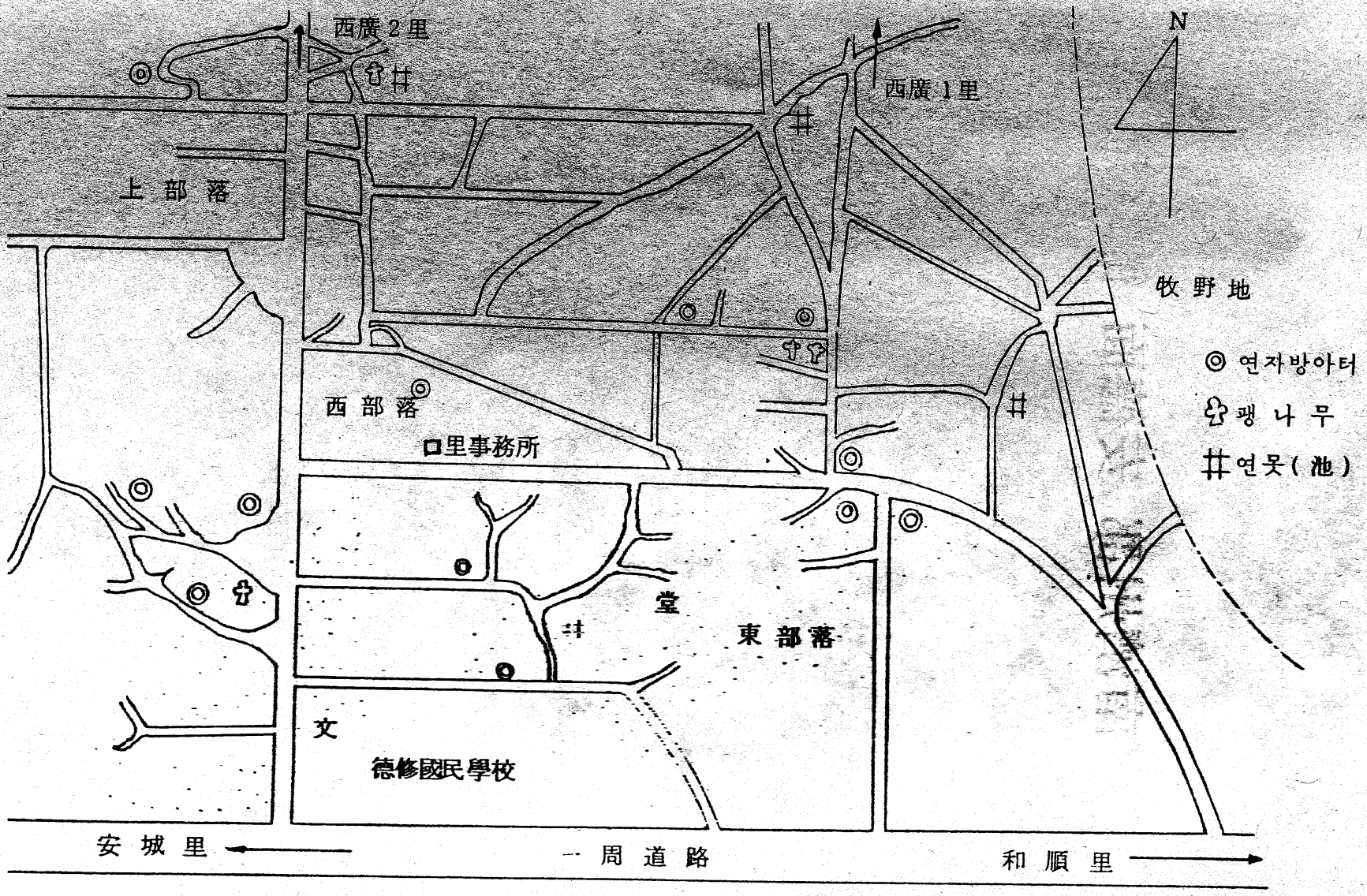
南濟州郡 安德面 德修里

社會背景 / 451
方　　言 / 459
民　　謠 / 482
說　　話 / 506
俗　　談 / 550
信　　仰 / 558
遺物·遺跡 / 578

德修里部落全圖


西廣2里
西廣1里
N
上部落
牧野地
◎ 연자방아터
팽나무
연못(池)
西部落
口里事務所
堂
東部落
文
德修國民學校
安城里
一周道路
和順里

社 會 背 景

指導敎授 金 榮 敦
班 員 金 柄 基 (國敎・4)
宋 昌 善 (國敎・3)
鄭 德 龍 (國敎・2)
金 漢 應 (國文・2)
金 白 花 (國文・2)

目 次

Ⅰ. 自 然 還 境
Ⅱ. 人 文 概 況
Ⅲ. 産 業 構 造

Ⅰ. 自然還境

德修里는 濟州道 南濟州郡의 摹瑟浦에서 東쪽으로 약 3㎞ 떨어진 곳 일주도로 바로 北쪽에 자리잡은 농촌이다. 1416년부터 1913년까지 大靜縣의 縣庁所在地였던 대정고을(仁城·安城·保城)과는 2.3㎞쯤의 거리이며 東쪽으로 약 40㎞를 가면 西歸浦市의 중심가에 이른다.

一周道路를 사이에 두고 山房山이 마을 앞에 우뚝 솟아 있으며 西南쪽으로는 약 3㎞의 거리에 簞山峰이 보인다. 德修里는 南濟州郡 安德面의 가장 西쪽 마을로서 面事務所가 있는 和順里하고도 불과 2.3㎞의 가까운 위치이다. 海拔 70~90m의 이 마을에는 마을 앞에 우뚝 솟은 山房山에 東南風이 부딪

쳐 바람이 세차서 사라호 태풍 같은 큰 바람이 일 때면 학교 교실이 부숴졌을 만큼 돌풍현상이 심하다. 마을 안에는 팽나무와 잣밤나무, 동백나무 등이 우거져 있으며, 농경지는 마을 북서쪽에 뻗쳐있다.

마을이 이루어지기는 약 400년전쯤의 일이라 보이는데 원래 이 마을은 이웃 마을인 沙溪, 東廣, 西廣 등과 함께 〈자단리〉란 마을로 묶이어졌었다 한다. 德修里는 원래 〈새당〉이라 불려졌었고 德修라는 마을 이름은 1893년 행정구역을 변경할 때 宋文圭氏(宋安玉氏의 高祖父)가 지은 이름이라는데 富村이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였다 한다.

西部落·東部落·上部落으로 우선 나누어지는 이 마을의 취락형태는 東部落을 頂上으로한 삼각형을 이루고 있다. 국민학교와 里事務所 등이 모두 西部落에 몰려 있으며 동네가 넓어서 西部落이 마을의 中心이 된다.

里牧野地에는 1954년 이후 심은 소나무들이 자라고 있다. 人家에 接하여 감귤, 삼나무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 部落마다 한두 군데에 100~200년 樹齡의 아름드리 팽나무가 무성하여 그곳에 정자(亭子)터가 마련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Ⅱ. 人文概況

332세대에 人口 1,355名에 이르는 이 마을은 그 면적으로 보아 安德面의 10분의 1쯤이다. 그 里勢로 보아서는 보잘것없으면서도 里民들의 性格이 억척스럽고 團結力이 유다른 바 있어서 人口数가 3倍에 이르는 이웃 마을을 압도해 왔다고 住民들은 자랑한다.

많은 姓氏로 이루어진 마을이지만 宋氏가 72세대, 金氏가 63세대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宋氏의 세력이 마을 안에 꽤 뻗친 셈이다. 礪山宋氏元尹公派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全羅南道 高興에서 진도를 거쳐 제주도로 入島한 이후 德修里에 入住한 지는 11代에 이르고 있다. 朝鮮朝 순조 때에는 宋益河, 宋益輔, 宋慶寶 세분이 丙科로 登龍되었었다는데, 文科及第한 분은 德修里民 가운데 별로 안 보인다니 그게 사실이라 한다면 德修里民의 强靱한 性格과도 関聯시켜 헤아려 봄직하다.

〈表1〉 德修里의 家口 및 人口住宅分布

구 분	농 가	비농가	계	인 구			본건물	부 속 건 물
				남	여	계		
세 대	312	20	332	654	701	1,335	263	163

(資料 : 德修里事務所 1980年 人口住宅調査에 依함)

유일한 教育機関인 德修國民學校는 1940年 9月 15日에 '一進書堂'으로 設立認可를 받아 1946年에 지금의 德修國民學校로 改称하였으며 6학년 6학급 217名 (男 103, 女 113)이 재적하고 있다.

<表2> 德修國民學校 學年別 學生分布

학년 / 성별	1	2	3	4	5	6	계
남	18	20	16	18	16	16	103
여	15	16	14	24	28	16	113

(資料 : 德修國民學校, 1981年)

教育에 대한 関心은 그다지 강한 편은 아니나 과제 시범 운영을 계기로 협조 체제가 강화되면서 자녀 교육에 대한 関心이 高調되는 傾向이다. 참고로 이곳 住民의 교육정도를 살펴 보면 다음 表와 같다.

<表3> 德修里民의 教育程度

	졸 업					재 학					총계
유 형	대졸	고졸	중졸	국졸	소계	대재	고재	중재	국재	소계	
인 구	19	80	120	150	370	5	45	75	218	343	713
백분비	5.2	21.7	32.5	40.6	100	1.5	13.1	21.9	63.5	100	

(資料 : 德修里事務所 1981. 7)

한편 鄕長制度를 두어서 이곳 行政의 諮問을 얻고 있으며, 里長, 副里長 밑에 세 동네 (西部落·東部落·上部落)에는 각각 部落長이 있다. 새마을지도자 네 분(男2. 女2)을 두었으며 委員 12人으로 이루어지는 開發委員會가 있다.

마을의 기관 및 自生團體로서는 靑年會, 婦女會, 새마을영농회, 새마을청년회 및 감귤작목반 등이 있으며 마을 금고와 국민학교 育成을 위한 학부형회와 姉母會가 있다. 또한 德修里에는 500여명의 在日僑胞가 있어 15년 전에는 在日僑胞 篤志家의 도움으로 국민학교와 里事務所에 電氣를 끌어온 것 이외에도 마을 경로당 운영에 在日本德修里婦人會의 도움이 현저하다.

<表4> 德修里 마을 機關 및 自生團體

단 체 별	개발위원회	영농회	산림계	청년회	부녀회	청소년회
인 원	11	301	265	150	120	17

(資料 : 德修里事務所 1981. 7)

靑少年會의 會員構成은 13~21才까지가 里單位 靑少年會에 가입되며 21~24才는 面單位 靑少年會에 소속된다. 部落內의 靑少年 自生團體로 靑綠會, 4H구락부(애향봉사단) 등이 있었으나 1978年에 靑年會로 개편 조직되었다.

婦女會는 1977年에 婦人會, 婦女會, 婦女敎室 등이 統合된 것으로 생활필수품의 공동구입, 판매는 물론이고 부락청소, 새마을 체육대회, 敬老會 運營등과 공동경작, 상호적금, 부인공제출자 등의 사업을 벌이고 있다.

軍人의 훈련지로 이용되어 황폐해진 땅 위에 1954年 이후 面에서 지급되는 묘목(소나무)들을 심었던 조림계와 유사한 단체로 현재 산림계가 있다.

1975年부터 새마을금고가 설치 운영되고 있는데, 예금액과 인출액은 계절에 따라 변화가 심하여 농산물 공판시기에는 예금액이 급증하나 농작물 성장기간에는 예금액이 감소하고 인출액이 증가한다.

德修里는 유난히 民俗保存에 대한 열의가 높은 마을이다. KBS濟州放送

局이 주최하는 耽羅民俗祭에서 불미노래, 방앗돌 굴리는 노래, 집줄 놓는 노래 등이 우승을 거두는가 하면 全國民俗芸術競演大會에서는 방앗돌 굴리는 노래(1980)로 大統領賞을, 불미노래(1979)와 집줄 놓는 노래(1981)로써는 文化公報部長官賞을 받은 바 있다. 또한 民俗保存會가 마련되어서 이 마을 民俗保存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이처럼 방앗돌 굴리는 노래로써 大統領賞까지 받은 바 있지마는 마을 안 13個所에 흩어져 있었던 연자매는 모두 뜯기어서 한 군데도 남아 있지 않다. 德修里에는 연자매를 復元하고 〈불미마당〉을 재현함으로써 紀念館을 마련할 계획을 民俗保存會에서 서둘고 있다.

德修里를 말함에 있어 풀무질은 중요한 比重을 차지한다. 德修里民들의 그 억척스럽고 강인한 성격과 강철 같은 團結力은 풀무질로 다져졌다 할 것이다. 혼자 치르는 소위 〈똑딱불미〉도 있긴 하지만 集團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토불미〉(청탁불미)와 〈디딤불미〉(발판불미)가 관심의 대상이 된다. 〈토불미〉는 손의 힘으로써 치르는 것이며, 〈디딤불미〉란 발로 밟아 치르는 풀무다. 이 풀무질이 德修里에 성행하게 된 중요한 까닭은 역시 솥이나 벗따위를 만들 때 필요한 〈뎅이〉, 〈바슴〉이란 틀의 재료가 되는 진흙이 이 마을에서 생산되는데 있는 듯하다. 풀무가 이루어졌던 곳을 〈불미마당〉이라고 하고 이 풀무질을 주도했던 분, 곧 〈원대장〉의 형편에 따라 자주 옮아다녔는데, 이제는 모두 그 자취가 사라져 버리고 열몇 군데의 〈불미마당〉을 住民들은 어련히 기억하고 있다. 그들은 풀무질로써 〈두말때기〉, 〈말치〉, 〈다도태기〉, 〈서도태기〉, 〈잔철〉 같은 솥과 벗, 보습, 괭이, 쇠스랑 및 〈서들개〉 또는 〈서두리〉라는 망치, 〈빈철〉이라는 후라이판, 〈쇠발쉐〉라는 삼발이를 만들었다. 이 제품들은 제주도 고을고을로 팔려 나갔는데 가끔 배를 利用하여 실려 나가기도 했었다. 德修里民들은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이 풀무질에 종사했었으며 強力한 忍耐, 鬪志力과 아울러 協同, 團結力이 길러졌다. 4·3事件때 공비들에 의하여 住民들의 집 80채가 한꺼번에 불질러졌을 때에도 재빠르고 능란한 鎭火作業으로 全燒된 집은 한 채도 없었다 한다.

民俗的 認識이 強烈한 한편으론 德修里에는 뚜렷한 祝祭나 별다른 行事가 없다. 20年前부터 陽曆 1月 2日 마을회관에서 敬老잔치가 이루어지는 정도이다. 敬老잔치 때에는 8年前부터는 이 마을의 在日僑胞들도 합세하는데 세배를 겸한 行事이다. 설은 모두가 陽曆으로 쇠며, 端午와 寒食은 15년전

쯤에 사라져 버리고 몇 가구만이 지내는 정도라 한다. 별제를 제외한 특별한 部落祭도 없으며 예수교장로회 德修教會가 10년전에 세워졌을 뿐이고 그나마 佛教信者가 가장 많은 편이어서 50~60세대에 이르고 있다.

里內에서의 通婚이 50~60%를 차지하며 隣近마을인 和順, 沙渓, 西廣, 摹瑟浦 등지와 주로 通婚이 이루어진다. 반면 가까운 이웃이긴 하지만 대정고을(大靜邑 仁城·安城·保城)과의 通婚은 별로 이루어지지 않음은 注目할 만하다. 이러한 첫째 이유로는 大靜고을측의 양반 텃세 때문이고 둘째, 德修里에서 伝来하는 풀무질에 관련된 俗信의 影響, 세째로는 지난날 生活程度의 差異 등을 들고 있다.

共同墓地로는 원래 〈당오름〉을 명당자리로쳤으며 현재는 德修共同墓地라 칭한다. 일제시대에는 이곳으로만 지역을 제한하여 이에 대한 心理的 反撥, 거리상의 불편으로 암매장, 헛봉분이 많았고 농경지 침식등의 피해도 컸었다고 하며 요즘도 〈당오름〉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

한편 德修里에는 1965年 1月에 制定한 鄕約이 있어 里民生活을 보호, 규제하고 있다. 총 7章 34条로 이루어진 이 鄕約에서는 里民의 権利와 義務, 마을의 構造와 機能, 任員, 選挙, 財政 등을 規定하고 있다.

近代化의 물결도 거센 편이어서 電気가 집집마다 들어갔으며 텔레비젼 수상기도 거의 200대에 이르는가 하면 한집 걸러 上水道 시설이 이루어졌는데 전기가설에는 이 마을 출신 在日僑胞의 힘이 컸었다 한다. 이중 電話는 1981年 8月內에 130台 設置가 확정되어 있다.

<表 5>　　德修里 文化施設

신문			TV	라디오	전기	수도	전화	시계	선풍기	녹음기	재봉틀	카메라
중앙지	지방지	새마을										
20	42	4	195	250	310	151	1	450	163	21	261	7

(資料：德修里事務所 1980年 現在)

德修里 生活文化의 성향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가전제품의 一般化 段階에 놓여 있고, 감귤등의 수익에 따른 소비성향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상수도 설치 이전에는 里內의 〈군물〉, 〈새물통〉, 〈ᄀᆞᆺ물〉, 〈속물〉 등의 못을 食水로 이용하였으며 里內의 물이 다할 경우에는 沙溪里의 물을 길어 썼다. 현재 食水로는 地下水를 利用하고 있다.

德修里에는 상점이 西部落에 3, 東部落에 3, 모두 6군데이고, 정미소가 西部落과 東部落에 각각 한 군데씩 있으며 이발관은 西部落에 한 곳뿐이다.

Ⅲ. 産業構造

德修里民의 경제적 선호도는 강한 편이나 富의 程度가 사회적 우열을 결정짓지 않으며, 所得, 生活程度는 다른 마을에 비해 균등한 편이다.

이 마을의 경우 일반 농경지가 288.6 ha에 이름으로써 호당 평균 경지면적이 1.8 ha에 이르고 있다. 제주도 農家의 호당 평균 경지면적이 0.9 ha에 못 미치고 있음에 대비한다면 실로 갑절에 이르는 밭을 지닌 셈이다.

<表 6> 德修里耕作地比率

구 분	면 적 (ha)
총 면 적	959.9
일 반 경 지	288.6
과 수 원	142.4
산 림	147

(資料: 安德面事務所 1981. 7)

住民의 거의 전부가 自作農이며 다른 마을에서 移住해 온 경우에도 손쉽게 소작, 잡역 등의 일거리를 구할 수 있다. 전체 332세대중 312세대가 農事에 종사하고 있으며(94%), 주식위주의 보리, 조 등의 재배 이외에 콩, 고구마, 깨 등이 경작되고 있으며 1970년대에 이르러 감귤재배가 시작됨으로써 142 ha의 감귤원을 50세대쯤이 지니고 있어 이에 따른 所得이 해마다 불어난다. 농토가 넓고 住民들이 워낙 부지런하므로 油菜 등의 환금작물로 얻은 所得이 安德面 관내에서 한결같이 가장 높은 편이다.

농기계 보급도 현저하여 이 자그마한 마을에 경운기만 해도 81대를 헤아리게 됨은 住民 거의가 篤農家라는 사실을 말해 준다.

<表7> 德修里 農機械 普及實態

구 분	리어카	우마차	경운기	동력분무기	트랙타	자동차	2륜차
대 수	23	40	81	15	1	1	9

(資料 : 德修里事務所 1981年)

농가에서 부업 혹은 농경용으로 가축사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마을 東쪽 牧野地에서 소의 放牧이 행해지고 있으며 소의 주인들이 순차로 한 두명씩 관리한다.

<表8> 德修里家畜保有狀況

구 분	소		말	돼지	염소	닭	양봉	토끼	계
	재래종	교잡우							
두 수	470	96	2	393	53	423	505	15	1,957
백분비	24	5	0.4	20.1	2.7	21.7	25.9	0.8	100

(資料 : 德修里事務所 1980年 統計)

축산소득도 이 마을의 주요한 收入源이다. 1970年 이래 연도별 축산소득을 비교해 보면 다음의 表에서 보듯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表9> 德修里의 年度別 畜産所得

연 도 별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금액(만원)	430	530	690	835	1207	1623	1955	1941	2322	2713

(資料 : 德修里事務所 1980年)

이처럼 이곳 住民들은 모든 일을 치름에 있어 强靭하고 억척스러운 자세로 서로 도와 꾸준한 成長을 과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南濟州郡 安德面 德修里

方　　言

指導教授　金　洪　植

班　　員　崔　鶴　奎（國教 · 4）
朴　勝　源（國教 · 4）
尹　致　富（國教 · 3）
李　昌　錫（國教 · 2）
金　暎　鎭（國教 · 2）
金　成　龍（國文 · 2）
文　舜　德（國文 · 2）
南　香　任（國文 · 2）
崔　仁　宗（國文 · 2）
金　永　淑（國文 · 2）
鄭　明　淑（國文 · 2）

目　　次

Ⅰ. 풀무에 관한 어휘
Ⅱ. 穀物名
Ⅲ. 器具名
Ⅳ. 飮食物에 관한 어휘
Ⅴ. 服飾에 관한 어휘
Ⅵ. 家屋에 관한 어휘
Ⅶ. 돌, 田土에 관한 어휘
Ⅷ. 其　他

Ⅰ. 풀무에 관한 어휘

ㅇ불미 : 풀무

A. 종　류

ㅇ독닥불미 : 한 사람이 혼자서 작업하던 것으로서, 가장 오래된 형태

ㅇ청탁불미 : 네 사람이 함께 풀무작업을 하던 것.

ㅇ불판불미 : 10인용 풀무

ㅇ드딤불미 : 40여명이 協業하던 것으로서, 가장 최근의 작업형태임.

B. 부분 명칭

ㅇ뿌다귀 : 풀무의 손잡이. 나무로 만들어 졌으며, 바람을 일으킴.

ㅇ청태기(청택·청탁) : 바람이 들어 가고 나가는 곳. 木製

ㅇ무십 : 알을 박는 곳으로서, 이 곳으로 쇳물을 넣음.

ㅇ잔치 : 쇳물을 빼는 곳

ㅇ청록고냥 : 쇳물을 빼는 곳

ㅇ둑 : 용광로

ㅇ오시 : 쇳물을 받아 나르는 용기

ㅇ톨래 : 오시를 들 때 받치는 것

ㅇ코 : 오시의 손잡이

ㅇ바슴 : 솥을 만드는 틀

ㅇ거림 : 바슴의 아랫 것

ㅇ손닙 : 바슴의 위쪽 것

ㅇ댕이 : 보섭을 만드는 틀로서, 웃댕이와 알댕이가 있음

ㅇ섬 : 풀무에 바람을 불어 넣는 기구

ㅇ뱃도롱 : 쇳물이 많이 흘러 내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

ㅇ돌래 :

ㅇ바슴클 :

C. 종사자

ㅇ원대장 : 풀무의 임자

ㅇ알대장 : 풀무작업을 총지휘하는 사람

ㅇ둑대장 : 용광로에서 쇠를 녹이는 사람

ㅇ바슴대장 : 솥틀 본을 뜨는 사람

ㅇ질먹대장 : 질먹(숯에 물을 뿌린 후 갈아서 만든 가루)을 만들어 틀에 바르는 사람

ㅇ 불대장 : 용광로에 불을 때는 사람

ㅇ 젯대장 : 쇳물을 틀에 부어 넣는 사람

D. 솥 종류 및 부분 명칭

ㅇ 두말띠기 : 두 말 들이 크기의 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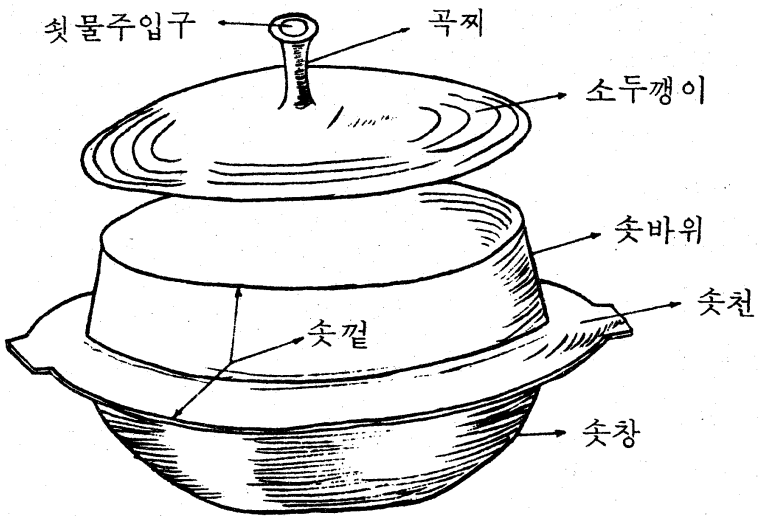
ㅇ 말치 : 한 말 들이 솥

ㅇ 다두태기 : 닷 되 들이 솥

ㅇ 서(두)태기 : 석 되 들이 솥

ㅇ 잔철·옹졸이 : 가장 작은 솥

ㅇ 빈철 : 옛날에 사용하던 후라이팬의 일종



〈図1〉

E. 기 타

ㅇ 불미마당·불미터 : 풀무를 하던 터

ㅇ 간전이 : 보섭의 破品

ㅇ 서들기 : 보섭을 다듬는 망치

ㅇ 불밋재 : 솥을 만들 때 지내는 제(祭)

ㅇ마 물 : 풀무를 할 때 쇳물이 튀지 않게 하기 위해 넣는 재(灰)로서, 짚을 태워서 만듬

ㅇ보섭미추 : 밭을 갈다가 내버린 보섭

Ⅱ. 穀 物 名

A. 조

1. 흐린조 : 차조.

ㅇ흔덕시리
ㅇ수내수리
ㅇ챙밀시리
ㅇ호박시리
ㅇ개발시리
ㅇ모살시리
ㅇ조시리
ㅇ꼬리시리
ㅇ동대기
ㅇ돌하리
ㅇ흰돌하리
ㅇ흐린 생이조

2. 모힌조 : 메조.

ㅇ바개시리
ㅇ생이모살시리
ㅇ털무시리
ㅇ마씨리
ㅇ강돌와리
ㅇ검은 돌하리
ㅇ모힌 생이조

B. 밭 벼

ㅇ 촐산뒤
ㅇ 강나록
ㅇ 보리산뒤·흰산뒤
ㅇ 원산뒤

C. 보 리

ㅇ 살오리
ㅇ 것보리
ㅇ 먹보리
ㅇ 동해오리
ㅇ 질오리
ㅇ 호주맥 : 맥주보리
ㅇ 곰보리

※ 감비역 : 깜부기
대우리 : 보리와 모양이 비슷한 잡초.

D. 콩

ㅇ 독새기콩
ㅇ 푸린콩 : 푸른 콩
ㅇ 머드래콩·머드랫콩
ㅇ 민콩·멘콩·맹콩
ㅇ 생이콩
ㅇ 가마귀콩
ㅇ 쌍콩
ㅇ 팔월비 : 노란 콩으로서 주로 기름을 짜는 종류.
ㅇ 두불콩 : 한 해에 두 번 경작을 하는 콩.
ㅇ 강낭콩

※ 콩꼬질 : 콩대

E. 동 부

ㅇ 가마귀돔비
ㅇ 붉은돔비
ㅇ 흰돔비

F. 깨

ㅇ 던덕깨
ㅇ 팔갑깨
ㅇ 흰깨
ㅇ 검은깨

G. 녹 두

ㅇ 개녹디
ㅇ 푸린녹디

H. 팥

ㅇ 능궹이풋
ㅇ 붉은풋
ㅇ 흰풋
ㅇ 어영듸풋

I. 감 자

ㅇ 남 죽
ㅇ 치매바라
ㅇ 대지마

J. 대 죽

ㅇ 강낭대죽 : 옥수수.
ㅇ 새당대죽 : 사탕수수.
ㅇ 피대죽 : 수수. 이삭이 짧고 꼿꼿한 종류로 비를 만드는 것.
ㅇ 살래대죽 : 수수. 이삭이 길게 늘어진 것.

K. 메 밀

ㅇ 보모멀

ㅇ ᄆᆞ슬모멀

Ⅱ. 器 具 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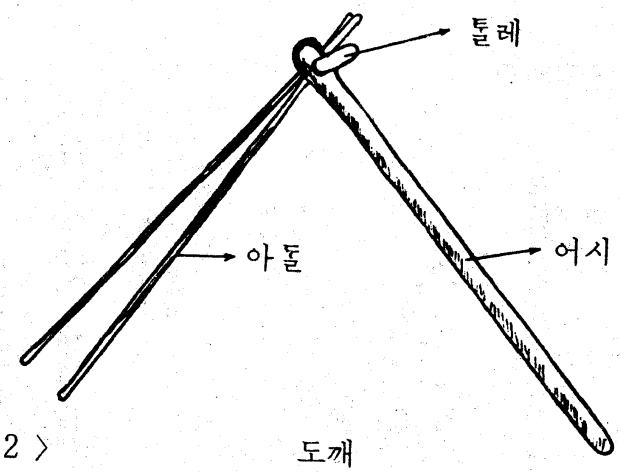
A. 農具名

1. 도깨 : 도리깨

ㅇ 어시 : 도리깨의 손잡이 자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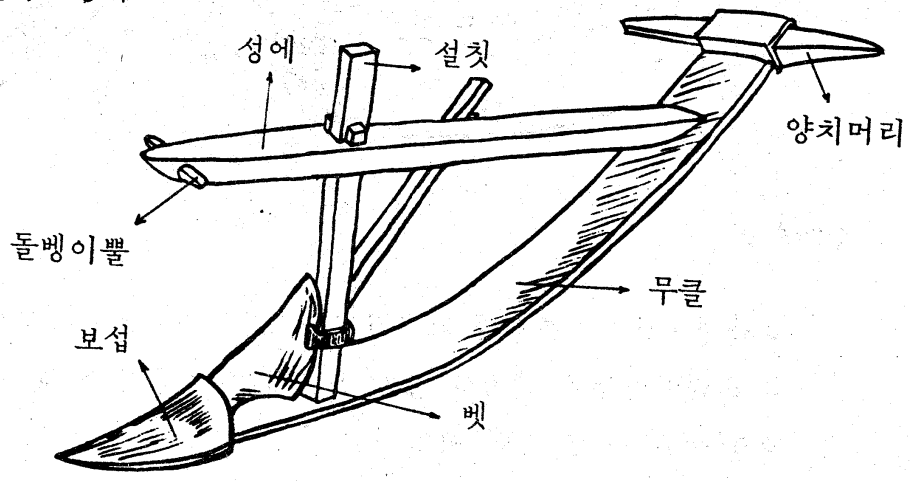
ㅇ 아돌 : 곡식을 두들기는 부분

ㅇ 톨레 : 아돌이 잘 돌아 가게 하는 것



〈図 2〉 도깨

2. 잠데 : 쟁기



〈図 3〉 잠데

3. 기 타

ㅇ콧둘레 : 소의 코에 구멍을 뚫고 낀 동그란 나무 또는 철사

ㅇ멍에 : 소 등에 걸치는 반원형 나무

ㅇ줍개 : 적쿼. 멍에를 고정시키기 위해 멍에에 연결하여 소의 목에 걸치는, 나무로 만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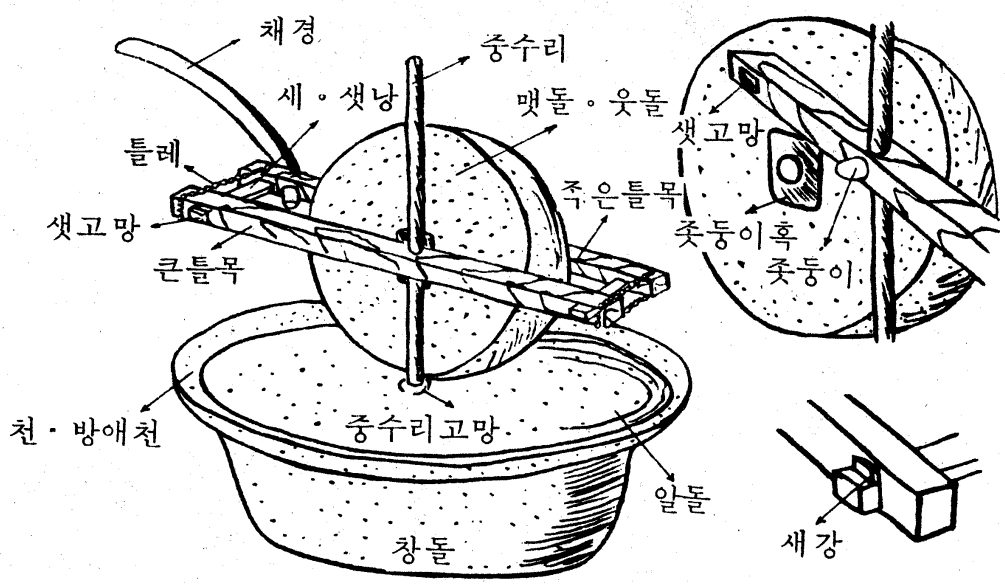
ㅇ등쿼

ㅇ오리목

ㅇ손비줄

B. 방아·맷돌類

1. 물방에·물ᄆᆞ래 : 연자매



〈図4〉

ㅇ웃돌·맷돌 : 물방에 위에서 돌아 가며 곡식을 부수던 돌

ㅇ알돌 : 웃돌을 받치던 넓은 돌로서 창돌과 한데 붙은 것도 있음

ㅇ창돌 : 알돌을 높이 떠받치는 돌

ㅇ틀목 : 맷돌을 고정시키고 이것을 돌게 하기 위한 것으로 나무로 만듬

ㅇ새·샛낭 : 큰 틀목과 작은 틀목을 연결하여 고정시키는 나무

ㅇ샛고망 : 틀목에 샛낭을 집어 넣기 위해 뚫은 구멍

ㅇ새감 : 샛고망에 샛낭을 낀 후 그 틈에 박는, 나무로 만든 쐐기못

ㅇ틀레 : 틀목이 서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묶는 끈

ㅇ채경 : 말에 연결하여, 맷돌을 돌릴 수 있도록 만든 나무 막대기로 틀목에 연결되어 있음

ㅇ중수리 : 세워진 맷돌이 넘어 지지 않도록 틀목에 구멍을 뚫고 끼워 알돌 위에 세운 기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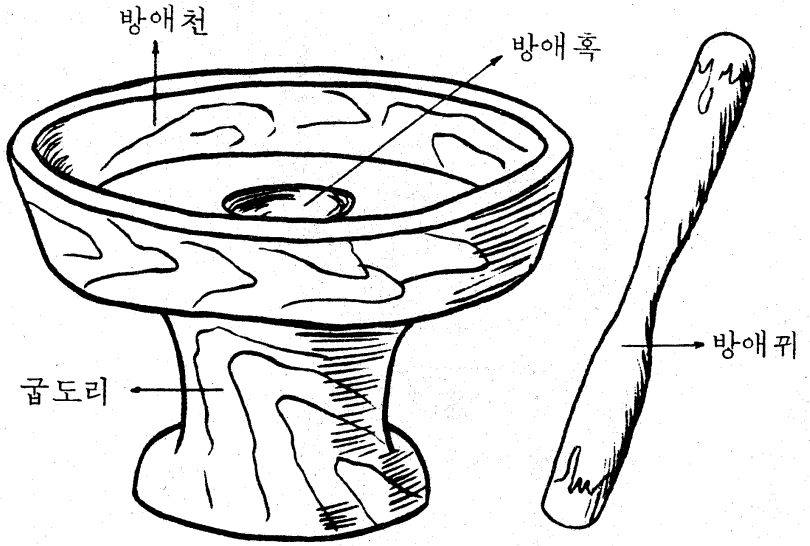
ㅇ중수리 고망 : 중수리를 알돌에 고정시키기 위해 알돌에 뚫은 구멍

ㅇ천 : 곡식이 밖으로 떨어 지지 않게 하기 위해, 알돌에 만든 턱

ㅇ좃둥이 : 틀목과 맷돌을 연결시키기 위해 틀목 안쪽 중앙에 만들어 놓은 돌출부

ㅇ좃둥이혹 : 좃둥이가 들어 갈 구멍으로서 맷돌에 큰 구멍을 네모지게 뚫고, 좃둥이의 마모를 막기 위해 나무로 만든 좃둥이혹을 그 구멍에 맞게 끼움

2. 남방애 : 나무로 만든 방아(절구)이며, 통나무로 만듬



〈図5〉

ㅇ 방애혹 : 절굿공이로 곡식을 찧도록 파놓은 구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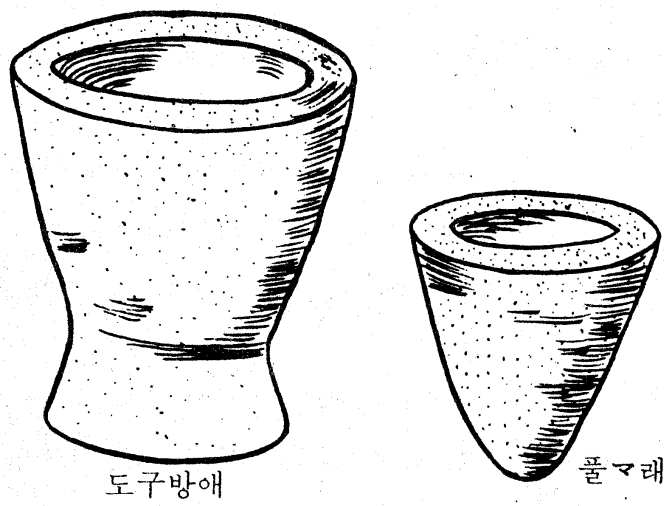
ㅇ방애천 : 곡식이 밖으로 튀어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턱

ㅇ 굽도리 : 남방애의 아랫 부분

ㅇ 방애뀌 : 절굿공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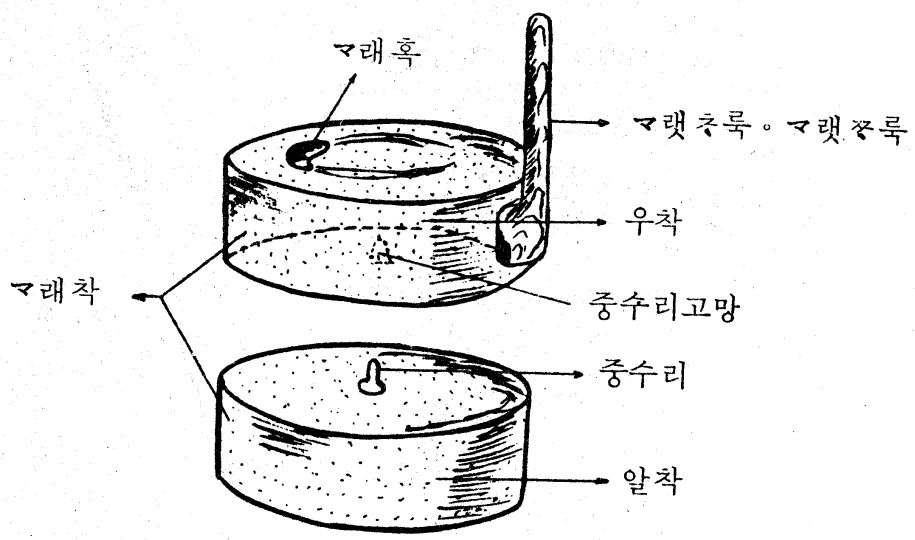
3. 도구방애 : 돌로 만들 절구

4. 풀ᄆᆞ래 : 돌로 만든 작은 절구이며, 밑부분이 뾰족함



〈図6〉

5. ᄆᆞ래 : 맷돌



〈図7〉

ㅇ 젱ᄆᆞ래 : 맷돌의 종류 중에서 작은 것

ㅇ 큰ᄆᆞ래 : 맷돌의 종류 중에서 큰 것

ㅇ ᄆᆞ래혹 : 곡식을 집어 넣는 구멍

ㅇ 중수리 : 우착과 알착을 연결시키는 것

ㅇ 중수리고망 : 우착에 중수리가 들어 가도록 뚫어 놓은 구멍

ㅇ ᄆᆞ랫ᄎᆞ룩 : 맷돌 자루

C. 竹器類

ㅇ 차롱 : 뚜껑이 있는 4 각형의 채롱

ㅇ 서렝이 : 차롱의 일종으로 큰 것

ㅇ 테우리차롱 : 손잡이가 달린 차롱으로, 천장이나 벽 등에 걸어 둘 수 있게 만든 것

ㅇ 차반지 : 차롱의 일종

ㅇ 도슬기 : 차롱의 일종

ㅇ 동그랑

ㅇ 재물고랑 : 祭物을 넣어 두는 채롱

ㅇ 구덕 : 곡물 등을 넣는 그릇으로 그 種類가 多樣하다

ㅇ 애기구덕 : 幼児를 재울 때 쓰는 것

ㅇ 승키구덕 : 야채를 넣어 두는 그릇

ㅇ 질구덕 : 곡물 등을 담고서 지고 다니는 데 쓰임

ㅇ 맬구덕 : 메고 다니는 데 쓰임

ㅇ ᄆᆞ는대구덕 : 가는 대로 만든 구덕

ㅇ 서답구덕 : 빨래를 넣어 두는 구덕

ㅇ ᄇᆞ름구덕 : 구덕의 안팎을 종이 등으로 도배한 것

ㅇ 물구덕 : 허벅(물동이)을 넣어 지고 다닐 때 사용하는 구덕

ㅇ 바릇구덕 : 바다작업용 구덕

ㅇ 승쿠리 : 소쿠리

ㅇ 얼맹이 : 어레미. 곡식 등을 쳐내는 데 사용하는 채의 一種

ㅇ 대채

ㅇ 중채

ㅇ 거림채

ㅇ 골채 : 삼태기

ㅇ 죽반(竹盤) : 대로 만든 쟁반

ㅇ 족바지 : 곤충 등을 잡을 때 씀

ㅇ 축심 : 移葬時 쓰는, 대로 만든 기구

D. 기 타

ㅇ ᄆᆞ랫도고리 : 남방애와 비슷하게 만든 것으로서, 곡식가루가 흩어지지 않도록 ᄆᆞ래를 이 위에 담아서 갈던 것. 방애혹이 없음

ㅇ 똥도고리 : 木製로 ᄆᆞ랫도고리보다 조금 작은 것

ㅇ 밥도고리·함박 : 밥함지. 솥의 밥을 퍼넣는 그릇

ㅇ 돗도고리 : 돌로 만든 돼지 먹이통

ㅇ 솔빡·좀팍 : 곡식을 퍼담거나 바람에 까불려서 고를 때 사용하는 바가지의 一種으로서, 납작한 4 각형의 형태임

ㅇ 데왁세기 : 솔빡보다 조금 작은 것

ㅇ 서으래 : 곡식을 멍석에 펼치는 도구

ㅇ 당그래

ㅇ 군대

Ⅳ. 飮食物에 관한 어휘

A. 떡 종류

ㅇ 오메기떡

ㅇ 침 떡

ㅇ 제 편

ㅇ 절 밴

ㅇ 솔 밴

ㅇ 중 괴

ㅇ 약 괴

ㅇ 웃찌게

ㅇ 설기떡

ㅇ 새미떡

ㅇ 삼메떡

- 상왓떡
- 중뒷떡
- 주애기떡 : 밀쭈생이 따위로 만든 떡

ㅇ 빙떡·빈떡·멍석떡

ㅇ 돌레떡 : 둥그런 모양의 떡

ㅇ 다데떡

ㅇ 는젱이떡 : 메밀가루를 간 다음에 생기는 찌꺼기로 만든 떡

ㅇ 임지 : 깨에서 기름을 짜고 난 찌꺼기로 만든 떡. 깻묵

B. 범벅 종류

ㅇ 모멀범벅

ㅇ 보리범벅

ㅇ 조펌벅

ㅇ 속범벅

ㅇ 는젱이범벅

C. 죽 종류

ㅇ 꽤죽 : 깨죽

ㅇ 모멀죽

ㅇ 곤죽 : 쌀죽

ㅇ 콩죽

ㅇ 녹디죽 : 녹두죽

ㅇ 국죽

ㅇ 원미

ㅇ 풋죽 : 팥죽

ㅇ 미움 : 患者 등이 主로 먹는 묽은 죽

ㅇ 풀죽 : 약간의 穀物에 野菜와 간장을 넣고 쑨 죽

D. 밥 종류

ㅇ 뭇밥 : 완전히 보리쌀로 지은 밥
ㅇ 통보리밥 : 보리쌀을 통채로 하여 지은 밥
ㅇ 동젯밥 : 귀한 손님을 접대할 때 짓는 잡곡밥
ㅇ 잡밥 : 잡곡밥
ㅇ 멧밥 : 제사시 젯상에 올리는 밥
ㅇ 서푸리밥 : 맨보리밥
ㅇ 곤밥 : 쌀밥

E. 젓갈류

ㅇ 깅이젯 : 게젓
ㅇ 멜첫 : 멸치젓
ㅇ 자리젓 : 자리로 담은 젓
ㅇ 구살젓 : 성게로 담은 젓
ㅇ 게옷젓 : 소라와 전복내장 등으로 담은 젓

F. 기 타

ㅇ 즈배기 : 수제비
ㅇ 칼국
ㅇ 게역 : 보리로 만든 미수가루
ㅇ 전어(田魚) : 콩잎 보쌈
ㅇ 반추지·반치지 : 반추 줄기를 잘게 썰어 만든 지
ㅇ 마농지 : 마늘지
ㅇ 양앳간 : 나물의 일종
ㅇ 놈삐 : 무우
ㅇ 쉰다리 : 쉰 밥에 누룩을 섞어 발효시킨 것
ㅇ 탁배기 : 탁주
ㅇ 곡즈 : 누룩
ㅇ 갱 : 제사(祭祀) 때 젯상에 올리는 국

Ⅴ. 服飾에 관한 어휘

ㅇ 고장중이 : 고쟁이
ㅇ 소중이 : 여자의 內服
ㅇ 단속옷·굴중이 : 夏節用으로 바지 위에 입는 것
ㅇ 바틈중이 : 바지 위에 멋으로 입는 것
ㅇ 통치매
ㅇ 허리치매
ㅇ 똠바디
ㅇ 접저구리 : 겹저고리
ㅇ 소개저구리 : 솜저고리
※ 소개 : 솜
ㅇ 박음접저구리
ㅇ 누비저구리
ㅇ 적삼
ㅇ 창옷 : 소창옷
ㅇ 너월 : 여자용 의복
ㅇ 장옷 : 여자들이 나들이할 때 위에 걸치는 옷
ㅇ 멩지장옷 : 명주로 만든 장옷
ㅇ 후루메
ㅇ 중이적삼
ㅇ 쪼게 : 조끼
ㅇ 대비·듸비 : 양말
ㅇ 마고제
ㅇ 후양 : 겨울에 쓰는 방한용 모자
ㅇ 일목수건·일묵수건 : 멋으로 두르던 것으로 석 자 세 치의 길이
ㅇ 엄디저구리 : 죽은 사람에게 입히는 옷
ㅇ 보선 : 버선
ㅇ 코재비보선
ㅇ 짓 : 저고리의 깃

ㅇ 앞까재 ·이몸 : 저고리의 앞 면

ㅇ 등까재 : 저고리의 등판

ㅇ ᄉᆞ미 : 소매

ㅇ 젯ᄀᆞ름 : 속고름

ㅇ 겉름 : 겉고름

ㅇ 개와 : 주머니

ㅇ 미 : 두루마기 양 옆에 붙이는 삼각형의 조각 4개

ㅇ 배알바듬 : 저고리 소매 아래에 멋으로 물감을 들이는 것

ㅇ 다림 : 대님. 바지의 발목 부근을 묶는 끈

ㅇ 초신 : 짚신

ㅇ 미투리 : 예쁘게 만든 짚신. 여자용

ㅇ 짚새기 : 막신으로 만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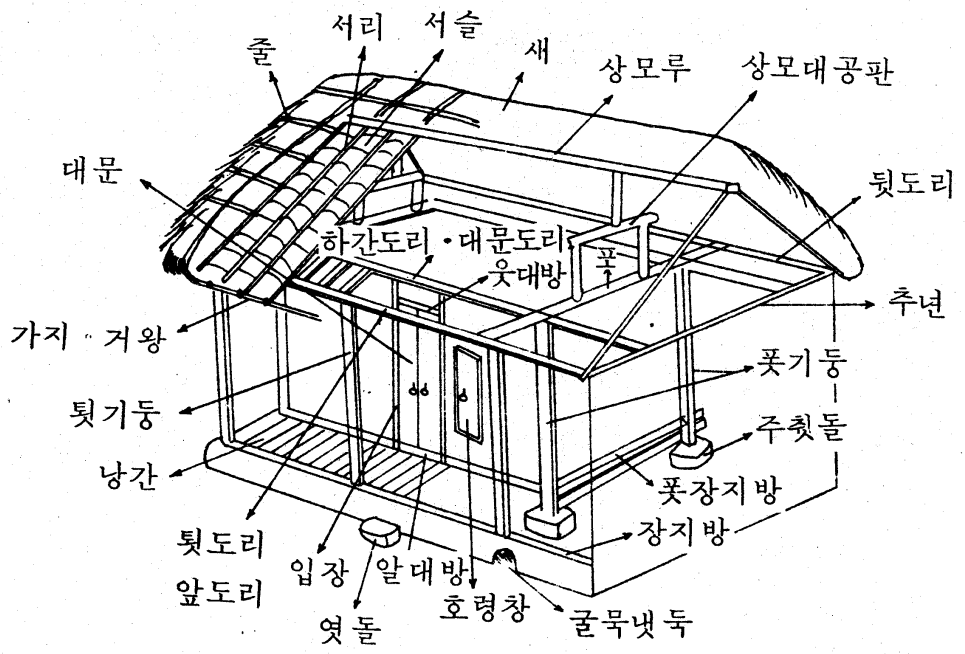
ㅇ 피임신 · 갑실신 : 가죽으로 초신처럼 만든 것

ㅇ 창신 : 가죽신으로 매우 사치용임

ㅇ 능제비창신

ㅇ 남신 : 나막신

Ⅵ. 家屋에 관한 어휘



〈図8〉

ㅇ 쫏기둥 : 포를 받치는 기둥으로 모두 4개가 있음

ㅇ 포 : 양 옆에 2개가 있음

ㅇ 상모대공판 : 상모루를 떠받치는 것

ㅇ 추년 : 지붕의 네 귀퉁이

ㅇ 한간도리 : 6개가 있으며, 포와 포를 잇는 기둥임

ㅇ 입장 : 문의 양 쪽에 있는 기둥

ㅇ 개오·개우·개옷지동

ㅇ 툇도리·앞도리

ㅇ 웃대방 : 대방(지방)중에서 문 위 쪽에 있는 것

ㅇ 알대방 : 문 아래 쪽의 지방

ㅇ 혼백이널·마뤼널 : 마루의 널판

ㅇ 마리귀클 : 마뤼널 사이의 각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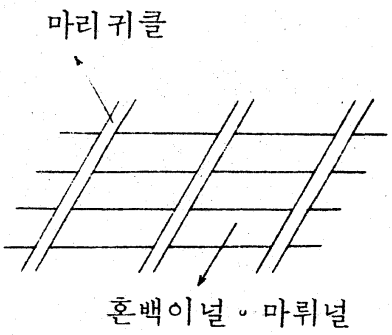
ㅇ 간택 : 흙으로 벽을 바르는 일

ㅇ 앙토 : 지붕 아래 쪽에 흙을 바르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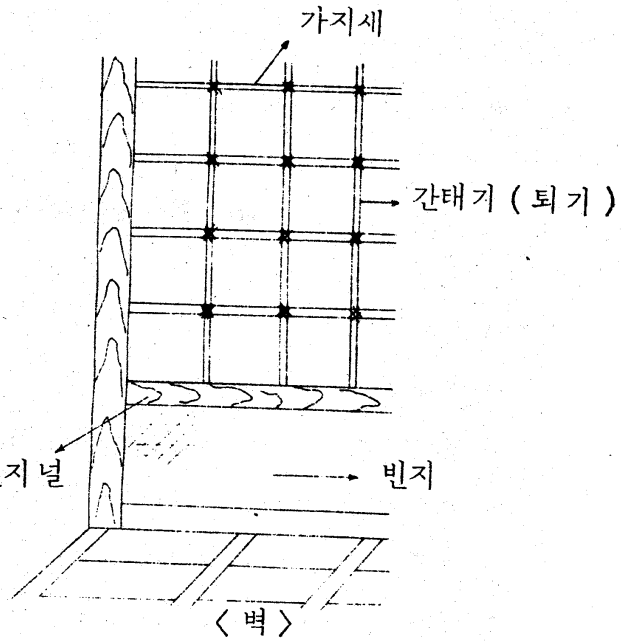
ㅇ 고뒤 : 지붕 위 쪽에 흙을 바르는 일

ㅇ 가지질름 : 지붕 위에 줄을 맨 후 새가 눌리지 않게 나무를 질러 넣는 것

ㅇ 간태기엮음 : 벽에 간택을 하기 전에 가지새와 간태기(퇴기)를 엮는 것. 가지새를 댄 다음 간태기를 엮음



〈마루〉



〈벽〉

ㅇ돌축 : 집 뒷 면에 흙을 넣으며 돌을 쌓은 것

ㅇ엿돌 : 이잇돌. 낭간(쪽마루)에 오를 때 딛고 오르는 돌

ㅇ축 : 벽

ㅇ빈지 : 벽 아래 쪽에 댄 나무(빈지널) 밑의 벽

ㅇ청방마리 : 부엌 마루와 붙은 마루

ㅇ샛문·지겟문 : 청방마리와 상방마리 사이의 문

ㅇ종포 : 포 위에 나무로 메꾸는 것

ㅇ종포동ᄌᆞ : 종포를 받치는 것

ㅇ화방낭 : 아궁이 위 쪽, 벽장 안 쪽에 댄 나무

ㅇ안쪽방낭 : 벽장 앞쪽에 댄 나무

ㅇ빈지가풀목 : 빈지를 유지하기 위해 위 쪽에 옆으로 대는 나무

ㅇ고팡·안방 : 집 안에 있는 창고로 예전엔 고팡이라 했으나, 요즈음은 안방이라고도 함

ㅇ장팍뒷문 : 부엌 옆으로 나가는, 장팍(장독대)와 통하는 문. 정지뒷문.

ㅇ창곰 : 고팡에 換氣用으로 뚫은 구멍

ㅇ굴묵 : 방에 불을 때는 곳

ㅇ굴묵샛둑 : 굴묵연기가 나오도록 뚫은 구멍

ㅇ살레 : 찬장

ㅇ소떡 : 솥을 앉히는 부뚜막

ㅇ덕둘 : 부뚜막

ㅇ고량캐구들 : 부엌 옆 구들

Ⅶ. 돌·田土에 관한 어휘

ㅇ작지 : 자갈

ㅇ돌생기 : 작은 돌

ㅇ머을 : 밭 가운데 地面에 박혀 있는 돌

ㅇ먹돌 : 딴딴하고 매끄러운 돌

ㅇ속돌 : 구멍이 솜솜하게 난 매우 가벼운 돌로서 물에 뜸

ㅇ왕석 : 큰 돌

ㅇ팡돌 : 짐 따위를 내려 놓기 위해서 놓는 넓적하고 큰 돌

ㅇ뜸돌·드름돌 : 들돌

ㅇ덩드렁돌 : 단단하고 둥글 넓적한 돌판으로 짚 따위를 올려 놓고 두들김

ㅇ박석돌 : 비석제작용의 돌

ㅇ성싼돌 : 잘 깨지는 돌

ㅇ뜬돌 : 잘 깨지지 않는 돌

ㅇㅁ랫돌 : 맷돌제작용의 돌

ㅇ백캐 : 작은 돌을 쌓아 올려 만든 밭담 따위

ㅇ빌래 : 땅 속에 넓적하고 평평한 돌이 묻혀져 있는 곳

ㅇ설덕 : 돌들이 여기저기 쌓이고 잡초가 우거진 곳

ㅇ얼캐 : 돌이 울퉁불퉁하게 널려 있어 牛馬等의 출입이 어려운 곳

ㅇ머들 : 돌무더기

ㅇ서드럭 : 傾斜地에 돌이 드문드문 널려 있는 곳

ㅇ빌래왓 : 땅 속에 넓적한 돌들이 묻혀 있는 밭

ㅇ머을왓 : 땅 속에 자갈 등이 깔려 있는 밭

ㅇ작멜왓 : 자갈밭

ㅇ곰돌팟 : 땅 속에 자갈이 많이 깔려 있어서 쟁기로 밭을 갈면 돌이 일어 나는 밭

ㅇ작지왓 : 자갈밭

ㅇ질왓 : 粘質土壤의 밭

ㅇ개질왓 : 좀 弱한 粘土質 밭

ㅇ춥개질왓 : 土層의 윗 部分이 黃土인 밭

ㅇ뜬밭 : 검은 색 火山灰土壤의 밭

ㅇ검은뜬밭 : 곡식이 잘 안되는 뜬밭

ㅇ적밭 : 물무시설이 있던 밭

ㅇ사록밭 : 송이로 되어 있는 밭

ㅇ가슬왓 : 連作을 피하기 위해 一年동안 경작을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밭

ㅇ뭇가슬왓 : 장기간 경작을 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밭

ㅇ바령밭 : 牛馬를 가두어 두는 밭

Ⅷ. 其　　他

A. 風　名

ㅇ샛ᄇᆞᄅᆞᆷ : 東風

ㅇ서갈ᄇᆞᄅᆞᆷ : 西風

ㅇ마ᄇᆞᄅᆞᆷ : 南風

ㅇ하니ᄇᆞᄅᆞᆷ : 北風

ㅇ놉새ᄇᆞᄅᆞᆷ : 8월 초순부터 9월 중순 사이에 한라산에서 불어 내려 오는 바람

ㅇ뫼우리ᄇᆞᄅᆞᆷ : 德修里는 놉새바람이 산방산에 막혀 되돌아 치는 뫼우리ᄇᆞᄅᆞᆷ으로 매년 큰 피해를 입는다고 함

ㅇ도깽이주제 : 회오리 바람

ㅇ놀 : 큰 바람(大風)

B. 人体에 관한 어휘

ㅇ대멩이·대굴빡·대고빡·대강이·대가리 : 머리

ㅇ임뎅이·이마빡 : 이마

ㅇ모금아지 : 멱 . 목의 앞 쪽

ㅇ목그레팡 : Adam's apple

ㅇ젓깽이 : 겨드랑이

ㅇ둑지 : 어깨죽지

ㅇ뭇체팡 : 어깨 뒷 부분의 뼈

ㅇ불뻬팡 : 광대뼈

ㅇ눈꼽째기 : 눈꼽

ㅇ배ᄯᆞ롱 . 배똥 : 배꼽

ㅇ귀마리 : 복숭아뼈

ㅇ욥갈리 : 옆구리

ㅇ 등뗑이 : 등
ㅇ 배따지 : 배
ㅇ 북부기 : 폐 . 허파
ㅇ 태두 : 콩팥
ㅇ 지레 : 지라
ㅇ 비피 : 둔부
ㅇ 잠지페기 · 잠지팍 : 엉덩이살
ㅇ 알트가리 : 턱
ㅇ 아가리빼 : 턱뼈
ㅇ 엉치빼 : 엉덩이뼈
ㅇ 큰배솔 : 큰 창자
ㅇ 조근배솔 : 작은 창자
ㅇ 실개 : 쓸개
ㅇ 외눈배기 : 애꾸눈이
ㅇ 다리전듸 : 절름발이
ㅇ 귀마구리 : 귀머거리
ㅇ 인쥐기 : 둘 째 손가락
ㅇ 상손가락 : 셋 째 손가락
ㅇ 펭발 : 평발
ㅇ 쥐솔 . 주솔
ㅇ 심줄 : 힘줄

C. 動物名

ㅇ 제열 : 매미
ㅇ 왕제열 : 큰 매미
ㅇ 구제기제열. 제열 : 작은 매미
ㅇ 두태비 : 두꺼비
ㅇ 밤부리 : 잠자리
ㅇ 거여미 : 거미

ㅇ 자치 : 바퀴벌레
ㅇ 게우리 : 지렁이
ㅇ 괴냥이 : 뱀
ㅇ 물팩이 : 물뱀
ㅇ 샛배엄 : 몸에 흰 줄이 그어져 있는 뱀
ㅇ 만지미 : 노랗고 가느다란 뱀
ㅇ 독다구리 : 도마뱀

D. 기 타

ㅇ 공다리·침바치 : 침술사
ㅇ 뽀롱이 : 탄피. 풀무작업을 할 때 떨어져 내린 쇳물 방울이 굳은 것
ㅇ 갈메색 : 초록색
ㅇ 방둥이 : 장난감
ㅇ 노끄내기 : 노끈
ㅇ 베 : 노끈보다 굵은 끈
ㅇ 도치 : 도끼
ㅇ 마쿠지 : 소의 몸에서 털이 벗겨지는 病의 명칭
ㅇ 놀개기 : 날개
ㅇ 도시리다 : 말을 전하다
ㅇ 얼레기 : 큰 빗
ㅇ 챙빗 : 참빗. 살이 많은 빗
ㅇ 뻔졸 : 장난. 좋지 못한 버릇
ㅇ 손뻔졸 : 손 장난
ㅇ 홍애기소리 : 밭갈이할 때 소를 몰며 부르는 노래
ㅇ 솔칵불 : 관솔불
ㅇ 할루산 : 漢拏山
ㅇ 서드륵 : 자갈·돌 따위를 쌓아 올린 곳
ㅇ 곰박 : 떡 따위를 건지는 국자
ㅇ 소돌기 : 맨 윗 部分
ㅇ 간개기 : 눈이 하나 없거나 하여 不具가 된 牛馬를 일컬음

南濟州郡 安德面 德修里

○ 기 상 : 幼児를 埋葬한 共同墓地

〈提 報 者〉

윤 정 옥(女 · 85才)	허 승 옥(男 · 81才)
이 화 옥(女 · 80才)	박 경 수(男 · 75才)
박 안 택(男 · 74才)	김 인 화(男 · 71才)
홍 낭 아(女 · 71才)	박 경 택(男 · 68才)
송 영 부(男 · 67才)	강 의 정(女 · 67才)
송 두 백(男 · 66才)	송 두 진(男 · 58才)
김 영 호(男 · 57才)	송 만 부(男 · 56才)
김 동 하(男 · 48才)	김 동 권(男 · 44才)
송 안 옥(男 · 45才)	송 일 봉(男 · 44才)

民　　謠

指導教授　金　榮　敦
班　　員　邊　聖　久(國教•4)
　　韓　康　凡(國教•3)
　　金　省　山(國文•2)
　　任　贊　善(國文•2)
　　李　英　珠(國文•2)

目　　次

1. 디딤불미노래
2. 토불미노래 (청탁불미노래)
3. 똑딱불미노래
4-1. 방앗돌 굴리는 노래
4-2. 방앗돌 굴리는 노래
5. 집줄 놓는 노래
6. 밭 가는 노래
7. 맷돌노래
8. 김매는 노래
9. 베틀노래
10. 꼴베는 노래
11. 연자매노래
12. 짚 두드리는 노래
13. 나무 켜는 노래
14. 타작노래
15. 나무 쪼개는 노래
16. 따비질노래
17. 밭밟는 노래
18. 자장가

德修里는 민속 마을로 알려지다시피 民俗에 대한 保存意識이 높고 熱意가 대단하다. 근래 방앗돌 굴리는 노래, 불미노래, 집줄 놓는 노래 등을 全國民俗藝術競演大会에서 공연함으로써 大統領賞, 文公部長官賞을 受賞하고 KBS 제주방송국의 耽羅民俗祭에 출연하여 번번이 우승한 바 있다. 그 團結力과 底力은 전국적으로도 유례가 드문 일이다.

全道 평균 2배쯤 되는 農地를 가진 만큼 勞動謠가 풍부하고 특히 〈밭 가

는 노래〉, 〈짚 두드리는 노래〉가 이 마을에서 特異하게 전승되고 있다. 풀무작업이 이 마을에서만 이루어 졌기 때문에 〈불미노래〉도 유달리 전해진다.

여기 수록된 노래들은 조사의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주로 勞動謠 위주로 그 전형만 조사 보고한다. 따라서 童謠等의 조사 보고를 빠뜨리는 점이 아쉽다. 현장론적 조사 방법에 따라서 제보자 설명, 조사 현황, 주해가 따라야 마땅하지만 지면 관계로 생략한다.

1. 디딤불미노래

불미나불엉　　담배먹게
　아아아아 에에에헤요
동서서착　　새골르민
　아아아아 에에에헤요
적군님네　　근절도ᄒᆞ다
　아아아아 에에에헤요

밤낮웃이　　ᄒᆞ는일은
　아아아아 에에에헤요
어허영아니ᄒᆞ는ᄆᆞ을도 살건마는
　아아아아 에에에헤요
어허ᄒᆞᆫ놀레　　똠디리멍
　아아아아 에에에헤요
밤낮웃이　　ᄒᆞ시는일은
　아아아아 에에에헤요
ᄒᆞ루일흠끠　　다지칠손가
　아아아아 에에에헤요
또ᄒᆞᆫ놀레　　높디놀민
　아아아아 에에에헤요
적군님네　　다속아간다
　아아아아 에에에헤요

나이를 많이먹은탓인지
아아아아 에에에헤요
어허숨이차 못할텐데
아아아아 에에에헤요
작년에는 오돕팔재
아아아아 에에에헤요
보기좋은 공돌라기
아아아아 에에에헤요
금년들고 다들고보니
아아아아 에에에헤요
공돌라기끊어놓고 혼그믓을맹글언
아아아아 에에에헤요
날고라들어본사름 ᄒᆞ나토웃어
아아아아 에에에헤요
모든사름이 팔십이끗이라
아아아아 에에에헤요
억울ᄒᆞ기 짝이웃네
아아아아 에에에헤요
또혼놀레 높디놀자
아아아아 에에에헤요

저독안앞으로 ᄂᆞ리는물은
아아아아 에에에헤요
무쉐녹은 쒯물이여
아아아아 에에에헤요
요내등끗으로 ᄂᆞ리는물은
아아아아 에에에헤요
오장육부젖인 냇물이여
아아아아 에에에헤요
젯대장네 물이나듭서

南濟州郡 安德面 德修里

아아아아 에에에헤요
대말치에 소말치에
아아아아 에에에헤요
어허ᄒᆞᆫ놀레 숨디리자
아아아아 에에에헤요
ᄯᅳᆷ디리고 숨디리엉
아아아아 에에에헤요
날존날은 날마다ᄒᆞ네
아아아아 에에에헤요
궤롭기가 짝이웃네
아아아아 에에에헤요

구빡구빡 졸지말앙
아아아아 에에에헤요
오ᄂᆞᆯ일은 적군님네발에
아아아아 에에에헤요
쎄고약홈이 거기나타나네
아아아아 에에에헤요
어허ᄒᆞᆫ놀레 높디놀자
아아아아 에에에헤요
초패나막패나 패칠려들소
아아아아 에에에헤요
숨이차서 못ᄒᆞ것네
아아아아 에에에헤요

〔1981. 7. 13., 허승옥, 남·82.〕

2. 토불미노래(청탁불미노래)

불미나불엉 담배나먹자

어허어헝 서화디야
불미불엉담배먹자 ᄒᆞ는뜻은
어허어헝 서화디야
효종황제전이 부르던노래여
어허어헝 서화디야
돈이웃인때문 담배에들엉
어허어헝 서화디야
어허훈놀레에 놀디나놀자
어허어헝 서화디야
적군님네 다속아간다
어허어헝 서화디야

훗소리는 잘뒈여간다마는
어허어헝 서화디야
선소리가 바빠간다.
어허어헝 서화디야
이만이불민 무쉐가녹나
어허어헝 서화디야

저독안앞으로 ᄂᆞ리는물은
어허어헝 서화디야
무쉐녹은 냇물이여
어허어헝 서화디야
이내등끗으로 ᄂᆞ리는물은
어허어헝 서화디야
오장육부젖인 냇물이로고나
어허어헝 서화디야

요런일아니ᄒᆞ는ᄆᆞ을은 더잘살건마는
어허어헝 서화디야

주야를물론ᄒᆞ고　　요일이야
　어허어헝 서화디야
이적군님네　　다속아간다
　어허어헝 서화디야
날이민날마다　　요일을ᄒᆞ민
　어허어헝 서화디야
궤로움인덜　　아니ᄒᆞᆯ손가
　어허어헝 서화디야
느지마지기　　불러나보자
　어허어헝 서화디야

어요패덜　　건실ᄒᆞ다
　어허어헝 서화디야
초패나막패나　　패출려들소
　어허어헝 서화디야
숨이차서　　못ᄒᆞᆯ로고나
　어허어헝 서화디야
어허ᄒᆞᆫ놀레　　높디놀자
　어허어헝 서화디야
이놀레가　　막놀레라
　어허어헝 서화디야

〔1981. 7. 13., 허승옥, 남·82.〕

3. 똑딱불미노래

불미나불엉　　담배나먹자
　푸르르탁탁 푸르르탁탁
ᄒᆞᆫ술적이　　어멍죽고
　푸르르탁탁 푸르르탁탁

싀솔적이　　아방죽고
　푸르르탁탁　푸르르탁탁
잘불어라　　예
　푸르르탁탁　푸르르탁탁
불미나불엉　　담배나먹자
　푸르르탁탁　푸르르탁탁
물미잘불어라　　예잘불엄십니다
　푸르르탁탁　푸르르탁탁
불미나불엉　　담배먹자
　푸르르탁탁　푸르르탁탁
요불미언제믄　　다불엉가나
　푸르르탁탁　푸르르탁탁
불미나독딱　　불어나보자
　푸르르탁탁　푸르르탁탁

〔81. 7. 14., 홍기화, 여 • 53〕

4-1. 방앗돌 굴리는 노래

어야홍 오오이히이이 이히이이이히 넘어가는 소리라
　어야홍
어허어허어 어허어허어 이히이이히이 적군님네 근실도ᄒᆞ다
　어야홍
천추만년 어허어허어 이히이이히이 숨풀속에 좁자단돌로
　어기영차
어허어허어 이히이히이 오놀날로 양기를 쒜우는고나
　어기영차
어허어허어 이히이히이 구불구불ᄒᆞ단 길로
　어기영차
적군님네 어허어허어 이히이히이 심으로 이고개를 넹겨보자

어기영차
어허어허 이히이히이 잘도넘어온다
어기영차
멩사십리 이히이히이 이히이히이 해당화야
어기영차
꽃진다고나 어허어허어 이히이히이 설워를말라
어기영차
멩년춤삼월 어허어허어 이히이히이 돌아오민(청취불능)
어기영차
인생훈번 어허어허어 이히이히이 돌아가민 다시올줄 모르는구나
어기영차
살아실적에 어허어허어 이히이히이 요일을흐여두민
어기영차
훗대즈손덜 어허어허어 이히이히이 거느려줄손가
어기영차

〔81. 7. 13., 허승옥, 남·82〕

4-2. 방앗돌 굴리는 노래

아야호오~으으으~에헤야야~에에에~에헤에에~에헤에에~에에에에~넘어가는소리
어기영차
오호오호 어허어허 에헤에헤 에헤에에 에헤에에 에에에에 요놈의돌 무거운돌이여
어기영차
오호오호 어허어허 에헤에헤 에헤에에 에헤에에 에에에에 친구분네 다모다왓져
어기영차
오호오호 어허어허 에헤에헤 에헤에에 에헤에에 에에에에 넘어가는

고나

어기영차

활등ㅁ찌 굽은질로 에헤에헤 에헤에에 에헤에에 살대ㅁ찌 날아든다

어기영차

꾸불꾸불 에헤헤헤 에헤에에 에헤에에 지픈골짝

어기영차

질을다까근 에헤에헤 에헤에에 에헤에에 짊어당기는 소리로고나

어기영차

질을다까야 에헤에헤 에헤에에 요놈의돌로 에헤에에 에에헤에 목적지로 들어간다

어기영차

오호오호 어허어허 에헤에헤 에헤에에 에헤에에 에에에에 권력덜 잘 ᄒᆞ여줍서

어기영차

〔81. 7. 13., 강원호, 남 • 53〕

5. 집줄 놓는 노래

어어어~허어어~ 어어~허어허어 어어어~허어허어으으~ 선이로다

여오호~랑사

줄줄이넘어가는구나 어어~허어어 어어어~허어허어 어어어허어허어으으~ 선이로다

여오호~랑사

어어어~허어어 어어~허어허어 어어어~허어허어으으~ 여오호랑사

여오호~랑사

어어어~허어어 어어어~허어허어 어어어~허어허어으으~ 선이로다

여오호~랑사

적군님네덜 어어어허어어 어어어허허허어으으으으 일심동력ᄒᆞᆸ시다

여오호~랑사

일락서산 해떨어지고 어어어~허어어 어어어~허어허어으으~ 월출동향 돌돋아온다

여오호~랑사

어어어허어어 어어어~허어허어 어어어~허어허어으으~ 선이로고나

여오호~랑사

어어어허어어 어어어~허어허어 어어어~허어허어으으~ 선이로다

여오호~랑사

줄줄이넘어가는구나 어어어~허어허어 어어어~허어허어으으~ 선이로구나

여오호~랑사

어어어허어어 어어어허어허어 어어어허어허어으으으으 선이로다

여오호~랑사

어어어허어어 어어어허어허어 어어어허어허어으으으으 선이로고나

여오호~랑사

〔노래가 끝난다음 이 노래의 전승실태에 대해 논의하다.〕

〔81. 7. 13., 송평우, 남 • 59〕

6. 밭가는 노래

돌아오라 이송아지야 어허어어어어허~〔 소리를 같이 돋구면서 "어이 이송아지야 걸어봐"〕 어허영어허어어허~〔 소리를 높이면서 "허싯거 허싯거"〕

일락서산 해떨어지고 월출동경 돌 솟아오는 줄 모르는 이송아지야 어어어어어허영어허~어엿

오늘날도 오어어어어~ 홍에기로고나

오늘날도 어어어어어어~ 이송아지야 돌아오라.

〔81. 7. 13., 송평우, 남 • 72〕

7. 맷 돌 노 래

이여이여　　이여로 ᄀᆞᆯ앙
이엿말라그네　　말아근가라
말아근가민　　놈이나웃나
대로한질라그네　　놀레로가라

갈이올이라그네　　셈아니세난
나도입에라그네　　ᄀᆞᆯ을말한다

어멍보민　　ᄀᆞᆯ을말한다
어멍웃인　　틈으로가라
어멍웃인　　질흐로가라

질ᄀᆞᆺ집이라그네　　도설낭심엉
갈이올이라그네　　맛볼인하다
나일도웰인　　ᄒᆞ나이웃나

어떤사름은　　팔ᄌᆞ나좋앙
고대광실　　노픈집의
등맞이로　　나누원
이내놈의팔재는　　무신놈의팔재

전싱궂엉　　구월에나난
구엣꼿도　　나벗이더라
나벗이더라　　나벗이더라

이엿놀레라그네　　불러나보저
요ᄌᆞ레야　　정ᄌᆞ레소리
이여동ᄒᆞ라　　이여동ᄒᆞ라

이여이여　　이여동ᄒᆞ라
돍은울엉　　날이나샌다
내사울엉　　어느날새랴

놈의첩광　　소남의ᄇᆞ름
소린나고　　살을메웃나
살을메　　살을메웃나

저산뒤에　　나부모잇당
서룬아기　　소리로압서

질ᄀᆞ집이랑　　도설낭싱건
갈이올이라그네　　맛볼인하도
나일도웰인　　ᄒᆞ나이웃엉

전싱궂엉　　구월에나난
구엣꼿이　　나벗이더라

어떤사름은　　팔제나좋앙
고대광실　　노픈집의
등맞이로　　누리멍살리
요내팔재는　　어떤날에나난
집원드난　　정ᄀᆞ레소리
밧뒫드난　　우김새소리
요런집에도　　어디도시랴

이엿말일랑　　말아근가라
갈이올이는　　셈이나세난
나도입에라그네　　ᄀᆞᆯ을말한다

울고가민　　놈이나웃나
대로한질랑　　놀레로가라

울멍밥이랑　　손으로먹엉
무정ᄒᆞ난에　　성아니진다

〔1981. 7. 14., 양경생, 여 • 72.〕

8. 김매는 노래

A 여기여랑　　서아디야
B 여기여랑　　사디로고나
A 검질제운　　요놀레여
B 앞멍에야　　들어나오라
A 뒷멍에랑　　무너나라
B 검질짓고　　굴늦인밧듸
A 고분쉐로　　여희멍매게
B 고분쉐로　　여희멍가자
A 검질제운　　요놀레여
B 여기여랑　　서아디야
A 여기여랑　　사디로고나
B 요런날에　　요런일홈이사
A 여기여랑　　사디로고나
B 성도언만　　가실소냐
A 어기여랑　　서아디야
B 어기여랑　　사디로고나
A 어기여랑　　서아디야
B 이내목도　　나더라마는
A 검질제운　　요놀레여
B 구시월에　　수가질먹언
A 어기여랑　　사디로고나
B 목을담젼　　말몰랍서라

A 어기여랑 서아디야
B 어기여랑 사디로고나
A 어기여랑 서아디야
B 조그마니매영 새해랑매게
A 앞멍에야 들어오라
B 지치구나 자치구나
보리떡에 지쳣나
A 뒷멍에랑 무너나라
B 어기요랑 사디로고나
A 열락서산 해떨어지믄
월출동경에 돌솟아왓네
B 어기요랑 서와디야
A 어기요랑 사디로고나

〔81. 7. 14., A～윤추월, 여 • 66., B～박춘화, 여 • 75.〕

9. 베 틀 노 래

저산아 이산아
월궁에 놀단산아
더홀수는 웃어지니
옥낭간에 베클대여
베클대는 삼성제여
잉앳대는 원성제여
배아치 앚인시늉은
서월선비 앚인시늉이라
허리안개 둘른법은
북두칠성 둘른법이라

저산아 이산아
월궁에 놀단산아

더홀수는 웃어지니
옥낭간에 베클대여
베클대는 원성제여
잉앳대는 삼성제여
배아치 앚인서눙은
서월선비 앚인서눙이라
잉애 새서꺼지는서눙은
저나라에 이나라에
싸움싸움 ᄒᆞ는것이라
허리안개 두른법은
북두칠성 두른법이라
추침대 가고오고ᄒᆞ는건
저바당에 고기나깐
이레착 저레착ᄒᆞ는것이라
꼬리박이 들고나고ᄒᆞ는것은
성방이방 출입ᄒᆞ는것이라

두릉머리 우는것은
웨지레기 쌍지레기우는소리라

〔1981. 7. 14, 양경생, 여·72.〕

10. 꼴베는 노래

이촐저촐~ 비여보자 촐이촐이 노단촐을 오뇰날도 깁을갈라가리는고나
적군님네 정신촐랑 ᄒᆞ여보자도오~ 오호~ 오호오호오~
선소리도~ 뇰로나질러봐도 산범ᄆᆞ뜬 요호미로 스르릉스르릉 잘도간다 어호오~ 어호오~ 홍애로고나 요놀레로 ᄒᆞ여가자
날이새민 태양을 맞아사잇고 밤이 뭬민 촌이슬 맞아사잇네

것입나고 속입나니 푸릿푸릿 푸린산중 뭬여서잇다
적군님네 권력흡서~ 어허~ 어어~ 적군님네 혼저 권력덜흡서
쓰릉쓰르릉 놀연장소리라
이내인생(청취불능) 아이고 일기도 덥긴덥구나 으흐~ 하늬부름은 스릉스릉난다마는 아이고 더원 못배길로고나
지쳣구나 미쳣구나 도오~ 혼소리로 정신을 출려보자~ 도오~
요놀레로 오놀은 새자~ 나놀래랑 산을넘고 물을넘어 요놀레로 오놀은 새여보자
(청취불능)
이산중에 노단풀은 오놀날로 깁을갈라가리로고나
더럼마 더리럼마이로고나 어어어~ 어어이~ 어어~ 홍애로고나
스르릉스르릉 놀연장소리라
아이고 못느릴로고나 나아덜 언제믄 시간가나 오호야아~ 아이고 홍애기로고나
날도좋고 선소리하늬가난다 이여차 소리에 요출덜 비여보자 혼좀두좀 비염시난 웃어져간다
싀상천지에 요일을 홀려호니 천년만년 가실손고
이러어~ 열두정신 출려나보자

〔81. 7. 15., 김대옥, 남 • 58〕

11. 연자매노래

어려려려려려려려 요몽생이저몽생이 혼저뱅뱅 돌아오라 어려어려려~ 려려려려려~ 려려~ 려려~ 어어려
려려려려려 혼저돌아오라 이방애 혼저져뒁 밧듸갈츠례여 어려려려려려려 어려려 어려~
혼저돌라 뱅뱅돌라 연자방아 혼저돌라요방앨 혼저정 문저사 밧갈레갈츠례여 어려려 어려려려~ 어려려려~ 어려려려 허어

어려려려려 어려려려 어~려~려 어려 이뭉생이 이거 어떠난 어려려 어려려려려허어

훈저 뱅뱅돌라 연자방아야 어려려어허~어려려려 어려려 어려려려허어

〔81. 7. 15., 강병옥, 남 • 58〕

12. 짚 두드리는 노래

서두리도	더럼마야	행
서두리도	더럼마야	행
요찍을	두드려당	행
초신을	걸려매영	행
서두리도	더럼마야	행
이신저신	걸려매영	행
밧갈이	떠나쟁ᄒᆞ는구나	행
서두리도	더럼마야	행
어기여차	요찍을두드려보자	행
서두리도	더럼마야	행

〔81. 7. 15., 문윤옥, 남 • 61〕

13. 나무 켜는 노래

ᄉᆞ르릉ᄉᆞ르릉 요톱소리로고나 으으흐으~ 얼쑤간다 요톱소리 이히~

산범ᄆᆞ뜬 요톱아 훈번에 놀려들라 으으~ 어허~ 허아어~ 아이고 요톱소리라~ 허잇 아이고 요톱 잘도간다

한락산이 들들훈다 영실암이 들들ᄒᆞ는구나 요톱소리로 오호으~ 오호으~ 오흐어 아이고 잘도간다 요놈의톱 어헤에에~ 에헤~이

아이고 영실이 스릉스릉 아이고 요톱소리에 아이고 울려퍼지는 소

리가 오허어~ 어허어~ 오허어~ 아이고 잘도혼다 요놈으톱 스롱스롱 싸지라 오허어~ 으흐어~

산범ᄀᆞ뜬 요톱아 눈을쓸고 놀려든다 으흐어~ 어허으~ 오호으~

보리떡에 쉬미치고 으흐~ 어으~ ᄆᆞ물떡에 야개건다 어허~ 어호~ 요톱 들어간다

〔81. 7. 15., 강병옥, 남 • 58〕

14. 타 작 노 래

A 어야홍아 B 어야홍
A 어야홍아 B 어야홍
A 혼섭ᄒᆞ고 B 어야홍
A 두섭이여 B 어야홍
A 어야홍아 B 어야홍
A 적군님도 B 어야홍
A 지쳣구나 B 어야홍
A 요동산을 B 어야홍
A ᄒᆞ여보세 B 어야홍
A 혼소리랑 B 어야홍
A 야티ᄒᆞ고 B 어야홍
A 혼소리랑 B 어야홍
A 올려보자 B 어야홍
A 어야홍아 B 어야홍
A 혼소리랑 B 어야홍
A 요만ᄒᆞ민 B 어야홍
A 홀만ᄒᆞ다 B 어야홍
A 어야홍아 B 어야홍
A 어야홍아 B 어야홍
A 요건생곡 B 어야홍

A 요딘생곡 B 어야홍
A 못일대로 B 어야홍
A 못아나보자 B 어야홍
A 어야홍아 B 어야홍
A 어야홍아 B 어야홍
A 적군님네 B 어야홍
A 권력덜ᄒᆞ영 B 어야홍
A 어야홍아 B 어야홍
A 요건진곡 B 어야홍
A 못아보자 B 어야홍
A 어야홍아 B 어야홍
A 어야홍 B 어야홍
A 혼섬ᄒᆞ고 B 어야홍
A 두섬이여 B 어야홍
A 만날때려도 B 어야홍
A 그이상나오지않은다 B 어야홍
A 어야홍아 B 어야홍
A 요런적군덜이 B 어야홍
A 요런일홈이사 B 어야홍
A 소인덜사 B 어야홍
A 다ᄀᆞ뜰소냐 B 어야홍
A 어야도홍아 B 어야홍
A 어야하야 B 어야홍
A 지치거랑 B 어야홍
A 졸지말앙 B 어야홍
A 놀멍자당 B 어야홍
A ᄒᆞ여보세 B 어야홍
A 어야홍아 B 어야홍
A 어야로홍아 B 어야홍
A 요건생곡 B 어야홍

A 뜨려보자　　B 잘도잘혼다
A 어야홍아　　B 어어허
A 어야홍아　　B 어야홍
A 어야홍아　　B 잘도잘혼다
A 어야홍아　　B 어야홍

〔81. 7. 15., A～문윤옥, 남・61., B～송평우, 남・59., 윤추월, 여・66.〕

15. 나무 쪼개는 노래

서두리도　　더럼마야　　헤
요산중에　　놀단남도　　헤
을축삼월　　삼진일에　　헤
존날존실　　택혀여가지고　　헤
오놀은　　나고가라　　헤
요남을　　패어다가　　헤
어디를　　써볼꼬　　헤
우리 큰아덜　　풀때에　　헤
잔치때　　불땜으로나　　헤
써볼까　　　　헤
요산중에　　놀단남도　　헤
오놀날은　　나고가라　　헤
우리덜이　　홀일이　　헤
요거로고나　　　　헤
서두리도　　더럼마야　　헤

〔81. 7. 15., 문윤옥, 남・61〕

16. 따비질 노래

A 이따비저따비야 놀려나들라 헤
A 훈소리로 골겨든다ᄒᆞ는구나 헤
A 철통ᄆᆞ뜬 요따비야
A 이소리도 이새밧을이겨나보자 헤
A 훈소리에 용기를냅시다 헤
A 놀레불렁 이놀레여 헤
A 철통ᄆᆞ뜬이따비야 골겨들라 헤
A 자단아기 일어나듯
A 오곳오곳 일어나라 헤
A 요따비야 나손에서
A 노는고나 헤
A 자단아기 일어나듯
A 오곳오곳 자쳐나지라 헤
A 이따비질로 이밧을갈아보자 헤
A 아이고신단지아판 따비질도못헤여 헤
A 영도정갱이아판 어떵이밧을갈아먹으리 헤
〔윤추월씨가 곁에서 듣다가 함께 끼어들어 노래한다.〕(B로 표시)
B 산범ᄆᆞ뜬 요따비야
A 훈저나들믄 ᄒᆞ건마는 헤
B 자단아기 일어나듯
A 풀아판 못홀로고나 헤
B 오골오골 일어나나라
A 이태역밧을 일려나보자 헤
B 태역ᄒᆞ경 산일러라
A 요따비에 골겨들라 헤
B 나고가라 들고가라
A 나고가민 어디산고 헤
B 태역단풍 좋은딜론

A 따비라ᄒᆞᆫ것은 골겨나들라 헤
B 이골아래 좋은딜로
A 철통ᄆᆞ뜬 요따비야 헤
B 나고가라 나고가라
A 우겨나들라 골겨들라 헤
B 어야ᄒᆞ고 산일러라
A 요태역밧을 이겨나보자 헤
B 산범ᄆᆞ뜬 요따비야
A 전력을다ᄒᆞ여 ᄒᆞ여나보자 헤
B 오골오골 일어나라
A ᄒᆞᆫ소리에 일어난다 헤

〔81. 7. 15., A～김대옥, 남 · 58., B～윤추월, 여 · 66〕

17. 밭 밟는 노래

요밧을불려나보저 어려려려려 다덜 모여나삽서 요물 생긴돌덜 말아니들엄구나

어려려려려～ 어려려려려려려려려려려려 걸엄시라 이물덜아 어려려려려려려려려려려려 어려려어려 어려ᄒᆞ멍 걸어간다 어려려어～ 어려려어～ 어려려려려려 이물덜생긴물덜 물아대영 이밧을 불려보자 어려려려 저물덜 ᄒᆞᆫ저저물막으라 어려려려려려

이몽생이 돌암시라 이밧을불려나가는고 어려려어려 천총매ᄆᆞ찌 이밧을 건들건들 불려간다 어려려려려려려 어려려 어려려어허

재미잇게 물암시라 우랑주랑 걸어간다 어려려려려 어려려려려 어려려 오늘은 해가지도록 불려사 이밧을불릴로고나 어려려 어려려～ 어려허 어려려 이ᄆᆞ쉬덜

돌아나지말앙 풀풀 돌아오라 어려려려 어려려려려려려려려

〔81. 8. 11., 송평우, 남 · 59〕

18. 자 장 가

자랑자랑　　자랑자랑
웡이자랑　　웡이자랑
어진동아　　좀을자라
착혼동아　　좀을자라
어질구나　　착혼구나
우리아긴　　좀을잔다

놈으아긴　　우는소리
우리아긴　　자는소리
어서자라　　좀을자라
옥주동아　　좀을자라
금주동아　　좀을자라

할망주손　　재와줍서
할망아기　　재와줍서
돈밥멕영　　키와줍서
돈좀재왕　　키와줍서
어지시던　　할망아기
할마님이　　궤양궤양
키와줍서
어지시던　　할마님으로
못홀일이　　실카보우꽈
은주뜬손으로　　어릅쎌멍
키와줍서　　금주뜬손으로
어릅쎌멍　　키와줍서
할망아기　　키와줍서
할망주손　　키와줍서

南濟州郡 安德面 德修里

어서 자라	동네 자랑
어진동아	어서 자라
자랑자랑	자랑자랑
자～랑～	자～랑～
어진할망아기	자랑자랑
어질고도	착ᄒᆞ구나
자랑자랑	자랑자랑
자는것도	좀소리여
노는것도	놂소리여
어지시던	할망아기
할마님이	키와줍서
물웨크듯	키와줍서
춥웨크듯	키와줍서
할망아기	키와줍서
자랑자랑	자랑자랑

〔1981. 7. 14., 오원길, 여・52.〕

說　　話

指導教授　玄　吉　彦
班　　員　金　福　心 (國教・3)
　　玄　丞　桓 (國教・2)
　　洪　喜　仙 (國教・2)
　　李　奇　南 (國教・2)
　　文　錦　淑 (國文・2)

目　　次

1. 막산이
2. 오찰방
3. 소목사와 오댁(吳宅) 묘
4. 도원리 강훈장
5. 이좌수
6. 산방산에 묘 안쓰는 이야기
7. 괴상한 세동무
8. 피로 장가든 정승아들
9. 신기한 호랑이 눈썹
10. 악한 며느리
11. 사람 잡아먹는 호랑이
12. 광정당과 이 목사
13. 광정당 이야기
14. 사람이 돼지로 환생한 이야기

1. 막　산　이

막산이라곤 흔 이가 놈의 종으로 살았지. 〔조사자 : 예〕 막산이엔 흔 사람이 남의 종인디 창천이 이 안칩[1]이 강때기(姜宅) 알칩(아랫집)이엔 흔 소위 알칩 웃칩[2] 뭐 베염바리[3] 무신 영해서 그 강칩(姜宅)의 종이랐는디, 감

1) 집안 이름.
2) 웟동네에 있는 집(宅).
3) 강댁(姜宅)의 다른 이름.

산(甘山)이 안골이엔 ᄒᆞᆫ디가 있는디, 안골 영 ᄒᆞᆫ디가 있는디[4], 그디 동상 ᄒᆞ날(하나를) 파면 그 물을 뱅기면은(넘기면은) 논밭이 아주 좋은 디가 있는디[5]. 그놈이 동상 하나로 막아서 노시 이 논을 붋지 못ᄒᆞ게 된단 말이여.[6] 그 알칩 선대(先代)가 이젠 그 종놈보고, 그 막산이엔 ᄒᆞᆫ 사람보고 말하기를,

"너 난드로 가서 놉[7] 쉰만 빌어오라. 저 안골 그 동상 파그내 그 안에 내 논을 붋겠다."

"뭐. 경헙주. 아, 게믄 이제 강 오쿠다.(가서 오겠읍니다)."

"오, 강 놉 강 쉰만 빌라."

이제 그놈이[8] 가그내 간. 다 저므러가난 완,

"다 가난 해주켄 ᄒᆞᆸ디다. 쉰 빌었우다."

하. 집이선 이제 놉 낼 쉰 빌었으니깐 강 점심이영 잘 출령강(차려가서) 멕이라고.[9] 돌일(산을 파헤치는 일) ᄒᆞ젠 ᄒᆞ민 못젼디는 거 아니냐고. ᄒᆞ니깐 잘 행강(해가서) 멕이 렌. 하 집선 멧 사람 빌어놓고 해내 쉰 놈 멕일 점심을 이제 불각대각[10] 출렸단 말이여. 간 보니 사름 ᄒᆞ나 흔적도 없고 그 놈 ᄒᆞᆫ자만 그자 태역동산(잔듸밭 동산)에 획 티갈라젼(등을 땅에 대고) 들어누엉 잠서.

"아, 너 이놈의 자식 어느거 놉 빌어 오랐나."

"뭐, 이제도록 ᄆᆞ자(지금까지) 간 뭐 해봐도 ᄂᆞ시(전혀) ᄒᆞ나도 오든안ᄒᆞ고 이제 무저눈에(무정한 눈에) 좀이라. 아자서(앉아서) 쓱쓱 졸아지니 이제도록 자져쑤다."

하, 경해연 어떠ᄒᆞᆯ거냐고. 이젠 밥이영 다 행왔는디.

"게나저나(그러나 저러나) 밥이나 내놉서."

ᄒᆞ난 밥 내ᄂᆞ난 쉰 먹을 밥을 ᄒᆞᆫ자 다 들러먹엉 문짝(모두) 들러먹엉.〔조

4) 안골 밖골이라고 말하는 곳이 있는데.
5) 좋은 논을 만들 수 있는 땅이 있다는 뜻.
6) 논을 만들 수 없다는 뜻.
7) 일꾼.
8) 막산이가.
9) 먹이라고 집안 사람들에게 준비를 시켰다는 뜻.
10) 급히.

사자가 웃자 이야기판 사람들이 모두 웃음] 하하. 내가 이거 크게 죄지슬 일을 해졌구나. 이렇게 먹는 배를 돈으로랑 주지 못홀지라도 이제 배 ᄒᆞ나 ᄀᆞ득이지 못해서 내부렸으니(내버렸으니) 내가 큰 죄를 짓게 됐다. 속으부로 이렇게 생각하였는디, 그 알칩 선대는 항상 저 군산[11] 소들개(ᄯᅮᆨ대기)에 강 아장(앉아서) 그자(그저) ᄉᆞ방(四方)만 바랬지. 영해연 그 군산 소들개에 강 아장 영 ᄉᆞ방에 망(望)을 보는디,[12] 날이 ᄌᆞ므라(저물어) 가는디, 안골이엔 ᄒᆞᆫ 디로 안개가 져서 왁왁ᄒᆞᆫ다(캄캄하다) 말이여. 어째서 오는 ᄇᆞ름(바람)도 자고 ᄒᆞᆫ 날 저디(저쪽) 안개가 져서 정 ᄒᆞ는고. 아 뒷날은 간보니 ᄒᆞᆫ자만 그걸 문짝(모두) 파대서. [조사자 : 아! 예?] 그디 논을 박았지(만들었지). 뒷핸 나니(되니) 그 부인보고 말ᄒᆞ기를 낼랑(내일은) 저 술 ᄒᆞᆫ두 개만 내놓고, 저 밥 설나문(30여명) 먹을 거 반찬이영 잘 출령 내노라고.

"무시걸 허젠 헴수과."

아, 뭘 했든지 내노라고 경허난(그러면), 홀대로 ᄒᆞ랜(하고픈 대로 하라)

"아, 뭐 경 협주 뭐."

뒷날 아침에 이젠 밥들을 ᄒᆞ랜 ᄒᆞ니 이레 설나문 먹을 밥을 출련 막 내놓으니 이젠 그 종놈보고 말ᄒᆞ기를,

"느 오늘나그내(오늘이랑) 허리띠 클러그내(풀어놓아서) 실끈(실컷) 느양ᄒᆞᆫ 먹어보라."

"경 먹을 거 쳐(많이) 해져서 마씸."[14]

"거 잘 출리진 못했져마는 이거 느심ᄒᆞᆫ껏(힘껏) 먹으라. 내 오늘 삼신(세끼는) 느 대끈(넉넉히) 잘 멕여주마"

경ᄒᆞ난 자 서른 먹을 걸 문짝 먹지. 술도 ᄒᆞᆫ 통에 그자 홈치(한꺼번에) 큼지컨 그 박쌔기(박아지)로 거리멍 문짝(모두) 들러먹지 ᄒᆞ리 삼시에 서른 먹을 밥 먹고 수십 통을 먹어. ᄒᆞ니 저녁끗진 멕인 후제(후에) 그 종문서를 이제 싹ᄒᆞ게 내놔 주멍,

---

11) 창천리 지경에 있는 산.
12) 동정을 살피는데.
13) 두 동이만.
14) 준비가 되었느냐는 뜻.

"너 이제랑 너대로 강 벌어먹엉 살라. 내 너에게 이제도록 큰 죄를 지었다. 너 배하나 ᄀᆞ득이지 못하고 내 너를 집에서 ᄃᆞ랑(데리고) 살았으니 내 그 죄를 어디 가서 겪으느냐(갚으느냐). 이제랑 너대로 강 벌어먹엉 살라."

이젠 어디 갈 디가 이서.[15] 뭐 이젠 산에 올랐지. 산에 올라서 저 일로[16] 제주시래(로) 가는디 소위 〈막산이 구석〉〈막산이 구석〉 ᄒᆞ는디가 있어. 일로 저영(저렇게) 가곡 절로 영 오는디. 아마 여기서 ᄀᆞᄆᆞ민(같으면) 저 우리 먼 올래만은 ᄒᆞᆫ 디가 울쑥(움푹) 굴렁지진(패어진) 디가 있는디, 그ᄉᆞ방은 맨 낭밭(나무밭)이라. 낭이 칭칭 ᄒᆞᆫ 디가 있는디, 그자 옛날은 먹을 거가 귀해노니까니 그 목ᄌᆞ(牧子) 놈덜 ᄒᆞ여 볼 건 어선.[17] 그 나라쇠 그 진상쇠라고 그자(그저) 쇠 솔진 놈 그진 잡앙 밤이덜은 그 좋은 낭불(나무를 지핀 불)에 구엉 그자 들어. 그걸로 때를 살아. 〔조사자 : 여기서 진상쇨 가져가당 거기서 뺏겨싱가 마씸〕 진상쇠를 그 목ᄌᆞ놈들이 다 경히영 질르주게(기르게 된다). 그것들은 저 쇠보는 업뿐이난게. 목ᄌᆞ놈덜은 쇠와 물만 보니까니. 그 쇠 잡아그내 구엉 먹젠 헴시민(하고 있으면) 나도(막산이도) 강 ᄒᆞᆫ점 얻어먹저 ᄒᆞ민, 아. 그디선 시부렁 시부렁 뭐시엔 헤가민 영 그짜 싹혜 영 〔시늉〕 그 사람들을 영 제처동(제쳐두고) 지만(자기만) 아장(앉아서) 문짝(모두) 들러먹엉. ᄒᆞ고 그디 그 막산이 구석이엔 ᄒᆞᆫ 디 큰 낭이 있는디 영 마주 어우러젼 그 우인 그자 낭이 두갠디(두개인데) 마주 어우러젼 영 ᄒᆞ난 〔시늉〕 그 나물 평상으로(만들어서) 눠자당(누워자다가) 어두아가민 그자 높직ᄒᆞᆫ 디 산(사서) 영 망ᄇᆞ다그내 불만 솔라가민(피워가면) 그디 강 뭘소 소복이들(수북이들) 궝먹으면 영 그자 제처동(제쳐두고) 그자 혼자 다 먹고 그래. 경ᄒᆞ멍 살단 죽었다고 ᄒᆞ여. 〔조사자 : 정운디에게 죽었젠ᄒᆞᆫ 말도 있어 마씸 예?〕. 정운디는 그런 일이 없는디. 저산이(정운디 묘소) ᄌᆞ손이 어디 있는걸로 아는디.

(1981. 7. 16., 안덕면 덕수리, 송경은, 남 · 70.)

---

15) 막산이가 갈 곳이 없다.
16) 이곳으로, 즉 대정(大靜) 지방에서.
17) 먹을 거 구할 방법이 없어서.

2. 오 찰 방

아방(아버지)이 다울리거든(쫓아가거든) 이제 남신(나막신) 신은냥, 그 옛날은 낭으로(나무로) 판 신. 나막신 그 비올 때 신는 거 그 신 신은냥 돋거든(뛰거든) 돌으니 졸으매(뒤으로) 다울리니 저 단산봉[1]이라고 저 굼주오름[2] 저래(저쪽으로) 돋거든〔손짓〕. 이놈의 새끼가 아마 매우 용심날거라. (화가 날 것이라.) 막 다울리니, 질(제일) 높은디로 간 알더레(아래로) 벌짝(풀쩍) 튀어. 아, 이놈의 새끼 그저 어디 걲어정 죽어실거라헨. 돌아오멍도(돌아오면서도) 어찌 원 집이 오랑 부인ᄀᆞ라(에게) 골아그내(말하여서) 혼디 강 촟아보카헨. 집에 오탕보니 벌써 아장 밥물 먹엄서.[3]

"하, 요녀석이 뭔 수완있구나."

ᄒᆞ연 그놈 술, 그 부인보고 구암 약주[4]를 출리라고. 소주를 놔그내 또 솥에 놩 닦으고(고으고) 닦으고 아홉 번만 닦으민 요새 알콜만 ᄒᆞ여. 구암 약주라고. 술 아홉 번 닦아내 그놈을 푹 멕이니 춤 일뢰(이레) 자더라고.[5] 일뢰 잘 때, 들렁보니[6] 이게 놀개기(날개)가 돋았거든. 혼디 어디사 있는지(있었는지) 멩지(명주) 헝겊으로 놀갤 똘똘 쌌어. ᄒᆞ니, 그놈을 이제 요새 마침 존(좋은) 멘도칼같이 놀샌 것으로 그놈을 끊어내 막 불로 지져불었쭈. ᄒᆞ니, 술 깨연, 자당 깨어난 보니 눈물 뚝뚝 내여. 경허난 그 찰방 벼슬이엔 혼것도 아마 높은 벼슬인 모냥이라. 서울 올라가내 ᄒᆞ니 서울에 그 남산에 그 뭐 도적놈이 사는디, 자꾸 장안에 들어서 그 펠 지쳐가니, 그놈의 도적을 잡지 못헨. 그 도적 이름이 그 뭐시렌 ᄒᆞ더라마는. 오 찰방이 간그놈을 잡아내는디, 그놈을 물 꽁지에 돌아매고 서울 장안거릴 물타서 짝 기어들서며는 큰 벼슬을 벌 건디, 장안에 오라가지고 물을 부려이껀[7]. 그놈을 들여오니, "너 섬에서 난 놈 홀 수 없다." 그래서 찰방벼슬밖에 아니줬다고

---

1) 안덕면 지경에 있는.
2) 단산봉의 속칭.
3) 오찰방이 먼저 돌아와서.
4) 아홉번 고아낸 술.
5) 7일동안 잠을 잤다.
6) 겨드랑이를 들쳐보니.
7) 말에서 내려서 말을 끌고.

ᄒᆞ여.〔제보자 : 사람 졸렌(마음이 크지 못하다고) ᄒᆞ연 예.〕 담배[8]가 약ᄒᆞ다고 해서.

(1981. 7. 16., 안덕면 덕수리, 송경은, 남·70.)

3. 소목사와 오댁(吳宅) 묘

그 양 수덕이 있는디. 그 ᄉᆞ이에는 ᄒᆞᆫ디 팬팬한 터역밭이처럼 문짝ᄒᆞᆫ디 있는디, 어디 뭐 제주시 근방 어디에 뭐가 자꾸 그디 오랑 산을 쓰젠 허주게. 거긴 옛날 창천이서 거기 젯단이라고 제 지내난 동산이주게. ᄒᆞᆫ디 소위 속칭 우리 걸, 거기를 쌍선망월형(雙仙望月形)이엔 허주게. 두 신선이 돌을 배리는 형이다. 아, 강 보민 우리 아지못ᄒᆞᆫ 생각에도 산 씀직ᄒᆞ여. 반반한 터역밭에 앞더렌 바래민 이 낭더렌 벵디가 문짝ᄒᆞ게 바지고, 하방이영 다 문짝ᄒᆞ게 바지고.〔조사자 : 산을 잘 써서 흥한 산에 얽힌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충청도 소목사[1]가 제주에 와서 그 지춤소[2]를 아주 추앙했드랬주. 충청도 소목사그이가 아주 그 지리에 붉갔던 ᄆᆞ양이라. ᄒᆞᆫ디 제주 그 소목사가 제주 와서 딱 도임해서 ᄒᆞᆫ 일주일 후에는 순력을 ᄒᆞ게 되니까니 거기 그 영리방[3] 보고 말ᄒᆞ기를,

"제주에 지춤ᄉᆞ산 아는 사람이 있느냐."

"지춤ᄉᆞ산이 대정(大靜)에 있읍니다."

"그 대정지방 가민 그 산을 꼭 ᄆᆞ르쳐(가르켜) 달라."

"대정지방 가민 ᄆᆞ르쳐드리겠읍니다."

하니 감산[4](甘山)이 딱 신작로 붙은 알력(아랫) 밭이거든. 대정지방 가가니

"지춤ᄉᆞ산이 멀었느냐."

"예. 멀었읍니다. 멀었읍니다."

하니 감산지방 오니

---

8) 담력.

1) 蘇牧使.

2) 池參書官.

3) 駅吏房.

4) 안덕면에 있는 마을.

"지춤ᄉᆞ산이 어디냐."

"예. 조금 일로 더 가민 곧 가까왔읍니다."

그디(그곳에) 오니깐,

"여기 지춤ᄉᆞ산이 가까왔읍니다."

"물 하매(下馬) 시켜라."

헤연, 물 하매시켠 내리고 해서

"이 ᄆᆞ을 정민장(警民長) 불러라.

정민장 불르니

"돍 ᄒᆞᆫᄆᆞ리만 내곡 저 술 ᄒᆞᆫ통만 행 가져오니라."

"돍은 생돍으로 가져옵니까. 숢은 돍으로 ᄒᆞ니까."

"숢은 돍 해야지. 생돍을 어찌 먹을 수가 있느냐."

돍 ᄒᆞᆫᄆᆞ리하고 술 ᄒᆞᆫ통이 ᄂᆞ려가니 이젠 지춤ᄉᆞ산 앞에 가서 그걸 올리고 이제 술 ᄒᆞᆫ잔헨. 이젠 싹ᄒᆞ게 그 산을 돌아봐

"우리 선생님 제주에도 영ᄒᆞᆫ디(이런데) 오랑 묻어졌구나."

ᄒᆞ면서 이곳을 삼백년 생골지지(生骨之地)라고. 뻬는 삼백년ᄭᆞ지 뻬는 삭지 안행 살아있을 땅이다라고.

그 ᄌᆞ끄띠선(곁에서) 그걸 통이엔 ᄒᆞᆫ건[5] 그 인통, 그 도장 가진, 요새 그 직인을 뚠 놈을 채와그내(맡겨서) 늘정 ᄃᆞ랑댕기는(데리고 다니는) ᄆᆞ냥이라. 요 대정(大靜)이 요디 이레 뭐 우리가 그 늘 먹단 물, 삼방(山房山)뒤에 군물이라곤 ᄒᆞᆫ 물이 있는디, 물 하매(下馬)시키라ᄒᆞ니 하매시키니, 그 군물동산에 그디 떡 ᄒᆞ게 아장(앉아서) 담배 ᄒᆞᆫ 대 피우고, 영(이렇게) 봐서

"ᄌᆞ으니라. 명호출림(猛虎出林) ᄌᆞ으니라."

범이 수풀 가운데로 나오는 형이라. 그 말이 아마[6] 그 통인이 대정골(고을) 오칩이(오씨집안) 선대(先代)가 통인이랐던 모양이라. 오칩이서 그 통인아방이 죽으니, 이젠 성복(成服)ᄒᆞᆫ 끝에는 즉시 그 소목사한테 돌려가서 엎드리거든

"어째서 왔느냐."

---

5) 통인(通引)은.

6) 그런 말을 통인이 듣고서.

"저 아버지 돌아갔읍니다."

"아버지 돌아갔는디 어째서 왔느냐."

"저 거 군물머리에 그자(그저) 산 ᄒᆞᆫ 자릴 주십서.[7]"

"안된다. 느 애태우질 아니했다. 아이된다."

"하, 게도 해보겠읍니다."

"너 그러면 장섯날(장사날)에 네가 곧 그 개광(開礦)ᄒᆞᆯ 때, 개광ᄒᆞ는 겉강(가서) 지켜라. 지켜서 돌반(편편한 반석) 나오라거든 ᄀᆞᆨ딱 건드리지 못ᄒᆞ게 해서 장술 지내라. 아, 게니(그러니)

"예. 경 허겠읍니다."

했는디. 아, 그딜 오랑 장ᄉᆞ를 ᄒᆞ기로. 아무 집이도 이 사위로 헤그내(해서) 집안 망ᄒᆞᆫ다 ᄒᆞ는 말이 있주. 그게 그런 말이주게. 아직 개광ᄒᆞ는디, 그 말 들언 ᄒᆞᆯ끈(딱) 들어산 보는디, 이제 대정군수가 조문왔다 ᄒᆞ니 자꾸 그 사위네가

"저 군수영감 조문왔읍니다."

군수고 아무고 가질 말앙(가지를 말아서) 딱 젼딜건디. 군수도 안오랐는디, 그 눈에 벤 셈으로(보여서) 그렇게 됐단 말이여. 딱 영리(駅吏)는 오란보니 군수도 아무도 없는디 그거여. 에 이젠 또 경ᄒᆞ디 간보니, 뭐 상젠 나오라불거니 그 돌이 나온다 말이여. 아메나 우리 처부(妻父)님을 이거 돌우이 묻느냐고. 이 돌 파불자고. 이제 그 돌이 이제 산(墓) 앞에 있주. 똑 비석같아. 누게 보민 비석 세운 산이엔 ᄒᆞ주. 그 돌을 뚝 떠받으니 비둘기 쌍이 팡 ᄒᆞ게 ᄂᆞᆫ다 말이여. 두 마리가 놀아서 ᄒᆞ니 이젠 파혈(破穴)이다.영헨(그렇게 하여) 그대로 파뒨 이제 그디 산을 썼는디. 옛날 산이난 ᄀᆞᆯ채ᄆᆞ치 영ᄒᆞ연〔손짓〕 ᄒᆞᆫ 산이라. 담이 영 네기(네귀) 반듯 안헨 영〔손짓〕 그 앞이 이제 주작이(우뚝) 서있주. 파분돌이. 헨 거 파혈했다.

소목사가 오란 봔.ᄒᆞ고(그리고) 이 앞이, 이 ᄒᆞᆨ교(학교) 알력밭(아랫밭) 저 일주도로(一週道路) 딱 붙은 알력밭이. 그디 오란 또 하매ᄒᆞ라 ᄒᆞ연 그디 아장 또 담배 붙영

"ᄌᆞ으니라. 좋다. 위선에 요래 산을 한 자리 써두고 영 했으면〔손짓〕 게

---

7) 산 자리를 봐 달라는 말.

도 감태 (감투) 자리가 멧 개 날 건디, 감태자린 아니나겠다마는 산은 좋다." ᄒᆞ여. 아, 그 말 들은 후젠 저 짐칩(김댁)이 산인디. 사계(沙溪) 짐칩이 산인디. 아, 그디 도산(都山)을 산 머리에 딱 썼다 말이여. 이녁 집이선 써노니 이젠 산 장파(長派)가 폭삭 망헤부런. 영 망헤부런. 게난 글찌후재 (그후에) 무과(武科)라도 선달 서너이 나오문 ᄒᆞ고. 〔조사자 : 아까 파열된 산이 어느쯤 있읍니까?〕 저 일주도로로 쭉 정 가민 요 삼방(山房山) 딱 뒤에 저디 가민(저곳에 가면) 못이 있는디, 군물이라고. 물이 있는디, 동산 바로 위, 저 우쪽(위쪽)에 바로 북쪽 영 ᄒᆞ디 저 곳밭(숲속) 끝댕이(끝) 〔조사자 : 파분 돌, 그 비석도 함께 서 있다고 예.〕 예. 이제 그 누게 보믄 비석이엔 허주 뭐. 비석은 그 산에 세운디가 막상 ᄒᆞᆫ 10년 안일거라. 비석은 요만ᄒᆞᆫ 비석〔손짓〕 크지 아니ᄒᆞᆫ거 세우고 그 돌은 아주 높안 거닥이 서 있주.

(1981. 7. 16., 안덕면 덕수리, 송경은, 남·70.)

4. 도원리 강 훈장

태종 강훈장이라곤 ᄒᆞᆫ 이가, 이 이는 어디 멩기당 어디 굿ᄒᆞ는디 봐지민 굿ᄒᆞ영 그자 얻어먹고 그자 지리, 땅보는디 가민 정시질 헤영 얻어먹고 그자 각 곳이라.[1] 아무거라도 닥치는대로 ᄒᆞ는 하르방(영감)이주. 생전 그자예도(礼度)는 안ᄒᆞ고 "느, 애야, 네야" 영 허주. 그 하르방이 도원리(桃源里)[2] 하르방인디, 대정서는 훈학(訓學)을 안ᄒᆞ여. 어디 저 제주시에 신촌(新村)[3] ᄆᆞᄐᆞᆫ디, 그 근방 가서 훈학을 하지. 신촌 가서 훈학을 ᄒᆞ는디 할망(祖母)이 죽었다고 부고가 갔단 말이여. 이제 오랐지. 오란 이제 두건 ᄒᆞ나 줜 썬 그자

"어이구 어이구" 그저 절만혜영 그자 하니 심드근하여 원.[4] 아방(부친)은 우리 아들이 정시(風水)질 ᄒᆞ니까니 아무디라도 좋은디 강 ᄆᆞ르칠테지.[5]

1) 그때 그때 처지에 따라 처신한다.
2) 지금 대정읍 신도리.
3) 현재 조천면 신촌리.
4) 일 차릴 격정을 안했다.
5) 葬地를 정할 테지.

아들은 그저 매날 그자 봐도 그저 심드근ᄒᆞ고(생각도 아니하고). 아무디도게[6] 어멍이

"이 애기야, 는(넌) 놈의 산은 보곡 이녁(자기) 산은 볼 줄 모르느냐. 거 할망도 어떵 묻을 생각 ᄒᆞ라게."

"놈 출령 멕이듯(남에게 잘 대접하듯) 출령 멕이심"〔조사자 : 웃음〕

아, 경ᄒᆞ난 똘보고

"돍이라도 ᄒᆞᆫ 마리 잡앙오라."

돍을 ᄒᆞᆫ 마리 잡으난 이제 솖안 그거호고 해내 백반(흰 쌀밥)ᄒᆞ고 술이 영 갖단 주난 먹고 해내 뒷날은

"게건(그러면) 산보래(보러) 오늘랑 갑주."

일로(이곳으로) 정(저렇게) 연날은(옛날은) 이 보행입주게.[7] 전부 제주시엘 가젠허믄(하면) 보행으로 늘 댕기니까. 이 산간지리(山間地理) 이일로만(이곳으로만) 통ᄒᆞ여 영. 저 원이라곤 ᄒᆞᆫ디는 제주시에도 그게 똑 중앙. 이 대정에서도 그 중앙. 게서 소위 원이라 ᄒᆞᆫ디가 있는디. 거기 인제 사름 멫 가구 살민(살면), 거기 가민(가면) 점심도 사먹고, 술장사 ᄒᆞ민 술 먹는 인 술도 ᄒᆞᆫ 잔 사먹고. 영 헨(이렇게 하여) 발도(걸음도) 쉬곡헨 가는디주게. 아, 그끗지 돌앙가가라. 아, 아방을 돌안 간. 가단 그딜(그곳까지) 못간디 간, 영(이렇게) 가단 밭더레(밭으로) 넘어간

"이디 어떵헤베꽈[8]"

핸 아방ᄀᆞ라. 아, 역시 아방 눈에 좋아배질 안ᄒᆞ던ᄀᆞ라.

"이보다 나슨딘 어시냐.[9]"

ᄒᆞ난 이젠 또 ᄂᆞ려오멍

"이딘 어떵헤베꽈."

하, 그디도 마땅치 안헨 일로 올라오민 저 동광(東光)지경에 원물오름이라곤 ᄒᆞᆫ 오름이 있는디, 그 오름이 두갠디, 영 마주 붙은 오름인디, 하난 원물오름이라 ᄒᆞ고 하난 강남오름이라 ᄒᆞᆫ 오름인디, 강남오름 그 굽에(기슭에)

---

6) 어머니가 일은 걱정한다는 뜻.
7) 걸어서 다녔읍니다.
8) 어떻게 생각합니까.
9) 더 좋은 곳 없느냐.

영핸 똑 혼몰리 닮은딘디 영핸 그디 간 산(서서)

"이딘 어떵해베꽈."

"하, 이디 좋아베다."

"게믄 이디 묻읍주 뭐."

그디해내 장술지냈지. 이녁냥으로 택일(択日) 다 ᄒᆞ고 ᄒᆞ니간 뭐. 장술 때웠슈(마쳤주). 이 어디나(어느곳에서나) 경(그렇게) 홀테주게. (하는 때였다) 장술 지낸 끝에 초제는 밭에서 지내는 거거든. 초제 딱 지내니 두건 버선상 앞더래(앞에) 턱 ᄒᆞ게 놔두고

"삼대 정승 날 디도 말다 해여. 당대에 문관 날 디도 말다 히여. ᄒᆞ니 난 땅팔아 먹으래 감 싱걸."

영해동(그렇게 해두고는) 그자 두건 버선 그자 상 앞더래 놔돈 거덜거덜 나가 영ᄒᆞ니(그렇게 하니) 아, 가는 걸 또 심을 수도 없고핸 내부런. (내버렸다) 그때 신촌(新村) 간 글을 ᄆᆞ르칠 땐디, 아마 이 채 대정(蔡大静) 이 신촌이랐던 ᄆᆞ양이라. 채 구석이가 그 글을 읽을 땐디. 두건 쓰고 졸락졸락(졸랑졸랑) 댕겸서.

"야. 느네 집이 영장나시냐."〔조사자 : 웃음〕

"예. 우리 할아버지 죽어쑤다."

"느네 집이 쇠영 신 집가.[11]"

"예. 밭가는 쇠 시수다.(있읍니다)"

"게건 느네 집 ᄆᆞ르치라."

"이리 옵서"

핸 간. 가는디, 가가나내(가 가니까)

"이거 우리 집이우다."

해돈 안터래(안으로) 그 아가 졸락졸락 몬저(먼저) 들어간,

"저 어떤 하르방 우리 집이 영장났잰 ᄒᆞ난 ᄎᆞ아오람쑤다."

영ᄒᆞ난(이렇게 말하니까)

"하하. 이거 어떤 어른이 오람꾸나."

이젠 들어간 후잰

---

10) 大静 현감으로 있었던 蔡氏.

11) 쇠 기르는 집이냐?

"집이 영장났잰 ᄒᆞ곤대(하길레) 이거 땅이나 ᄒᆞᆫ 자리 풀아보잰 완."

"하이고. 고맙습니다."

핸 나오란. 이제 촘 엎대어내(엎디어서) 이젠 ᄉᆞ랑간으로 청ᄒᆞ거든. 청핸 들어간. 아마 소문은 미리 잘 들었던ᄀᆞ라. 그때 세상은 이 소ᄀᆞ튼 것도 이녁 ᄌᆞ유(自由)로 잡아 먹었주게. 하인만거 소잡는 하인만 돌아다서(데려와서) ᄒᆞ민 그자 이녁(자기) 집안에서 탁 잡아.[12] 아, 있단[13] 밭갈 쇠 확 이꺼다내(이끌어다가) 저 아무 백정놈 강 오랜 ᄒᆞ랜. 오난 마당에서 탁 잡안 그놈 다 멕연. ᄒᆞᆫ 열흘 실끈 ᄆᆞᆯ려 멕여노니,[14] 이젠 ᄒᆞ룬(하루는) 날 보니,

"오늘낭 돗구(따뜻하고) 땅보래 나가보주."

아, 경허연(그렇게 하여서) 나간 그 지네(자기) 할망 묻젠 ᄒᆞ던 디강 ᄀᆞ르치멍(가르키면서)

"이디 허여봐. 꽤 길치않을거라.[15]"

영ᄒᆞ난

"아, 게믄(그러면) ᄒᆞ겠읍니다."

당대에 채 구석이가 그때 진ᄉᆞᆯ(進士) 벌었거든. 서울간 진ᄉᆞᆯ 벌엉 딴 오라보니 진ᄉᆞ는 아무 것도 먹을 거 없어. 저 성산(城山). 것ᄀᆞ라(그것보고) 거 뭐여 뭐. 그디 숭어통(양어장)이 있다고. 그 성산, 그 어디 들어가는 목아지에 숭어통 하나밖에 주는 게 없어. 숭어통에서 무신 큰 먹고 입을, 살게 뭐 이서. ᄒᆞ난 아이 이거 아이되겠다고. 또 올라간 진ᄉᆞ만은 못ᄒᆞ지만 대정원을 벌엉 오라야 ᄒᆞ강도 ᄒᆞ곡 ᄒᆞ끔 국물이 있다고 핸 따시(다시) 올라간 대정원을 벌언 오란, 대정 오란 오즉 촘 휘놀아서.[16]

(1981. 7. 16., 안덕면 덕수리, 송경은, 남·70.)

---

12) (먹었다)는 말이 생략됨.
13) 조금 있다가.
14) 강훈장을 먹임.
15) 좋을 것이다.
16) 소문나게 지냈다.

5. 이 좌 수

그 사람은 죽는 날ᄭᅡ지 알았다 하여. 건 어째서 그런고ᄒᆞ니 강정(江汀)이 현 경방이라곤 ᄒᆞᆫ 이가 있는디, 아들이 형제여. 제섯날 저녁 되선 "내가 오늘은 이승에 우리 아덜덜 신디(있는디) 가민 잘 얻어먹엉 올 거이다." 영핸 오랑보민(와보면) 제물행(하여) 올린 거는 어떵 추즙ᄒᆞ게 행 올리고 행제가 아장(앉아서) 들어 싸움만 ᄒᆞ여. 박박 싸움만. 아, 족은(작은) 아덜네(아들네) 집이나 강 보자곤 ᄒᆞ니. 그 하르방이, 이 현 경방이엔 ᄒᆞᆫ 이가 산 때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뭐냐하면 콩죽, 콩죽에 저 들웃마눙(들마늘), 그 달래라고 ᄒᆞᆫ거, 거 캐다놩(캐어다노아서) 썰어그내 죽, 콩죽을 쒕(쑤어서) ᄒᆞ민 그게 젤 좋아허는 하르방이여. 족은 아들네 집이나 강 보자곤핸 간보니, 조그만ᄒᆞᆫ 탁상새끼(밥상)에 콩죽을 ᄒᆞᆫ 사발 쒕 구들 구석에 떡 해 놓고 메느린 아이ᄃᆞᆯ안 눴거든. 아, 그 콩죽을 보니 하도 그저 그리와서 콩죽을 ᄒᆞᆫ 사발 먹엉 갔지. 먹엉 간 뒷해도 오란보니 역시 그거라. 들어 싸움만 ᄒᆞ곡 ᄒᆞ니 이 떡ᄀᆞᆮ은 거 ᄒᆞᆫ것엔 보니 머리털도 들고 ᄒᆞ면서 추접해서 거 ᄒᆞ니까니, 하도 분ᄒᆞ니깐 이젠 그 중문(中文)이 이 좌수한티 가서

"이 좌수 잡니까."

"거 누게여."

"저 강정이 현 경방이 올시다."

꿈에도 현 경방은 죽건디가 근 십년이 넘었는디, 영ᄒᆞ연. 아, 생각이 들어간다 말이여.

"게 어떠핸 완고."

"좌수님한티(에게) 좀 원정(願情)ᄒᆞᆯ 일이 이서 왔읍니다."

"아, 무신 원정을 나신디 들 일이 있는고."

"오늘 내 기일이올시다. ᄒᆞᆫ디 오란보니 ᄌᆞ식들이 형제가 들어 싸움만 ᄒᆞ고 음식이엔 ᄒᆞᆫ건 다 부정해서 나오니 원 신감(神感)도 안해서 감습니다. ᄒᆞ니 저 우리 ᄌᆞ식들보고 ᄒᆞ끔 책망해 주십서."

"아. 건 어렵지 아년(아니한) 일이다."

"전 행(行)이 바빠서 갑니다."

깨나고 보니 꿈이여. 내가 꿈이엔 ᄒᆞᆫ걸 봐본 예가 었는디(없는데) 이상

ᄒᆞ다핸. 이젠 글치후엔(그후엔) 좁이 안와. 이젠 아잔 담배만 일어난 아잔 푹삭푹삭 피우단 날이 동이 히부연 해가니, 이젠 족은 아들 사는 방에 가서,

"느 잠시냐."

"아니잠습니다. 어때서 아버지 오시고 영ᄒᆞ십디가."

"느 좀 ᄆᆞᆯ탕(말을 타서) 저 강정 현 경방 아들네 형제 강 이래 심어오라."

"예. 가겠읍니다."

핸 홀딱 일어난 간, ᄆᆞᆯ 매였단 곳에 강 안장 지완 돋거든. 돌려간 보니 느들 잔 일어나질 아녀서. 안에 간 ᄆᆞᆯ 매돈(둰) 들어간 기침해서 사람 신 집젠 ᄒᆞ니깐,[1]

"아. 예 이수다.(있읍니다.)"

일어난 눈 부부쓸며 나오란

"어서 오십서."

나 중문이서 오고랜 ᄒᆞ니, 하. 안터래 하도 올라옵샌 ᄒᆞ니, 가니 뭐 떡이영 술이영 하간 거(많은 거) 아딴 잘 대접ᄒᆞ거든. 대접받고해서 저 우리 아바지가 곧 형젤 오랜햄젠(오라고 한다) ᄒᆞ니, 아이고. 무신 큰 일이 터졌다고 해가지고, 무신 우리가 죽을 죄를 걸머져서 이거 큰일났다고. 게나 저나 아이 갈 수 없고 가야 되겠다고. 아시네(동생네) 집이 간 우리 이제 중문이 이 좌수 오랜핸. 우리 형젤 오랜햄젠 ᄒᆞ니깐 오랜 해돈(오라고 해두곤) 그 이 좌숫 아들은 ᄆᆞᆯ탄 다울려간, 이제 곧 옵니댄 영ᄒᆞ난,[2] 간 ᄒᆞ끔 시난(조금 지나니까) 춤 가서랜. 간 창문 앞으로 간 엎대언 꿀리거던. 이리 올라오랜.[3] 들어간 춤 창문 위에 올라아잤주. 올라아잔, 난간더래(으로) 올라아잔, 너이들 들어라 ᄒᆞ니, 간밤이 너의 부친 제서지 ᄒᆞ난 뭐 거 속일 수 이서. 구신ᄀᆞᄍᆡ(귀신같이) 말해 가니깐,

"예 아버지 제섭니다."

"너이들 왜 싸웠느냐. 너이들 두 해나 들어 싸움박질핸.[4]"

---

1) 집에 사람이 있느냐 하니깐.
2) 그 부친에게 그렇게 보고함.
3) 이 좌수가 현 경방 아들들에게.
4) 했지 않느냐.

"뭐 하찮은 것에 우리 아시가(동생이) 대답해가곤대(하길래) 그자 서로 존거니(말하거니) 들거니(다투거니) ᄒᆞ난 그자 이처럼 경(그렇게) 되어수다."

"너 아버지가 두 해나 오란 봐도 느이 음식도 추접ᄒᆞ게 ᄒᆞ고(깨끗지 못하게 하고) 느이 싸움만 ᄒᆞ거드니깐, 신감도 안핸 갔다. ᄒᆞ니깐, 후년(뒷해) 느이 아버지가 또 올거라. 오라서 그따운(따윗) 행서ᄒᆞ면, 또 나신디 오랑 원정을 들거라. ᄒᆞ면, 느이들 그때는 심어다놔서 이젠 벌을 줄 게고, 대정골로 가서 말해서, 다 하배래 누리쳐서[5] 느이들 뭐 목조를 누려치든 못해서 저 ᄒᆞ겠다."

이거 야단난,

"에그, 그자 후년은 맹심핸 ᄒᆞ겠읍니다."

뒷핸 돌아오니 춤 ᄒᆞᆫ 서넉달 앞사(앞서) 맹심해연 그자 제숙도 잘 해연 봉(奉)ᄒᆞ고, 춤 각시들(부인들) ᄆᆞ라(에게) 영 ᄆᆞ란,(말해서) 음식도 맹심해영 깨끗이 잘 ᄒᆞ랜 ᄒᆞ난, 춤 음식도 잘 ᄒᆞ고해내. 거 제섯날은 돌아오니 형제가 아처기부터(아침부터) 간 ᄆᆞ만이 아잤단, 또 저 진술이영 깨끗이 잘 ᄒᆞ고 ᄆᆞ만이 아잤지. 아버진 후엔 오란,[6] 누게(누구도) 쌉도 안ᄒᆞ고 춤 잘 햄거든(하고 있거든). 아, 음식도 잘 받고 핸 음식도 다 들러먹고. 이젠 갈땐 또 현 경방의 중문이 가서,

"좌수님 덕택에 금년은 와서 그자 춤 우리 아이네 ᄒᆞᆫ 음식도 잘 먹고핸 감습니다. ᄒᆞ니간 좌수님 덕택에 그자 ᄌᆞ식들 훈계 잘 해줘서 감시합니다."

영ᄒᆞ난,(이렇게 하니까)

"저 사름이 죽건디가 십여년이 넘었는디, 에. 저승은 가니 뭐슬 ᄒᆞ는고."

"저가 저 호적을 좀 관리ᄒᆞ고 있읍니다."

"그래여. 그러면 난 언제쯤 죽어졈직 ᄒᆞᆫ고."

"좌수님 죽게되민(되면) 저가 위선 오라서 그자 말씀드리고 그자 저가 오랑 모사가겠읍니다."

"내가 정멩(定命)이 멧이나 되서 죽어졈직 ᄒᆞᆫ고."

"좌수님 이제 살았자 ᄒᆞᆫ 팔구년 더 없읍니다. ᄒᆞ니 저 그땐 되민 저가 이

5) 큰 벌을 내리도록 해서.

6) 현 경방이 와 보니.

리 와서 여쭈고 그자 저가 오라서 돌아갑주. (모시고 가겠읍니다.)"

"그리여 내 멧 술(몇 살) 나민 죽어질로구나."

"예. 호적은 바꾸정했자(바꾸려 해야) 더 있질 못ᄒᆞ게 됐읍니다."

"그 연령에 에 영ᄒᆞᆫ 어른이 다 돌아가서 좌수님뿐 이제 이서노니 호적을 바꿀 수도 없게 됩니다. 그저 그땐 좌수 돌아가야겠읍니다."

영ᄒᆞ니 그 이 좌수가 돌아갈 때에, ᄒᆞᆫ번이 춤 치고 박곡 둘이 있는디, 열리ᄒᆞ곡 거는 창천인가 어디ᄒᆞ곡 둘밖이 없는디. 창천이 아무 어른ᄆᆞ라 열리 아무 어른 강 청해오라해서

"나는 아무날쯤 죽어질거니 그자 오랑 그자 술이나 ᄒᆞᆫ잔 ᄂᆞ누와 먹곡 그자 우리 정든 말이나 똑 줏어 ᄀᆞᆯ앙(줏어서 말해야) 어디 난 다시 못 올거라."

건 무신 말이냐고. 뭐 그런 술수가 있나. 장래 보면 알 거 아니냐고. 아춤 그 멧 질 되가니 현 경방이 와서,

"저 아무날은 저 돌아갈 날입니다. ᄒᆞ니 그때랑 그자 ᄆᆞ치 갈데로 모십서. ᄒᆞ민 게믄 나 그날은 오겠읍니다."

꿈엣김에 아 그런가 핸. 아 그 날은 뭐 어디 아프카. 아프도 아녔는데 아들들이영 다 불러서

"내 아무날은 죽을 날이다. ᄒᆞ니까니 너이들 어디 가지말라."

"우리 아버진 아프도 안현 어른이 뭐 저 어떠난 저런 말을 햄싱고."

그날 돌아오니 모친이 살아이서. 모친이 살아있으니 이제 물 데우랜 핸 발이영 모욕ᄒᆞ고 이제 새옷 가져들이랜 핸, 새옷 다 입고 핸, 이젠 어머님신디(께) 강 뵈이겠다고 간

"어머니를 이제 내가 감장(장사)해 도서(해 두어야) 죽는 게 원칙인디, ᄒᆞ쎌 수명이 ᄒᆞᆫ이 있는 거라서, 저 이제 오늘 죽게됐읍니다. ᄒᆞ니, 저 어머님 인서드립니다."

핸 구들에 간 앉거든. 아즈니 ᄒᆞ끔(조금) 있단

"아들 거 있느냐."

"예. 있읍니다."

"날 눅지라(눕히라)"

핸(해서는) 거 매기여(끝이여.) 그래서 죽는 날ᄁᆞ지 알았다 영 해여.(그렇게 하여.)

(1981. 7. 16., 안덕면 덕수리, 송경은, 남·70.)

6. 산방산에 묘 안쓰는 이야기

저 산 우이(위에) 올라가 보민 이제 팬팬혼 디(평평한 곳)가 있어. 팬팬혼 디가 이시니, 거기 산 뭍이민(산 쓰면) 틀림없이 장수가 난다 말이여. 게민 여기 이제 산을 뭍이면 비가 아니오라. 일년되도 비 안와. 연날에 우리는 이제 그 어렸을 적에 비 안와가민 "하이고, 산방에 산 써시냐(썼느냐) 산방에 산 써시냐." 그래. 이제 부락 사람들이 총동원을 해가지고, 한번은 이 산방에 올라갔어. 올라간 보니 이제 그 원형이장 산 자리는 이만인디,[1] 이제 어디들 궁기뚤으냐하니[2] 이만으로〔손짓〕 가서 이제 굴ᄆᆞ치 막 파들었어. 거기를 이제 굴ᄆᆞ치 파들어니 거기가 이제 산을 썼다 말이여. 이제 신체를 거기 놨다 말이여. 경핸(그렇게 하여서는) 그걸 촞아내영 ᄒᆞ난 그리 뭐 석 덜, 열 흘, 백 일인가.[3] 어느 때 된건지. 이제 그 저 신체에다가 이 져드랭이에 놀갤 돋았다고. 묻어놔 둔 신체에. 이제 그 놀갤 돋아서 이제 그 시체가 하늘 옥황더레 올를랴고. 그렇게 올르며는 이제 그 ᄌᆞ순(자손)이 어떻게 이제 뭐 장수가 될란가, 돼. 그래서 항상 여기엔 산 못쓰게 해여. 이제 금지라(금장지라) 게난(그러니까) 이디 아주 멩산(명산)이라서 이제 그기 그 신체에다가 놀개를 돋았을 때 간 쪽아내야 되거든. 그걸 가만이 놔둬시면 이제 그 시체가 올라 가서 어떵을 ᄒᆞ던가, 그 ᄌᆞ순이 어떻다 혼널 알지마는, 촞아냉(찾아내어서) 이제 끌어냈거든. 끌어내니, 이제 하이튼 그 산방에 올라간 그런 걸 조사행 내려 오라가민 비가 때려오라. 이제 그러민 이제 부락에서 비우제[4]라고 〈비오라줍서〉해서 이제 이 산에서, 쌀을 이제 춤 호당 혼 홉씩을 모여가지고 여기 가서 이제 비우제라고, 비우젤 지났어. 그 오래지 아년(아니한) 일이라.

(1981. 7. 16., 안덕면 덕수리, 윤추월, 여 · 66.)

---

1) 거리를 짐작하도록〈이만큼 인데〉.
2) 어디로 구멍을 뚫었느냐 하면.
3) 묻은 지가 그렇게 됐다는 뜻.
4) 祈雨祭.

7. 괴상한 세 동무

엿날에 세 동무가 있어. 혼 사름은 중승(짐승) 말을 잘 ᄒᆞ고, 〔〈조사자 :쥴국?〉 옆에서 듣던 부인이 중국이 아니고 짐승이라 하였다.〕 혼 사람은 사름을 관상을 잘 허여, 또 혼 사름은 음식맛을 잘 알아. ᄒᆞ른(하루는) 이제 먼 길을 걷는디, 저 연못디(연못이 있는데) 영 보니까(이렇게 보니까) 까마귀가 앉아 '깡굴락 깡굴락' ᄒᆞ거든. 그러니까 그 중승말 잘 번역ᄒᆞ는 사름이,

"햐 여기 주검이 있다."〔조사자 : 주검이?〕

"아 저, 가마귀가 저리 허니까, 우리 저디 강(가서) 봐서, 소나 말이나 죽었거든, 우리 배도 고프고 그거 잡아 가지고 멩게낭(청미래덩굴) 불에 구어서 먹자."

그래서 가 보니까 처녀가 헤뜩 자빠젼 죽었거든. 아 그러니깐 끔짝 놀래 가지고 그 세 동무는 뒤터레(뒤으로) 싹 물러살 포름엔(그 때에) 어떤 무지락[1] 총각놈이 오란 탁 ᄒᆞ게 잡으면서,

"너희덜 이 색실 죽이지 아이 했느냐?"

아 그렇게 하니까

"하이고 우린 안 죽였다."

"왜 안 죽였느냐?"

그래서 그 사름이 이젠 지서에[2] 보골 해 부렸거든. 고발을 해 부니까,지서에서는 그 세 동무를 심어단 탁 가두와 놓고, 매일 때리면서 막 문초를 받는거라.

"너 이놈의 새끼덜, 꼭 오널은(오늘은) 꼭 바른 말을 해라. 바른 말을 해라."

경(그렇게) 문초를 ᄒᆞ루 혼 번씩을 매일 허는디, ᄒᆞ루는 이제 그 재판장이, 만날 허당 봐도(해 봐도) 그 말이라.

"하이고 전 아니했읍니다. 죽어도 우리는 아니했읍니다."

그리 항상 허거든. 재판장이 재판을 허여 볼 수가 없어.

---

1) 험상궂은.

2) 관가를 요즈음 경찰관서로 바꾸어 말하는 것임.

"하 그러면 이제 요 일을 어떵 허느냐(어떻게 하느냐)?"

이제 집에는 재판장 각시가 밥상을 해가지고 떡 들러다 노면서,

"그쟈 이젠 자십서"

허여도,

"하 이제 내가 이 재판을 허지 못허민 내가 밥통을 놓게 되는데, 죽게 되는디, 내 밥을 먹을 수가 웃다."

그러니까 이제 각시가 ᄒᆞ는 말이

"어떠ᄒᆞᆫ 일로 그걸 안 먹읍니까?"

"하 요런 일을 해결 못허면 내가 헐 수가 엇다."

겨니까(그러니까) 이제 각시가 ᄒᆞ는 말이

"걱정말고 자십서. 걱정말고 자시멍 말만 들읍서."

"먼(무슨) 말이냐?"

"그렇게 짐승말을 번역을 잘 헌다 ᄒᆞ니, 제비새 새끼를 ᄒᆞ나 주머니에 딱 집어 넣고 거기 강 그 사름덜을 문초를 햄시면은(하고 있으면) 그 놈의제비 새 새끼가 물론 가서 짹짹 홀 겁니다. 짹짹 ᄒᆞ영 요것이 알건 이 사름이 죄인이 아니로 압서."

거, 골안 보니(말을 해 보니) 맞거든. 그래서 그 재판장은 각시말을 들어 가지고 그 제비새 새끼를 주머니에 턱 놓고 큰 옷 입으니까, 주머니에 싹 놓고 간 방에 앉아 가지고 이 놈덜을 죄다 잡아들여라 허연, 잡아들연. 오라서[4]

"이제 너희덜이 오늘 꼭 바른 말을 아이허면 너희덜이 꼭 죽을 터이니 그 줄(그런 줄) 알아라. 너희덜 꼭 바른 말 허여라."

"아이고, 우리덜은 죽어도 이 말입니다. 죽어도 이 말입니다."

새는 창문에다가 ᄌᆞ족ᄌᆞ족[5] 하면서 머 왔다갔다 왔다갔다 막 파닥닥 파닥닥 허여.

"하 이제 너는 즘승말을 번역을 잘 헌다 ᄒᆞ니 너 저 새는 어떻게 해서 저리 허느냐."

---

3) 재판장이 걱정이 태산같았다.

4) 죄인들이 오니까.

5) 제비소리.

"나에게는 아무 죄도 없읍니다. 놔줍서. 놔줍서. 놔줍서. 햄습니다."

"하 너희덜 이젠 많이 고생을 했다."

그래서 이젠 그 죄인들을 놓게 됐는디, 이젠 그 각시보고

"이 사름덜 많이 고생했으니 오늘랑 잘 대우를 해서, 잘 출령 멕이고, 석방을 시켜라."

그래서 이젠 그 음식을 잘 출려 놓고, 밥상을 턱 허게 들러가니까, 그 재판장은 ᄀᆞ만히 그 굴묵에 숨어두서 봤거든.

'요것들이 음식을 먹으면서 먼(무슨) 얘기를 허는고?'

히여서 이젠 가만히 숨어두서 보니깐 세 동무가 말 ᄒᆞ는디,

"나는 즁승말 번역을 잘 해서 이 일을 해결을 되였는데 너. 사름관상 잘 허는 친구는 어떻더냐?"

"거 재판장, 재판은 잘 허더라마는 그거 중놈의 새끼라라."

또로 이제, 음식맛을 잘 아는 놈은,

"너는 이제 음식맛을 잘 안다 허니 이건 탁주, 이제 집이서 만들아 논 술이거든. 너 이 술은 어떤 술이냐?"

아 구룩구룩ᄒᆞ게[6] 먹으면서 입을 축축 다시면서 ᄒᆞ는 말이

"아 요 술은 맛은 좋다마는, 팽토밧디 대죽술이다."

팽토밧이옌 ᄒᆞᆫ 건, 사름 죽어서 묻었다가 일련(파헤쳐서) 나가분 디. 천리터.(이장한 장소) 천리터에 춤 익여가지고(밭을 만들어서) 대죽을 갈았다가 멘든 대죽술(수수술)이라 말이여.

"하 이거 음식맛은 좋다마는 팽토밧디 대죽술이라."

아 경허여.(그렇게 말해) 경허니 그 재판장은 가만히 이젠 굴묵에 꼽아두서 보니까, 하 자기가 중놈의 새낀 줄 몰랐주게. 게니까 이젠 그 날은 이제 어멍신디(어머니에게) 갔어.[7]

"어머님 꼭 바른 말을 헙서. 나가 어떻게 해서 이제 낳게 됐수가?"

아 그것이 질문을 헷다 말이여.

"그런 것이 아니고 하도 ᄌᆞ식이 귀해가지고 ᄌᆞ식이 없으니까 높은 산에 가서 아주 시님(스님) 빌어서,

---

6) 술 들이키는 소리를 본뜬 말.

7) 재판장이.

"춤 생불 환승을 시겨줍서."

허여서, 기돌 드려서 너를 이제 낫다. 경허니까 이제 중놈의 새끼다 요거고, 이제 각시보고

"너 이제 술은 어떤 술이냐?"

허니까, 그것이 이제 천리터를 치와가지고 다른 곡식 홈 보단도 대죽을 갈았다가 그 대죽을 허여 술을 헌 겁니다."

그러니 세 동무가 다 잘 아는 사름이라. 겨니(그러니) 이제 돈을 얼마 주면서

"아 너희덜 다시 이런 일을 알질 말라.[8] 알다가(알렸다가) 한 사람 이제 멧(몇) 사름을 다 죽일테니 다시 알지 말라."

고 허면서 돈을 멧 백만원을 주더라 허여. 〔조사자 : 그냥 돈 주엉 부자로 산 거꽈?〕 경 혼 거주, 옛날에사 무신, 경 헤 질 때쥬. 〔조사자 : 이건 언제 들은 겁니까?〕 언제? 오랜 거쥬. 어린 때, 아주 어린 때 할아버지안티 들은 거쥬. 〔다른여인 : 지금 사름덜은 좀 히영 이거 모르매.〕

(1981. 7. 16., 안덕면 덕수리, 윤추월, 여 · 66.)

8. 피로 장가든 정승아들

정시칩(집)인디.[1] 뒷칩이는 이 정시가 살고 앞칩인 김 정시가 살았어. 김정시네 집은 아주 가난허고 아주 살 수가 없는 빈곤헌 집이라. 겨고(그리고) 이제 이 정승네 집이는 아주 부자칩인디. 부자칩이는 딸이 있고, 간곤헌 집이는 아덜(아들)이 있어. 그 김 정시네 집은 아주 간곤해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아주 그 이 정시네 집이서 그딜 아주 깔방(깔봐서) 나무래가지고(없신여겨) 말도 못헐 정도라. 〔조사자 : 아, 가난허멘 허연마씀.〕 응 그래서 이젠 그 짐 정시 아덜이 커가니까 아주 새끼가 괴상허게 생겼어. 아니 그 짐 정시네 집이 복숭개(복숭아) 나무가 있는디, 그 복숭개가 읗며는 나무래가지고[2] 그 이 정시네 집이서 다 타먹어 불거든. 그러니 이젠 그 짐 정시

8) 남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말라.

1) 정승했던 사람네 집안.

2) 이 정승네가 김 정승네를 업신여겨서.

아덜이 ᄒᆞ루는 이제 그 이 정시네 집이 촞앙가서(찾아가서) 창고망으로다가(창문구멍으로다가) 손을 이렇게 탁 찔러가지고,

"이 정승님 있읍니까. 이것이 누구 손가락입니까?"

"하 이놈의 새끼야. 그건 네 손가락이지 누구 손가락이냐?"

"그러면 왜 우리 복숭개 낭은 우리 집이 있는디, 거 다타 먹어비염쏘."
〔청중 : 웃음〕

ᄒᆞᆫ 번은 거 싸움을 했어. 싸움을 허연.[3] 그럭저럭 살아가니, 한 십팔세 십구세가 나 가니까, 아 요 새끼가 이젠 아버지보고 ᄒᆞ는 말이,

"아버지."

"왜."

"나 이정시네 집이 장겔 들쿠다."

"하이쿠 나 이놈의 새끼 너 그 집이 어떻게 장겔 들 말이냐. 너 그런 말 말아라."

"아닙니다. 아버님 ᄒᆞᆫ 번만 그디 가서 말 ᄒᆞᆫ 번만 부찝서.[4]"

하도 아버진 강 말만 ᄒᆞᆫ 번 부찝서 부찝서 ᄒᆞ니,

"아이구 말 ᄒᆞᆫ 번 부쪘당 이제 앞 뒷 집에 살지도 못허게 군다."

ᄒᆞ니

"하이고 못살게 해도 좋쑤다. 아버님 ᄒᆞᆫ 번 강 말만 부찝서(말을 해 주십시요). 말만."

하도 허니까 이젠 아덜 말 들어가지고, ᄒᆞ루는 그 이제 이 정시네 집이 간 기밋기밋(기웃기웃) 이제 문뚱엘 가도 들어오랭(들어오라는) 소릴 안 허여. 나무래가지고(무시하여서). 그래서 이젠 문뚱엘 간 기밋기밋 허여가니까 그 이 정시 ᄒᆞ는 말이,

"어째서 그렇게 문뚱에(문앞에) 오라서 서슬거리느냐(서성거리느냐)."

그러니 이제 그 말 끝에,

"하이고, 나 좀 사돈이나 허여보젠 오랐수다(왔읍니다)."

요런단 말이여. 〔청중 : 웃음〕

"하이고 이 새끼 이거 춤 세상 살암시난(살고 있으니) 벨 개소릴 다 친

3) 그렇게 이정승네 집에 가서 따졌다는 뜻.

4) 청혼을 한 번 해 주십시요.

다.[5] "

고. 그래서 뒷꾹디(뒤통수)를 어릅쓸면서(어루쓸면서) 가서.

"네 ᄋᆞ놈의 새끼야, 너 놈의 새끼 ᄯᅡ문에 욕만 쳐(마구) 들었다."

"하이고 좋습니다. 아버님 걱정마십서. 좋습니다."

그래서 ᄋᆞ놈의 새끼가 어떤 연굴(궁리를) 허냐 허면, 옛날에는 이제 ᄃᆞ람쥐라고 해서 ᄃᆞ람쥐 새끼가 어디 ᄃᆞ라져 있느냐 ᄒᆞ면 이 굴 속으배(속에) 다가 돌아져(매달려져) 있어. 어디 싹 산 중에 ᄆᆞ뜬디 힘들이지 않고 올라가서 보민 영 파고 들어간 굴 속으배 강 거꾸로 돌아진다 허여이. [조사자 : 아, 다람쥐가?]

ᄋᆞ 다람쥐가. 그래서 이제 그 다람쥐새끼를, 이제 살살 댕기멍[6] ᄋᆞ 놈의 새끼가 ᄃᆞ람쥐 새끼를 ᄒᆞ나 봉가 가지고(잡아 가지고) ᄒᆞ루는 이제 방울을 찌그만 ᄒᆞ게 맨들아 가지고 거기에 불을 싸고, ᄒᆞ루 밤은 이제 이 정시네 집이, 밤은 고요하고 그냥 뒨 잔 날에. 열 두시 반 무렵에는 그 집이 솔허게(살그머니) 기여가서 가만히 업더졌거든. 가만이 업더져두서 이 새끼가 허는 말이 뭐라 ᄒᆞ느냐 허면,

"너 이 정승 있느냐?" [청중, 조사자 : 웃음]

귀신이나 '이 정승 있느냐?' 허주. 사름은 '이정승 있느냐?' 헐 사름이 멋어. 그 사름[7] 아주 부자고, 아주 춤 난 사름이라서.

하 이젠 ᄒᆞᆫ 번 ᄆᆞ르니 이거 밤중이니까, 이거 대답을 말져 헤연(말자고 하여서). 두 번을 이제.

"너 이 정승 있느냐?"

ᄒᆞ니까 이제 거 활딱 ᄒᆞ게 나와가지고,

"귀신입니까? 생인입니까?"

"내가 귀신이지 이 밤이 생인이 댕일(다닐) 필요가 있느냐. 너의 돌을 앞 집의 김 정시네 집이 아니 풀아(시집보내어), 아니 결혼을 시긴다면 아무날 아무 시는 정명이 막이다.(목숨이 끝이다.)"

아무 날 아무 시는 죽나 그랬거든. [청중 : 웃음] 그래서 이제 ᄃᆞ람쥐 새끼

5) 어처구니 없다는 말.
6) 김 정승 아들이.
7) 이 정승.

를 요렇게 허니까, 하늘 우러레 머 불을 이만케 돌고 환허게 이제, 그 ᄃᆞ람쥐가 하늘로 올라가 불거든. 〔조사자, 청중 : 웃음〕

하이고, 이것이 하늘 귀신이라고. 〔조사자 : 예?〕

하이고, 이제 그 이 정시는 이젠 집이 가서 방 안에 누니깐(누우니까는) 눈에 좀이 아이 오라.

'하이고 ᄋᆞᆫ 일을 어쩌코. 아, 아무 날 아무 시는 정명이 멕이다(마지막이다) 허여시니, 이제 단 뚤애기(단 하나의 딸) 죽는 거 보다는 요거 사는 게 좋지 아녀냐?'

그런 생각이 났거든. 그래서 ᄒᆞ루는, 그 날짜는 가까오라 가니까, 이제 그 이 정시가 짐 정시네 집이 찾아가서

'하 놀래 오라수덴(왔읍니다고)'

ᄒᆞ난 그 김 정시 ᄒᆞ는 말이

"하이고, 거 어떠난 오라집데가, 어떠난 오라집데가"

허는 거라. 하 겨니,

"거 우리 ᄀᆞ뜬 말[8] 허여 붑주.[9] 말 허단 말 허여 붑주."

허연. 〔청중 : 웃음〕

경허연, 이 사름은 이제 아무것도 웃은 사람이라, ᄒᆞ켄 헤 가니까,

"하이고, 말은 고마우나 우리 홀 수가 웃우다."

"하이고 그쟈 아무것도 허지말고 우리가 다 출릴테니(준비할테니) 그쟈 그 날 신랑만 허영 그냥 새각시만(신부만) ᄃᆞ라갑서."

〔청중 : 큰 웃음〕 경ᄒᆞ난 이제 그 놈의 새끼가 꾀로 그런 이제 부재칩이 처가를 들어가지고, 그 집이 정 덕거놔서 이제 츠지를 했다.[10] 〔조사자:아!〕 게니(그러니) 사름이 머리가 조면은(좋으면) 다 요령껏 그쟈 경헷다 ᄒᆞ는 엿말이라.

(1981. 7. 16., 안덕면 덕수리, 윤추월. 66.)

---

8) 전에 이야기 하던 거.

9) 말대로 합시다.

10) 모든 재산을 차지했다.

9. 신기한 호랑이 눈썹

엿날에 이 사름도 애기덜은 많고 아주 간곤해가지고 푸나무 장시(장사)를 항상 허면서 살아봐도 원 놈광 ᄆᆞ찌(남처럼) 살들 못허여. ᄒᆞ루는 이제 남ᄌᆞ가(남편이) 세상에 이건 이렇게 허다가도 이렇게 놈광 ᄆᆞ찌 살들 못허니까 호랑이 입에나 가서 죽어불자. 그런 생각을 가져서 이제 산중으로 이제 ᄒᆞ룬[1] 이제 ᄎᆞᆺ아갔거든. ᄎᆞᆺ아가다 보니 호랭이가 춤 아니찬여서[2] 양 쪽에 발에 초롱불 닮은 눈이 훤 ᄒᆞ게 돌고[3] 큰 골러레[4] 가다보니 호랭이가 ᄂᆞ려오람서(내려오고 있어). 내려오니깐

"하, 이제 저 호랑이네 밥이 되여야겠다."

해서 갔는디, 호랑이가 이렇게 히뜩ᄒᆞ게(힐끗하게) 눈으로 보이면서(쳐다보며) 그쟈 싹 지나가. 그러니, 그 사름이 뒤돌아 사서 이렇게 보면서,[5]

"호랑이님 저를 잡아먹어 주십시요. 저는 호랑이 밥이 될랴고로 왔읍니다."

그러니까, 호랑이가 ᄒᆞ는 말이,

"ᄒᆞ쏠ᄒᆞ민(조금하면) 이제 돈만 있으면 범의 눈썹이라도 산다."

범의 눈썹이 이제 ᄌᆞ기(자기) 눈썹을 북ᄒᆞ게 하나 뽑안 주면서,

"당신은 이 눈썹을 갖고 서월(서울) 어느 역에 ᄎᆞᆺ앙 가며는(찾아가면) 픗죽 장사허는 여ᄌᆞ를 ᄎᆞᆺ앙 가면 당신 살 도리가 납니다."

이젠 그 놈의 눈썹을 ᄋᆞ렇게 눈에 대영 보면은, 사름 많헌디(많은 곳) 가면 물, 양, ᄃᆞ야지(돼지) 쥐, 뭐 고냉이(고양이), 이거 있곡. 틈틈히 사름이 하나썩 있거든. 그런디 ᄋᆞ 눈썹은 대영 보면 범해치(범띠)는 범으로 보이고, 소해치는 소로 보이고, 사름해치는 사름으로 보이고, 이제 그런 거거든. ᄌᆞ기네 집더레(집으로) 이제 영 눈을 대여서 보니까, ᄌᆞ기네 각시는 돍해치라. 돍해친디 ᄌᆞ기 집이서 그래도 '각각각각' 저래도 '각각각각'그램서. [청중 : 웃음]

1) 어떤 날에.
2) 정말로.
3) 불같이 환한 눈을 하고.
4) 큰 골짜기로.
5) 호랑이를 보면서.

이젠 서월 어느 역에 가서 영 대여 보니, 머 도야지, 톩, 쇠, 물, 머 각국 즁싱인디,[6] 사름이 이제 하꼬방 집이다가 풋죽 장사ᄒᆞ는 아줌마가 하나 있거든. 거기를 찾아가서 이제,

"실례합니다. 여기 가서, 나 여기서 신바람이나(심부름이나) 조끔 허건 푼죽이나 한 사발 얻어 먹을 수가 있읍니까."

"아 그렇습니다."

그럽시다고. 아 인젠 거기서 심바람을 하면서, 장사를 허여 가니까, 이제 머 그 사름 가난[7] 항상 사름이 만원이 돼서 이제 손님이 부펴가지고,[8] 이제 그 여자가 그 남ᄌᆞ를 내칠 수가 없어.(내보낼 수가 없어)

"하이고 우리 집이서 언제나 살면서 이제 심바람을 해 줍서."

"하 그러면 그럽시다."

그것은 이제 남편네도 엇고 애기도 엇고, 이제 홀어멍이거든. 이 사름광(이 사람하고) 살면서 항상 풋죽 장사를 헤간. 이젠 그 사름 가니까 어예(갑자기) 부자가 돼서. 아주 그 하꼬방집도 없이하고, 아주 좋게 집을 짓고, 아주 춤 2～3년 내로 춤 종을 턱허게 ᄃᆞ리고 가만이 앉아서 살게 뒈연. 살게 뒈니까 그 사름이 ᄒᆞ루는 생각을 난 이제, ᄌᆞ기가 이제 그렇게 잘 살아지니까,

"우리집의 아내와 우리 아기덜은 다 굶어서 죽었다."

그런 생각이 나. 밥을 이제 각시가 해단 턱 ᄒᆞ게 종이 해단 들여 놔도 안 먹어. 안 먹으니까,

"어째서 밥을 안 자셤습니까?(잡수십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이제 집에서 살 수가 없어가지고 호랑이 밥이 될 량으로 호랑이신디 찾아갔는데 호랑이가 범의 눈썹을 하나 뽑아 주면서, 이제 서월 어느 역에 가서 풋죽 장시를 찾아가면은 살 도리가 나리라 해서, 나는 이제 찾아오란 이렇게 행복허게 잘 사는디, 우리 집의 아내와 ᄌᆞ식덜은 다 굶어 죽어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 풋죽 장시 허멍(하면서) 만난 이제 춤 각시는 애기가 웃고

6) 많은 짐승이.
7) 일하기 시작하니까.
8) 붐벼가지고.

(없고) 이런 말을 더 듣구져(듣고자) 허거든. 허 이제 아이구 미리 말허여 시민 허지 지금낑지 어떠난(어찌하여) 그런 말을 아니 해수겐(하였읍니까) 허멍, 돈을 이제 얼마 허영(마련하여) 드리면서,

"훈저 빨리 가서 죽었거든 귀신이라도 데리고 오고, 살았거든 생원으로라도 다 데리고 오십시요."

허여네 이젠 오란 보니[9] 죽진 아니 허여서, 다 이젠 죽진 아니허여 살아시니까, 이젠 각시도 데리고, 애기도 데리고 다 가서 서월 어느 역에 간 경 잘 살더라 허여.

(1981. 7. 16., 안덕면 덕수리, 윤추월, 여·66.)

10. 악한 며느리

엿날에 시어머니가 불교를 열심히 믿었어. 믿는디, 메누리허고 살면서 메누리가 시어머닌 눈이 어두워서 앞이 먼 할머니라. 눈이 어두워 그러니까 이제 며누리가 애기를 나니까, 이제 애기를 흥글면서[1] '나미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항상 허거든. 그렇게 허다가 그 할머니가 이제 그 '나무아미타불' 헌 얘기를 잊어버렸어.[2] 잊어버리니까 이제 그 며느리보고,

"야. 아가야 아까 나 뭔얘기 해냐?"

뒤칩의(뒷집의) 짐서방이라 헌 사름은 홀아방이라. (홀애비라) 홀아방인디 시어머니가 나미아미타불 나미아미타불 허니까, 메누리가 하두 미워서,

"뒤칩이 김서방 뒤칩이 김서방 헙디다."

메누리가 그렇게 했어.〔청중 : 웃음〕 그래서 이젠 그 할머니는 이제,

"뒤칩이 김서방 뒤칩이 김서방"

허멍(하면서) 항상 애기를 흥글었어. 애기를 항상 흥그는디, 그렇게 흔들면서 그 애기는 커서 이제 다 자라버리고 그 할마니가 항상 아지민(앉으면) '뒤칩이 김서방 뒤칩이 김서방' 허여. 그러니 이제 아덜이(아들이) 하루는 하도 듣다가,

---

9) 남편이 옛집에.

1) 시어머니가 아기구덕을 흔들면서.

2) 〈나무아미타불〉을 잊어버렸다.

"하이고, 어머니가 이제 얼마나 슬퍼하고 얼마해야[3] 이렇듯 뒤칩이 짐서방을 찾는고?"

헤연. 뒤칩이 짐서방네 집이 찾아갔어. 아뎔이 찾아가서,

"아이고, 저 우리집이 와서, 밤이랑(밤에랑) 틈틈이 우리 어머니허고 오랑(와서) 벗이나 좀 헤 주십서."

그러니까 이제 뒤칩이 김서방 허는 말이,

"거 뭐 자네 그런 얘길 허는고?"

"아니우다. 어머니가 소원이 이리 되니까, 이제 조끔도 이제 험을 말고 어머니허고 밤이랑(밤에랑) 오랑 벗이나 좀 헤 주십서."

그랬어. 그러니 그 짐서방이 하루는 이제 그 할머니신디 찾아 오랐어. 밤에 찾아오라가지고 문을 요렇게 톡톡 두드리니까,

"거 누구냐?"

"나 뒤칩이 짐서방입니다."

"왜 이 야밤이 왔느냐?"

"하, 이 집 주재분이(아들이) 이제 어머니허고 가서 이제 좀 벗이나 허여 줍서 허연 오라수다."

"내 지금꺼지 늙도록 살아도 벗을 안 해도 내 지금껏지 살았다. 그런 소리를 하지 말라. 곧 가라."

고 내여쫓았어.(내쫓았어)

그래서 나오라분 다음에도 매일 '뒤칩이 짐서방 뒤칩이 짐서방' 헌단 말이여. 그래서 이제 그 할머니가 올래에다가 저 이렇게(시늉하면서) 이제 물뱅애(연자마) 팡돌이[4] 있어. 팡돌 위에 하루는 이제 가 앉아서 '뒤칩이 짐서방 뒤칩이 짐서방' 막 그리 허더니마는 이제 하늘로 시커멍헌(시꺼먼) 구름이 이제 뭉게뭉게 올라 오더니마는, 할머닐 오라서 확 훈둘러서(싸안아서) 이젠 하늘 옥황더레 올라가. 오꼿 올라간.[5] 이제는 그 메누리는 그럭저럭 살다가 나이도 만허고(많고) 주기도 죽을 때가 뒈니까,

"하이고 나도 뒤칩이 짐서방을 불러서 어머니 간 길을 가야겠다."

---

3) 〈얼마나 외롭고 쓸쓸해야〉의 뜻.

4) 연자맷돌.

5) 갑자기 올라가 버렸어.

그리 생각이 나서 이제 메누리도 매일 '뒤칩이 짐서방 뒤칩이 짐서방' 했어. 〔조사자 : 그러니까 메누리도 그 어머니가 구름에 싸여서 하늘 옥황더레 가는 걸 보았구나.〕

아, 보았지게. 그러니 이젠 드러(마구) 불르다가 이제 어머니가 팡돌에 앉아시니까 '뒤칩이 짐서방 뒤칩이 짐서방' ᄒᆞ니까 올라가는 걸 봤거든. 게니(그러니) 이젠 나도(며느리도) 이젠 여기가 앉아서 이제 '뒤칩이 짐서방을 불르자.' 허연 거기가 앉아서 '뒤칩이 짐서방 뒤칩이 짐서방' 막 불런. 경 부르더니마는 뱃이 과랑과랑 나는디도[6] 이젠 하늘에서 구름이 문질문질[7] 누려오더니마는 이젠 비ᄇᆞ름이 쳐가지고, 이젠 베락을, 번개를 퍼짝퍼짝 ᄒᆞ더니마는, 그 메누리를 베락을 딱 때려부렀단 말이여.[8] 베락을 때리니까 이 사름이 이제 구렝이로 탄생을 했어. 〔조사자 : 여자가?〕 응, 여자가. 〔청중 : 죄 받안게〕. 응 죄 받아서 이제 어머니를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허는디, 이제 '뒤칩이 짐서방 뒤칩이 짐서방헙데다.' 그리 헤부니까 천이(天이) 하늘에서 감동 해가지고.[9]

요런 얘기.[10] 메누리가 나쁜 죄로 이 사름은 죽어서 아주 구렝이로 탄생허여가지고 지옥에 갔다고 ᄒᆞᆫ 말이쥬. 〔조사자 : 마음 나쁘게 먹으면 안된다 ᄒᆞ는 말이구나〕 응

(1981. 7. 16., 안덕면 덕수리, 윤추월, 여 · 66.)

11. 사람 잡아먹는 호랑이

엿날에 홀어머니가 돌을 이제 형제를 났어. 돌을 형제를 나서 가만이 살다보니, 이제 호랑이가 와가지고 그 홀어머니를 항상 꼬셨어.[1] 호랭이가 이제 사름으로 변동해가지고[2] '나영 ᄀᆞᄍᆡ 살자' 했거든. 하도 허니까, 이젠

6) 별이 쨍쨍 쬐는데도.
7) 구름이 갑자기 많이 끼는 모양.
8) 벼락 맞아 며느리가 죽었다.
9) 모두 알아서.
10) 이런 이야기는.
1) 유혹했어.
2) 둔갑해서.

여자가 호랭인 줄 알면서도 그 호랭이를 얻어서 살래(살려고) 어디 저 드륵밭[3]으로 나가는디, 이제 그 놈의 아이덜ᄀᆞ라(아이들에게)

"이제, 너희덜 이제 가많이 이디서(여기서)밥 해 먹으면서 살암시면 내가 어디 할으방을 만나가지고, 이제 돈이영 많이 벌어당(벌어서) 너희 줄테니 ᄀᆞ만이 살라."

그래두고 나가서. 겨니 아이덜 형제 이제 지지빠이(여자아이) 형젠디, 매일 오카부덴 허믄,[4] 만날 어머닐 기다려도 안와. 안오니까,

"하이고, 어머니가 이제 어딜 갔는고?"

하루는 이제 성제가(형제가) 마늘을 캐면서

"하, 우리 어머님 찾아 보자."

나가서 마늘을 이제 들웃마늘(들마늘) 이제 ᄂᆞ물을(들나물을) 캐면서 돌아뎅기다 보니, 어디 저 산중 가운데다가 집하나를 있는디, 어머니가 뱅애를(방아를) 지면서 '이영콩 이영콩 이영콩' 허면서 방앨 겸거든(지고있거든). 이제 돌은 담ᄆᆞ냥으로(구멍으로) 이렇게(시눙)

"하, 저거 우리 어머니 닮다."

"하, 저거 우리 어머니 소리다."

아, 이제 간 보니까 이 놈의 호랭이는 이제 항상 사름을 물어다가 잡아먹는 호랭이라.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뭣을 겸신고 허니(찧고 있는고 하니) 이제 호랭이가 사름을 잡아오니까, 이제 그 뽓는(빻는) 모양이라. 그걸 뽓아서 국을 끓여 먹고 반찬을 헤 먹고, 그러니 그 어머니가,

"아이고 나 아기덜 이제 잘 오랐저."

정제(부엌) 데령가서[5] 이제 밥을 주고 국을 주니, 이제 보니까 밥은 백반(쌀밥)이주마는 고기가 이제 어머니가 찧는 걸 보니 좀 미심(의심)시러와가지고 동생은 그 고기를, 고기국을 먹고, 성은(형은) 고기국은 안 먹고 밥만 조금씩 먹었어.〔조사자 : 아 간, 어머니 만난 집안에 들어간마씸〕. 응. 들어간 이제 밥을 먹으라 허니까, 백반해 놓고 이제 고기는 그 사름의 고기국이고, 사름의 고기로 반찬을 헤연 주니까

3) 드륵발?
4) 어머니가 올까봐 기다리면.
5) 부엌으로 데리고 가서.

그 역은[6] 아이는 이제 우의형은(웟형은) 그것을 먹지 아녀고, 동생은 분시(분수) 몰라가지고 먹언. 먹으니까 그더서(그 곳에서) 이제 그대로 졸아부려서.(잠들어버렸어) 이젠 그 형은 이제 죽질 아녀니까

"야 저 밖으레(바깥채) 구들에(온돌방에) 강 누어 자라."[7]

아 가 보니까,[8] 탱탱 빈디, 이제 아무것도 엇은 방에 가서 뭐 여기는 초석태긴가(초석자락인가) 뭐 멍석태긴가(멍석자락인가) 하나 끄라져(깔아져) 있는 딘디,

"여기서 누어 자라. 너네 아방[9] 나영ᄀᆞ찌 누며는[10] 너네 아버지가[11]이제 할으방이 오라서 좀을 못 잘테니 여기서 눠 자라."

그래서 좀을 자다 보니, 그 아이가 ᄀᆞ만이 영 서두서(서서) 보니 호랑이가 오는디, '흥흥' 허멍 하루종일 다녀도 사농(사냥)을 하나 허지 못허연 사름을 물질 못허연.[12] 경허연 이제 어머니가 말허는디.

"하이구 난 오늘 집이 앉아도 사농(사냥)을 두 갤 했다."

고 그런다 말이여.[13] 하 이젠,

"하이구, 어디 시냐(어디 있느냐?) 틀어먹겠다."

"하나는 밧그레(바깥채) 구들에 있고, 정재에 하나 있다."

아, 겨난(그러니까) 막 거길(그 곳엘) 간 막 사름 고길 막 틀어먹고 뭐[14]

〔청중 : 어멍이 경(그렇게) 골아서(말해서)?〕 응, 어멍이, 겨니 그 아이는 그 말을 들으니,

"하이구 이거 어떵허민 좋고."

〔조사자 : 게난(그러니까) 동생 잠자는 걸 호랑이가 간 틀어먹은 거로구나.〕 응, 틀어먹언. 좀 자는게 아니라 죽었단 말이여. 이제는 가이는 (그 아이는) 이제,

---

6) 철든.
7) 어머니가 형에게 한 말.
8) 형이.
9) 너의 아버지 즉 어머니의 남편이 된 호랑이.
10) 네가 나와 함께 누우면.
11) 호랑이.
12) 호랑이가 사람을 잡질 못하여서는.
13) 그 아들 둘을 잡았다고 말함.
14) 그 말을 듣고 가서 동생을 잡아 먹음.

"하이고 어떻게 해서 도망을 가야겠다."

이제, 멍석태긴가 초석태긴가 꼰디(깐데에) 이렇게 들런 보니까 칼이 있단 말이여. 칼이 시니(있으니) 백벼름을(벽장을) 이제 저런 백장을 요렇게 요렇게 막 칼로 돌르다 보니,[15] 돌란 보니 손주먹이 첨은(처음은) 들어가. 다음은 이제 막 돌르다 보니, 머리빡 질르니 머리빡이 들어가, 또 다음 막 돌라서 솔짝ᄒᆞ게(살짝하게) 기여났단 말이여.[16] 겨난 이제 돌은 훤헌디, 올래엔[17] 팽나무가 있어. 팽나무라 헌 건, 이제 열 십재로 요렇게 이제 허여진 낭인디, 그 나무에 올라가 있었다 말이여. 뱃곁디(밖에) 나가도 이거 길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니까 죽을 판이라.(죽을 실정이라) 아 거기 가서 팽나무 우의(위에) 착 ᄒᆞ게 올라가지고 가만히 앉았어. 겨니 이 놈의 호랑이가 밧그레 구들에 이제 사농(사냥)[18] 하나 오랐다 ᄒᆞ니, 그걸 볼 양으로 아 간 보니까, 백장에 이렇게 구녁을 돌라가지고 도망을 가부렸어. 하이고, 이제 영(이렇게) 나가가지고[19] 생생생생 허멍[20] 내 마치멍(냄새 맡으면서) 그레 돌악 저레 돌악.[21]

"하 인물 내가 나는 듯허네"

인물 내, 사름 냄새란 말이여.

"인물내가 나는 듯허네 나는 듯허네."

허면서, 아, 그레 돌악 저레 돌악.

아, 그리 허다 보니, 낭 우이(팽나무 위에) 앉았거든. 그러니 이젠 호랑이가 이렇게 보멍

"아갸. 아갸. 어떵허연 거기 올라져니."

"뒤칩이간 창신(가죽신) 빌어단 신으난 올라집데다."

점점 못오르게 ᄒᆞ젠 ᄒᆞ는 거라.

---

15) 구멍을 뚫다보니.
16) 몸이 기어들었다.
17) 집마당에서 길가 사이에 난 긴 통로.
18) 먹을 것.
19) 호랑이가.
20) 이리저리 뛰어 다녔다.
21) 미끄러워서.

이제 즈기 집에 가서 창신을 빌어다가 걸리우난 문들락문들락허연.[22]

"아갸 아갸, 어떵허연 올라져니?"

"뒤칩이 강 남신 빌어당 신곡 춥지름(참기름) 혼 병만 볼르민 올라집데다."

춥지름을 해당(가져다가) 발창에(발바닥에) 볼르곡(바르고) 올르젠 해도 문들락문들락 ᄂᆞ시 못 올란.

〔조사자 : 아 민지르완. 예(미끄러워서 예?〕 응 민지르완 못 올란. 이제는 니빨로다가 막 그 낭을 그찰다(끊었다) 말이여. 막 그챠가니까, 흥창흥창 막 끌러가민 허거든,[23]〔조사자 : 아 끊어져 가난.〕

응 흥창흥창허니까, 이젠 그 아기가 말을 ᄒᆞ되

"하늘님아 하늘님아! 살려줍서."

이렇게 기도를 올렸거든.

"이제, 살리커거드네(살리려며는) 쇠줄을 내리우고, 죽이커건 꺽줄을 내립서."

그랬다말이여. 겨니까, 쇠줄을 이제, 구물 찬 걸로 하늘에서 탁 내리완.

〔조사자 : 죽이커건 뭐 마씸?〕

굵(측) 이란게 있어.

겨난, 이제 쇠줄을 탁 내리우니까, 이제 쇠줄 우이 톡 앉이니까, 낭은 싹 쓸어질 판에(순간에) 쇠줄이 톡 올르니까 동동동동허게 하늘로 올라간.

겨니 이제 호랑이가 무슨 얘길 ᄒᆞ는고 허니, 그 아이 허는 소릴 들었단말이여[24] 이젠 이것이 바뀌여 불었어.[25]

"하늘님아 하늘님아 살리커건 굵줄을 ᄂᆞ리우고 죽이커건(죽이려거든) 쇠줄을 ᄂᆞ리웁서."

굵줄을 착허게 내리완. 이제 그 굵줄을 동동동동허게 올라가다가, 바당(바다) 아주 그 바당물(바닷물) 가운디 가서 착ᄒᆞ게 털어주와부려서,(떨어뜨려버렸어) 이 그 호랑이가 죽었다 ᄒᆞ는 얘기쥬.

(1981. 7. 16., 안덕면 덕수리, 윤추월, 여·66.)

---

22) 나무가 흔들거림.

23) 하느님께 비는 소리를 들었다.

24) 바꿔서 하느님께 청하였다.

南濟州郡 安德面 德修里

12. 광정당과 이목사

엿날 영천 목사(永川之牧使) 옌 헌 하르방이, 이씰(李氏)거라. 그 하르방이 평양감사로 가라 허니(처음 벼슬 할 때에 평양감사로 가라 하니)

"저는 제주목(牧) 한 번 가보겠읍니다."

"ᄌᆞ식, 제주 뭐하러 갈 거냐."

영허연(이렇게 말하니까),

"아니 올시다."

아마 육지에서도, 서울에서 잘 알았던 모양이라.

"제주엔 가면 조금 헌 사람은 다 당(堂) 밑어 살곡, 조금 헌 사름은 절(寺) 밑언 사니, 농사지어서 살 사람이 없다. 당이 오백이요 절이 오백이니 당 오백 절 오백 밑고 또 트멍(틈)에 딴 종교 밑곡 허민 전부 믿는 사름 천지라노니까(뿐이므로), 농사 질 사름이 없다 허니 이 누무[1] 걸 오라서 한 번 때려 부수자고.

"전 제주목으로 혼 번 가겠읍니다."

"먼, ᄌᆞ식(무슨 놈이) 제주 뭘 볼 게 이서서 가겠느냐?"

"아니 경해도(그래도) 제주 혼 번 가 보겠읍니다."

"그래 제주목으로 가거라."

오라서 배에서 내려 왕(와서) 보니, 굿소리가 우상우상 나.[2] 춤 굿 잘 헌덴 말만 듣더니 춤 잘 허는디구나(데이로구나) 굿소리가 보니 막 난단 말이여. 날이 어두워. 그 날 저녁은 어두우니 이젠, 소창옷 입고 그날 도복 벗어 두곡 소창옷 입고 보통 어디 평건 덜 쓰는 밀짐[3] 쓰고 나갔지. 굿 허는디, 굿소리만 듣고 나갔지. 보니, 죽을락 살락[4] 심방덜이 굿을 햄서. ᄆᆞ마니(가만이) 혼 쪽에 산 구경만 해서. 그 놈덜이 하도 지치게 ᄒᆞ여가니,

"저두[5] 그자(그저) 얻어 먹으레 뎅깁니다 ᄒᆞ니, 북이나 혼 적(혼 번) 때려서 밥이나 얻어 먹겠읍니다."

---

1) 이 당과 절을 믿는 걸.
2) 요란스럽게 나.
3) 밀짚모자.
4) 신나게.
5) 목사 자신.

"아, 좋다."

"북 때려 봤느냐."

"잘 때리진 못합니다만 그자 들어보민 알 겁니다."

"아, 그러라."

하, 이젠 그 북을 때려 가는디, 못 때리민, 영(이렇게) 때리라, 저영(저렇게) 때리라 허멍(하면서) 그 북을 두드련. 밤이 혼 열혼 시 쯤은 되여가니 굿을 다 설련(마쳔). 설련ᄒᆞ니 거기서 중식(中食)은 헤연 주니, 중식덜 먹고 헤연, 누엉 잘 판이라. 다 눵(누어서) 자는디, 밤중이 푼푼헤연(깊숙하여) 새로 혼 혼 시쯤 되여가니, 이젠 여피(옆에) 있던 그 여잘 ᄒᆞ나(한 사람을) 드러(막) ᄌᆞ밨단(꼬집었단)말이여. 깨나고 보니 곱닥헌(잘생긴) 양반이 드러 질(자기를) ᄌᆞ밤서.

"아 요사람이 나를 호탁해서(마음을 두어서) 영(이렇게) ᄌᆞ밤시니 ᄌᆞ롬에(뒤에) 또라 보자."

이젠 나오니 그 남ᄌᆞ가 홀목(손목)을 심엉 동기거든(잡아당기거든). 가보자고, 가는 건 보난 제주시 안터레(안으로) 구짝(똑바로) 드러오라. 드러오는디(오는데) 그 제주 목사 사는 더레(곳으로) 과짝(똑바로) 올라가거든. 하이고, 이젠 머리가(머리카락이) 과짝(똑바로) 일어나고, 이젠 요거 큰 일 났다. 살길 얻어보젠허당(하다가) 죽을 길을 만나졌구나. 이젠, 그 첨 목사 앉은 자리에 딱허게 앉아. 이젠,

"그디 앉아라."

ᄒᆞ니 이젠 겁이 바짝나고(덜컥 나고) 문 박더레(밖에) 영 꾸러 앉앙(꿇어앉아서는) 영 허니깐,

"여봐라."

"예."

"왜 굿을 그렇게 허나. 굿을 헤여가민 귀신을 봐려지느냐(보이느냐). 못 봐려지느냐?"

"저 하가위(처지에) 어느 저레(겨를에) 귀신을 빅릴(볼) 수가 있겠읍니까. 그저 축 ᄇᆞ름더레(벽바람 쪽으로) 도라앉앙 그저 말 ᄆᆞ름이나(말하는 거나) 일반입니다.

"굿을 그렇게 홀 때에는 왜 귀신을 못 볼 리가 있느냐?"

"저의 정도에 그렇게 헐 수가 있겠읍니까."

"정말 그렇단 말이냐."

"정말입니다."

"가거라."

쫓아버렸단 말이여.

제주목사가 들어와서 혼 사흘 후제는(후에는) 하간디(여러 곳에) 문(모두) 돌아보곡 영 헤그네, 사흘 후제는 제주를 혼 번 돌아 봐. 순력이라고 해서 도순시(島巡視)주게(인 것이라).

"제주 목이 이제 순력헐 거니까 그대로 알라."

허연, 하, 영리방덜(駅吏房들)은 이제 지꺼정(기뻐서) 타는 물 있는 집이 강 다 건드린다 말이여.[6]

이 판에 쫄병놈덜은 뎅기멍(다니면서) 고을마다 뎅기멍 물 이신디 강(말 있는데 가서) 끄렁 가가민(끌고 나가면) 술잔이나 주는 사람 있곡, 돈냥이나 주는 사람도 있곡, 그런 때 빌어먹는 단 말이여. 아랫놈들은 게서(그래서) 순력을 ᄒᆞ는디,

제주가 삼당(三堂)이라고 허여. 광예당. 광오당. 광령당. 영 해서, 여기는 광정당이라고 허는 디가 이서. 영 헹(이렇게 하여) 정의(旌義) 지방으로 도라오는 디, 정의는 뭐 광예당인가 광오당인가. 아 그 디도(그 곳에도) 오니 그 하인놈덜이 말ᄒᆞ기를,

"여기는 물을 하매(下馬)해야 넘어 갑니다."

"어쩐 일이냐?"

"여긴 당이 세기로다가 하맬(下馬를) 안 허믄 물이 상헙니다."

"그렇단 말이냐. 그대로 이꺼라(이끌어라)."

물이 제대로 걸을 수가 이서야지.

"이꺼라."

거 물 정갱이가(다리가) 과싹 부러진단 말이여.

"다시 물 아져 드리라(갖다 드려라)."

다른 물 갖단 안장 지완 테완 너머가젠 허난, 그 물은 또 아니 걱꺼져? 물 서너 갤(마리를) 허연, 정갱일 걱꺼져 가난,

6) 목사 순력에 쓸 말 빼앗을 궁리를 하는 것

"가까운 부락으로 이제 해서 심방덜 다 불러들이라. 불러 들이곡 여기 가까운 부락에 이제 물종[7] 을 출리라."

굿헐 물종을 출리라고. 어디 영(令)이라 거역홀 수가 이서. 탁ᄒᆞ게 출려 들이니 이젠 굿을 춤(정말로) 그 큰 비염이(뱀이) 나오거든. 그 굴 쏘그브로(속에서) 나오니 여기 나와서 이 음식을 몬딱(모두) 먹엉 갑센(가십시요핸) 빌라고. 경허니(그러니), 나오라서 그걸 문짝허게(말끔하게) 다 들러 먹엉. 막 먹어노니 고망엘(구멍엘) 들어갈 수가 있어사지.

"귀신은 정결헌 거고 정결헌 게 귀신이지. 이렇게 추접헌 것도 귀신이냐고. 장도칼 가져오라."

탁탁 찍언 문(모두) 그찬(끊어서) 숯불 피완 ᄉᆞ라 데껴부런(태워 던져버련).

요기 광정당도 요딘디[8] 가까운디 오란 ᄒᆞ니,

"여기도 경 ᄒᆞᆫ디냐."

"그렇답니다."

이끄라고.[9] 문 다른 물 해당그네(하여다가) 탕 넘어가젠 ᄒᆞ민 걱꺼지니, 이 무을 가까운그루 무을에 물종, 출리고 굿 잘 ᄒᆞ는 심방 다 불러드리랜. ᄒᆞᆫ 데엿세를 부수아대니[10] 큰 대맹이가 나와서 상위에 걸어지니,

"아! 먹으라고, 먹읍센 빌라고.[11]"

다 먹어노니,역시 것도(그것도) 들어가들 놋하니, 이젠 끈언(끊어서) 숯구어 살리렌 허연,[12] 말짜인(나중에는) 캐우니(태우니), 장꿩(장끼)이 되연 푸드득 놀드라 허여. 그 당이 커서 큰물당이옌 허영(하여서), 그자 늘 요자기꼬지(요즈음까지), 늘 굿 허곡 허당 것도 이제 영 설러부러서.[14]

---

7) 物品.
8) 이 곳에서 가까운 곳을 이름.
9) 이끌라고 .
10) 下馬하지 말고 끌고 가라고.
11) 굿을 크게 하여가서.
12) 뱀에게.
13) 숯불 피우라고 하여서.
14) 굿을 하지 않는다.

영 도라뎅기면서[15] 당이옌 ᄒᆞᆫ 당은 문 부솨 내부렀지. 절이옌 ᄒᆞᆫ 절 다 부수완 들러데껴 부런.[16]

내가 이추록(이렇게) 허며는 이 눔으것들이(이 놈들이) 드러서(참여하여서) 날 첨 어딜로 가서든 날 해칠 것이다. 이녁(자신의) 중심(생각)으로만 꼭 가져 있는디. 섣달 그믐 날 저녁은 좀도 아이 들고 앉안 그자 술잔이나 놀고 ᄒᆞ는디, 밤이 짚으니까(깊으니까) 괴로운 기운이 나니 누었단 말이여. 비몽사몽에 다가 허영 헌 백발 노인이 보니 도복 출리고 그자 수투룸허게 출린 하르방이 들어와서,

"목사 자는가?"

"예, 아이 잡니다. 어디서 오십디가(오셨읍니까)?"

"나는 김녕서 왔어."

"어째서 오십디가?"

"그런게 아니고 김녕 주민들이 나의 울담을 그 놈도 ᄒᆞ나 ᄋᆞ져가(가져가) 이 놈도 ᄒᆞ나 ᄋᆞ져가 허니, 매번 욕도 못허고 해서 내부니(내버리니) 울담이 몬 허우러져서(허물어져서) 허니까, 목사님안티 원해서 울담이나 ᄒᆞ끔(조금) 해 달라고 허젠 왔소."

"김녕 어느 곳입니까?"

"김녕 한가름이라."

"나는 집을 어떻게 짓어서 사는 사름이라. 나는 사름이 아니고 귀신이누라."

"예 알았읍니다."

"나는 가오."

깨난 보니 꿈이라.

"하이 이상허다. 내가 이제 지금 꿈이란 걸 본 디가 없는디, 이거 하 어느제랑(어느때이면) 이 날이 볼그린(밝을 것인가)."

뒷날은 명절이라 말이여. 명절날인디 명절 안허고 가까이 데리는 하인을 하나 잡고,

"너 물 강 가져오라."

---

15) 이렇게 제주섬을 두루 다니면서

16) 〈부숴버렸다〉 는 말을 강조한 것

불 아져오니,

"안장 지우라."

안장 지우난,

"너 혼자만 나 물 이끄라. 김녕더레 이꺼 글라(이끌고 가라)."

도란(데려서) 둘이만 이제 그만 답살(踏査)해 봤거든. 답살해보니 그 가름(마을)안에 큰 골총이 있는디,담이영 크게 해났는디 저, 흔적밖에 없어. 담이영 너르게 헌 딘디. 게서 김녕 경민장(警民長)을 불렀지. 제주목사가 완 경민장 불러드리젠 헴젠허연(한다고 하니), 아이고, 이제 정월 초ᄒᆞ룻날 무신(무슨) 큰 일이 생견 제주 목사가 날 불러드렴신고. 퍼짝 나간,

"김녕 가름 안에 골총이 이 산(墓) 말고 또 있느냐."

"이 산밖에 없읍니다."

"그게 참말이냐 다른디 어디 없느냐."

"없읍니다. 큰 골총이, 소소(사소)한 골총은 있읍니다만 큰 골총은 이 산밖에 없읍니다."

답사에서 돌아와 정월보름이 쑥ᄒᆞ게 넘어사니 나갔지. 나가서 김녕으로 나간.

김녕주민들을 다 거느리고 김녕 경민장을 불렀지.

"물종을 깨끗이 해드리라. 이 산에 제를 드려서 내가 담을 허겠다. 주민덜 다 거느리곡 제물을 해드리라."

"그리 허쿠다."

이장네 집이서 그 제물 잘 출리곡 목사가 제관이 되연 이제 잘 지내고 산울담을 잘 해 드리라. 옛날보다도 더 덩그랗게(크다랗게). 무을이 모다들엉 거 어려운 일이라. 산담을 잘했주. 그 땐 꿈도 안 봐지곡 허연 ᄒᆞ루 저녁은 와서 ᄒᆞᆫ 서넉덜 후에는 꿈에 그 어른이 와서,

"목ᄉᆞ님 계십니까?"

"예 접니다."

"나 목ᄉᆞ님 덕택에 저의 울담을 잘 치레해주니(치장해주니) 감사헌 말씀을 드릴 바가 없읍니다. 저는 물러갈 뿐입니다."

그 뿐이여. 그 해 섣달 그믐 날 저녁은 아 그 하르방이,

"목사님 자십니까?"

"아이 잡니다."

"목사님 오늘 곧 떠나십서 누구ᄀᆞ라(누구에게) 말도 말곡 곧 배를 타십서."

하 깨고 보니 꿈이여.

이젠 문딱 들러데껴 뒌(내 던져두고) 몸만 퍼짝 나갔지. 그 때는 별도, 그 화북(禾北)으로 밖에 육지배를 들어오고 나가고 못했젠 허여.

별도레 막 뛰여 간 ᄒᆞ니 배가 이시난,

"이 배 곧 띄우라."

배 띄우라 ᄒᆞ니, 아이 띄울 수가 이서. 배를 딱 띄와서 개맛(바닷가) 배깥으로(바깥으로) 썩 나가니, 이제 ᄇᆞ름을 만난 후젠, 그자 하 이 배를 밀어 가는디, 그자 자악 작 배가 가거든.

제주 바당을 쑥허게 넘어산 보니, 제주 바당은 돌풍이여. 불써 ᄇᆞ름이 불어서 막 바당이 문 되싸졈거든.

"하 저딘(저곳은) 고싼(아까는) 경 안 햄선게(하고 있던데) 정햄꾸나."

육지바당엘 강 뚝허게 떨어지자(닿자), 퍼짝ᄒᆞ게 앞더레 튀니, 그 놈의 보름이 조름에(뒤에) 조차간 배를 막 부시대겨부러.

간 이제 일주일 걸언 서울을 간 보니, 아들 성제가(兄弟가) 있는디, 벌써 다 죽었다 말이여. 그 놈의 귀신덜이 들언 복수를 헌 거라.

죽은 아들들은 이제 관장을 세개씩 내후렸젠 히여. 관장이옌 ᄒᆞ민 연날엔 낭 요만이 너븐 놈으로 매를 두드렸주.

게난 그까짓 놈덜 안티 몰려서 죽었느냐 허연.

남편은 장기만 뒤곡 부인은 매일 통곡허고 허연. 왜냐면 이녁(자기) 속이(마음이) 아프니까 소일ᄒᆞᆯ 여산(생각)으로 바둑 장기만 두거든. 경ᄒᆞ난 부인이 자식 죽은 생각은 안 허느냐고 허니깐 대양허고 독짓(닭의 깃) 가져오라 허거든. 대양하고 독짓 가져오니 독짓으로 목더래(목안으로) 콱 찔런.영 허니깐, 피가 대양(대야)으로 ᄒᆞ나 허연(하나 가득 하여서).

"니들이 암만 울어봤자 나만큼 속이 아프진 않다."

했주.

(1981. 7. 17., 안덕면 덕수리, 송경은, 남 · 70)

13. 광정당 이야기

서월(서울)에서 영천리 목사렌[1] 혼 목사가 이디(이기) 제주를 오민, 혼 불(한번) 휜ᄒᆞ게 돌앙, 순력(巡歷)을 순력이렌 혼건 지주(濟州) 삼읍을[2] 싹 도는 거난. 거나네, 그땐 가매도(가마도) 춤 저 차도 엇고(없고) 인력거도 어실 때난 ᄆᆞᆯ을 탕(타서) 돌아십주게.

ᄆᆞᆯ 타네 이디 영 헤연 빙 ᄒᆞ게 제주돌 돌아오당보난, 요디 요 동편(동편)의 어디 동산에서 굿을 '설렁설렁' 심방무당들이 굿을 헴시난(하고 있으니까), 그 이 목사렌 혼 사람이, 서울 양반이,

"어떤 일로 굿을 이렇게 ᄒᆞ느냐?" ᄒᆞ난,

"ᄆᆞᆯ탕거(말 탔는데) ᄆᆞᆯ ᄂᆞ령 갑서. ᄆᆞᆯ 하매(下馬)행 갑서. ᄆᆞᆯ을 탕 가민 ᄆᆞᆯ다리가 접니다."[3]

"어떤 귀신이 셍그네(있어서) 날 ᄆᆞᆯ(馬)다리 절게 ᄒᆞᆯ 귀신이 있느냐"

ᄒᆞ난, 게거드네(그렇다더라도) 이제 난 그저 간다고.

그저 넘어가난 ᄆᆞᆯ이 오꼿(정말로) 다리가 저봅주게(절어버렸읍니다). 게난 그 말이 죽는거 아니꽈. ᄆᆞᆯ이 다리 꺽어져부난, 죽으난, 이제 그디(그곳에) 무드난(묻으니까) ᄆᆞᆯ모리또랜[4] ᄒᆞ는거 아니꽈. 겨난(그러니깐) 굿을 경 헴시난,

"굿을 막 경허믄 어떤 귀신이 날 이제 뵈아라."[5]

ᄒᆞ난, 굿을 기가막히게 ᄉᆞᄆᆞᆺ ×이 빠지게 그놈들이[6] 굿을 ᄒᆞ나네. 그 저 비염이 큰 구렝이 대맹이가 양(예), 문지락ᄒᆞ게 대맹이가 내미난."

"대가리 훨씬 더 내와라 뵈아라."

눈짝 나오게 ᄒᆞ렌. 그 대가리를 막 나오게 ᄒᆞ난, 아주 대맹일 막 나오라 줍센(나오라 달라고) 막 기가막히게 ᄒᆞ난. 춤 막 굿을 ᄒᆞ난, 문짝(모두)

---

1) 永川출신의 이형상(李衡相) 목사.
2) 三邑(濟州, 大靜, 旌義).
3) 말을 끌고 가던 자가 한 말.
4) 안덕면 덕수리 동편 길가에 있는 지명.
5) 귀신이 나와서 내게 뵈여라.
6) 무당들이.

나오더랍니다.

ᄇᆞ염이 문짝 나오난, 큰 비염 이걸 어떵ᄒᆞᆸ니까. 장도칼로 찍엉 숯불 태왕 넘겨쎔주게.[7] 그걸 태워가나넨 칼 때겐(타갈 때에는) 그 혼이 혼입주게. 그 영혼이 꿩, 꿩 ᄒᆞᆫ ᄆᆞ리가 퍼드렁ᄒᆞ게 날앙(날아서) 이 덕수펀드레 앉더랍니다.

허난 그게 이 쏘급(속에) 새가 담아졌다구. 게난 이디 ᄆᆞ을 별명을 새당이라고 새당, 새당별리, 경ᄒᆞ난(그렇게 하니까) 나수께[8] 경ᄒᆞ난 어디든지 새당 가자. 새겨 가자. 대정고을 가자 영, 헤십주만, 이젠 그 말을 설러뒁 덕수라고 헴수께[9] 덕수, 덕심, 덕수.

광정당에서 그 굿을 헤십주게. 광정당. 그 당이 광정당이렌 ᄒᆞᆫ거. 당이 아니꽈게. 당 그 당이 시난 광정당이 그 당입주.

(1981. 7. 17., 안덕면 덕수리, 송경은, 남·70.)

14. 사람이 돼지로 환생한 이야기

그디 저 판맬(販売)보는디. 그 법당에 그 ᄆᆞ을 법당 졋그디서(부근에서) 판맬보는디, 판매장이가 저 법당[1]을 믿으렌 해도 그 법당을 아니 믿언. 판맬보는디 판맬보멍 법당을 아니 믿엉 사는디.

ᄀᆡ기장시만 허멍 이젠 법당을 안 믿으난. 이젠 믿으렌도 안ᄒᆞ고 사는디, ᄀᆡ기가 떨어지난 어디강 큰 ᄃᆞᆺ(돼지)을 두갤 어록ᄃᆞᆺ을(얼룩돼지를) 잡앙(잡아서) 그딜 저 거시기[2] 판매 보젠ᄒᆞ난, 아, 사올 땐 좋게 어질게(순수히) 물앙 온(몰아서 온) 도새긴디(돼지인데), 집에 오당 놉 빌어[3] 걸령(걸려서) 잡잰ᄒᆞ난 노시(전연) 심지 못해연. 이레 도락 저레 도락 ᄒᆞ멍[4] 노시

---

7) 태와 버려십주게.
8) 〈새당〉이란 별명이 그렇게 하니까 났읍니다.
9) 〈새당〉을 〈덕수〉라고 바꾸었다.
1) 불교.
2) 말이 곧 이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 쓰는 말.
3) 품을 빌어서.
4) 이리저리 뛰어 달아나는 일.

잡질 못허난. 스님은 ᄆᆞ마니(가만히) 상 구경ᄒᆞ당,

"어떻ᄒᆞᆫ 도새기가 경헴시니(그러느냐)."

ᄒᆞ난,

"허 뭔 모를 일이우다. 상 올 때는 경(그렇게) 어진 도새기가 이치록(이렇게) 영 어진 도새기가, 영 이제 심젠ᄒᆞ난(잡으려고 해도) 심질 못했수덴."

ᄒᆞ난,

종이 ᄒᆞᆫ장 빌어오렌. 춤 가져오랜. 종이 ᄒᆞᆫ장 가져오나네, '어멍 아방 일름이 뭐시라나시니(무었이었느냐)' ᄒᆞ난, 어멍(어머니) 일름이 뭐시고 아방(아버지) 일름이 뭐시라났젠ᄒᆞ난, 그 일름 어멍 일름 아방 일름을 써네 이제 주멍(주면서), '이거 앞드레 영 받고 아자 이시멘,[5] 도새기 온덴' ᄒᆞ멍 ᄒᆞ난[6] 그래 영 받앙 아자둠서[7] 글을 보난 이걸 어떵ᄒᆞ영 이걸 썬디(썼느냐) 시님ᄆᆞ라 ᄒᆞ난,[8] 도새기가, 그 어멍 아방 죽엉 저승을 가난 도새기로 환생허영. 저것이 니네 어멍이고 아방이 아니냐고. 어멍 아방이니까 어멍 아방 일름 성명 쓰고 일로 영 안즈믄[9] 도새기가 일로 온덴ᄒᆞ난(온다고 하니까), 도새기가 무슨 그 사름 앞드레 오라네, 영 양발(두발) 꿇영(꿇여서), 영(이렇게) 넙지기(너부주기) 꿇영, 그 이름 썽 받앙 앉으난, 그 도새기가 들어오난 경 꿇이난, 그 잡앙그네(잡아서) 판매보젠 ᄒᆞᆫ 사람이 기절행 자빠젼. 기절행 자빠져나네(자빠지니까), 자빠정 옷꼿ᄒᆞ게 줌무쳔(기절해서) 죽어부나네(죽어버리니까). 사람이 죽었다고 막 얄라리치멍 헹ᄒᆞ는디(야단법석을 떠는데), 몇 시간 안니(안에) 그 사람이 깨어난 이젠 저승을 간.이제 가나네(가니까), 이제 올 기회가 아니되었다고. 기회도 아니되었는데 왜 오랐느냐고. 영(절대로) 들어가지 못ᄒᆞ게ᄒᆞ난, 들어가지 못ᄒᆞ게ᄒᆞ연, 그 옆더래(옆에) 뵈려보난 무슨 사름이 여기도 ᄒᆞ나 이제 엎더지고 저기도 저만치 ᄯᅳ로 엎더젼. 이건 어떵ᄒᆞᆫ 사람이냐고,[10]

"이건 이승에서 독ᄒᆞᆫ 채ᄒᆞ영(악독하게 행동하여) 놈(다른) 사람 들어 두

5) 이것을 앞에 놓고 앉아 있으면.
6) 돼지가 온다고 하니까.
7) 이렇게 받아서 앉아 있으면서.
8) 스님에게 말하니까.
9) 이렇게 앉으면.
10) 그렇게 물으니까.

드렁불멍허난 몬(모두) 두드려부나네 (때려부니까) 이제 몹쓴 사람으로 오라그네 구류(狗留)살렴져(살게 하는 것이다)." 저 사람은 어떵혼 사람이고 ᄒᆞ난,

"약 먹엉 주거네(죽어서) 어멍 아방 막 가슴 아프게 그 혼 거죄로 혼다."

옆으로, 옆에 이제 가매에 문을 이창(이쪽) 옆에도 앉앙 뀌고 저창 옆에도 뀌는다, 혼 편이껀 고칠 솖암셔. 이 고칠 솖아시난,

"이 고칠 솖는 거 무슨거 ᄒᆞ랜 솖암시니." [11]

"저 약 먹엉 죽은 사람 이제 행실ᄆᆞ리치젠 ᄒᆞ는 거렌. 고칠물 헤영(만들어서) 행실 고리치젠 ᄒᆞ는거렌."

경헤영 ᄒᆞ난(그렇게 하니까) 이제 난, 갈 길 ᄆᆞ리치렌ᄒᆞ난, [12] 난, 이제 들어가져.그 사람 이제 문지기 못들어간댄. 혼저 혼디(함께) 안에 가네. 이제 저 큰 사람한티 들어간 아맹해도(어떻해도) 이제 저,영 정(저렇게) 혼사람이(이러 저러혼 사람이) 오켄 힘져 ᄒᆞ난, [13] 당최(전혀) 오질 못ᄒᆞ게 ᄒᆞ렌. 올 기회가 아니된 사람이난 오질 못ᄒᆞ게 ᄒᆞ렌. 오질 못ᄒᆞ메,나신디(내게) 오젠허민(오려고 하면) 바농산을 [14] 넘고 불산을 넘어야 나신디레(내게로) 올거난, 그 사람ᄆᆞ라 경 고랑(그렇게 말하여서) 곧 돌려불렌(돌아가도록 하라). 경ᄒᆞ지 않으민(그렇지 않으민) 재기(빨리) 돌려불지 안ᄒᆞ민 이제 그 사람 그기도 못가고 저기도 못간덴 ᄒᆞ난. 가라 가라허멍 해도 노시 내갈디가 어디 신디허멍(하면서) 울루질로 [15] 아자 허난, 그 문지기가 뒤꿈치(뒤에서) 자락ᄒᆞ게 ᄒᆞ난, 그것이 잠자던 사람이 언듯 깨난 ᄒᆞ난, [16] 이제 깨난 보난 좁 미쳐 경 저승도 강보난(가서 보니깐) 구경헤여지고. 도새기 잡젠ᄒᆞ단 도새기도 안이 잡안 춤 법당에 들엉 경 하도 잘 믿엉. 잘 편안헸젠.

(1981. 7. 17. 안덕면 덕수리, 박춘화, 여 · 75.)

---

11) 고치물을 만들어서.
12) 가리키라고 하니까.
13) 오겠다 한다고 하니까.
14) 바늘로 된 산.
15) 앙탈부리면서.
16) 그러니까.

俗　　談

指導教授　金　永　和
班　　員　鄭　貞　植(國教·4)
　　金　仁　京(國教·2)
　　金　和　順(國教·2)
　　夫　璘　植(國教·2)
　　韓　美　娘(國教·2)

이번 調査는 德修里에 散在한 俗談의 蒐集에 그쳤다. 보다 濟州島 俗談의 樣相을 알기 위해서는 島內 여러 地域의 俗談을 수집하고, 그 전모를 概觀하는 일이 先行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作業과 基礎를 토대로 濟州島 俗談의 ① 主題(內容), ② 素材, ③ 形態, ④ 表現樣式을 살피고, 그것을 本土(陸地部)의 俗談과 비교한다면 濟州島 俗談의 특성과 양상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이 調査와 蒐集은 그런 전제 아래 그 첫 作業에 지나지 않는다. 本格的인 点檢과 檢討는 다음으로 미루고 수집된 俗談을 소개하는 것에 그친다.

〔ㄱ〕

• 가마귀면 흔 빗이냐.
• 가마귀 구름 가남 허듯이.
• 가시아방 봐도 조름으로 절할 때.
• 가시아방 외 먹음도 저만씩.
• 각시가 아까우민 처가집 정주막도 아깝다.
• 강정 아이덜은 울당 조팝 주키엔 ᄒᆞ민 그치곡, 곤밥 주키엔 ᄒᆞ민 그냥 운다.
• 거짓말도 외삼춘보다 나실 때가 셔.

• 거펑에 담을 흙 ᄒᆞᆫ줌 어슨 것이.
• 고냉이 새끼광 아은 괴는 데로 간다.
• 골맥인 가죽 부드럽나.
• 고운 년 잡아들이랭 ᄒᆞ난 솔찐 년 잡아들연.
• 꾼 값은 말 닷돼.
• 고춘 메운 맛 술은 취허는 맛.
• 쿳낭에 쿠지 나곡, 덩글남에 회초리 난다.
• 기는 놈은 아진 놈의 종.
• 깅이 새낀 나멍 잽진다.
• 개아시 떡 처먹젠 ᄒᆞ난 시리부터 벌려져.
• 개똥이 무스왕 피하는 게 아니고 더러와서 피한다.
• 갠 챌 내무리고, 챈 갤 내무리고.
• 까먹어도 ᄒᆞᆫ구덕, 안까먹어도 ᄒᆞᆫ구덕.
• 피 장시, 물 장시 먹어사 먹으랭 헌다.
• 골채 부지런.
• 귀신 위ᄒᆞ영 손해 웃나.
• 귀 존 동녕바친 셔도 코 존 동녕바친 웃다.

〔ㄴ〕

• 나ᄆᆞ를 말 사돈집 강생이가 ᄌᆞ나.
• 난 개 팡 무러든다.
• 남방에도 지어야 먹지.
• 느리 ᄉᆞ랑은 이서도 치ᄉᆞ랑은 웃다.
• 놈광 심백은 ᄒᆞ여도 개심이랑 말라.
• 노름뒤랑 당ᄒᆞ곡 먹는 놈뒤랑 당ᄒᆞ지 말라.
• 놈 싼 불에 겡이 잡나.
• 느가 ᄎᆞ므민 개가 똥을 춤주.
• 늙은이 가죽 질긴다.
• 늙은이 입에 뼌줄, 아이들 손에 뼌줄.

• 늙은인 배고팡 죽곡, 어린 애기는 배벨라정 죽어.
• 니 아픈 부릅시랑 ᄒᆞ곡, 눈 아픈 부릅시랑 ᄒᆞ지 말라.
• 내 집 가운은 놈의집 처녀에 매어 잇다.

〔ㄷ〕

• 담히어진 밭디 ᄆᆞ시만드느냐 .
• 돗당 탈 타먹기.
• 돗는 물에 채찍질 말라.
• 도둑은 ᄒᆞᆫ 죄, 일러븐 사람은 열 죄.
• 동생이란 것은 ᄯᅳ려보지 못한다.
• 두갓 살림이란 게 만날 때는 조코, 갈릴 때는 본숭만숭이라.
• 두 동새 사이엔 산 쇠다리 빈다.
• 들은 돌이셔야 놋이 붉나.
• 될 채 족박으로 안다.
• 땅이 되어사 물 안나.
• 똥고냥을 더럽덴 뻬어불랴.
• 똥 누어난 디 터도 없어.
• 똘은 돌 어슨 밤 아홉채 도둑이라

〔ㅁ〕

• 마진 놈은 좁을자도, 때린 놈은 좁 못잔다.
• 말이 조으민 둠비 사레 갓땅 비제기 상 온다.
• 말이 아니건 대답을 말곡, 질이 아니건 걷지를 말라.
• 말 존 집이 장 고린다.
• 말로 줘땅 되로 받젠.
• 먹다 주근 시러미나 기당 주근 밭갈쇠나.
• 먹돌도 궁기가 나사 쓰주.

• 먹지 구진 장이 오래 간다.
• 먼디 낭은 비추곡, ᄇᆞ딘디 낭은 괸다.
• ᄆᆞ음이 고민 옷 앞섭이 아문다.
• 몰똥도 지름 노앙 보끄민 돈다.
• 몰명 헌건 ᄆᆞ르친 말도 못ᄆᆞ라.
• 문전에 저울대가 셔.
• 물들어사 곰바리 잡나.
• 미운 놈 떡 ᄒᆞ나 더 주라.

〔ㅂ〕

• 바농을 중등메영 써 지느냐.
• 밥 먹음도 일 출림이라.
• 밧을 사커들랑 어염을 보곡, 사돈을 ᄒᆞ커들랑 집안을 보라.
• 밭이 조아야 씨가 사주.
• 보말쿡 먹어시냐 입이 베지근 허연.
• 보말이 괴긴듯이.
• 봄 빙애기 지 앞석 그너먹어
• 봉사왕 애기 어멍은 ᄆᆞ물수록 좋다.
• 봉수 아비 아들 낳지 말라.
• 불 난디 쏠 난다
• 비는 놈 우이 매ᄂᆞᆫ다.
• 비바리 늙으민 고레질 젼 산에 오른다.
• 벨은 날 믿지 말렌 헌다.
• 패 먹은 똥 ᄆᆞ치.
• 풀이 어디서 익어 웅질에서 익주.

〔ㅅ〕

• 사농 들어사 개ᄆᆞ리친다.

• 사돈칩광 칙간은 멀어사 ᄒᆞᆫ다.
• 사름과 족박은 신대로 쓴다.
• 삼년 ᄀᆞ물어도 ᄒᆞᆯ일 다 못허여.
• 삼 사월에 몰카죽도 버짝.
• 상뒷집에 가온 비바리 쓰지 못한다.
• 새끼 들리민 소재가 되나 못들리민 애물이 된다.
• 셔 우환, 어서 우환
• 서방 못들려도 울곡, 지집 못들려도 울곡.
• 서천에 소금도 좁아놔야 짜다.
• 설지 구진 애기가 낫이 굿나.
• 숭어 뛰민 복쟁이 뛴다.
• 시월 방목,이월 방둔.
• 식게 밥도 공꺼 아니다.
• 생이다리 ᄒᆞ나로 백놈 잔치 ᄒᆞ고 다리 ᄒᆞ나 남앗다.
• 쇠 눈이 크댄 해도,이 눈이 크다.
• 쉬민 썩어.
• 씨앗이엔 허난 부처도 돌아앉더라.
• 씨앗은 동세보다도 낫다.
• 씬 못 쇡여.

〔O〕

• 아기 날 때 ᄒᆞᆫ울이 어려와.
• 아시로 나느니 성의 좃으로 남만 못하다.
• 아이광 늙으닌 피는 디로 간다.
• 애기가 좋아 효자냐,부모가 좋아 효자지.
• 애기 한 게와시, 몰 한 장재.
• 애미 품도 들러본다.
• 어머니 젓으로 살았주,외할망 콩죽에 살아시랴.
• 얼굴 곤 년 속 궂어.

• 열 아기 나도 ᄒᆞᆫ 보람 으서.
• 오름 그늘에 난 ᄇᆞᆯᄌᆞ지.
• 오죽헌 도깨비 해낮이 나랴
• 옷 입으민 등ᄃᆞ신줄 알곡,밥 먹으민 배 분중 알라.
• 외조캐 피느니 돔질루앙 잡아 먹으라.
• 용사 들어신디,배엄사 들어신디.
• 우는 애기 젓을 주주.
• 웨바농 코 ᄐᆞ다지기 쉽다.
• 유월엔 아진 방석도 아니 무너 안나.
• 이른 이도 복, 늦인 이도 복.
• 입은 뜬 가죽.

〔ㅈ〕

• 잘ᄒᆞ여도 ᄒᆞᆫ 구숭, 못 ᄒᆞ여도 ᄒᆞᆫ 구숭.
• 잰 사름 성안 감시민,뜬 사름 원은 간다.
• 쨋박쇠가 제가남 아니허곡 ᄆᆞᆯ레 붙으느냐.
• 저 골중 아기 어슨 골충이랴.
• 제 폰 제냥.
• 조각 안경.
• 조근 ᄭᅰ기 가시 쎄다.
• 조는 집에 자는 메누리 든다.
• ᄌᆞ드는 사름 산지물에 가도 궁근 팡에 안나.
• 족바리 천상메 난다.
• 존 ᄀᆡ기 가시 쎄다.
• 좃 ᄍᆞ른건 써도,글 ᄍᆞ른 건 못써
• 죽은 조밤 까먹듯이
• 준 원순 싯곡, 안준 원순 웃다.
• 줄 사름은 새벤지룽.
• 중이도 ᄒᆞᆫ 고망 파라.

• 지름 소다동 꽤줏젱.
• 짐작은 무스거 되약세기.

〔ㅊ〕

• 채면쟁이 굶엉 죽곡, 호서쟁이 추워 죽는다.
• 채 탐혼 개ᄀᆞ치.
• 청국장을 장이엥 허며,다슴어멍을 어멍이엔 ᄒᆞ랴.
• 치마만 입으민 여자냐.

〔ㅎ〕

• 하늘 울엉 날 존날 이시멍, ᄇᆞ름 불엉 절 잘날 이시랴.
• 해 어신 날 ᄒᆞᆫ 시간 더 시쪄.
• 행실 베우렌 허난 홀어멍집 개 ᄯᅳ려.
• 헌 맥에 불채담듯.
• 헌 신에도 짝이 이서.
• 헛 개종질 말라.
• ᄒᆞ루 호서ᄒᆞ잰 코 닥끈다.
• ᄒᆞᆫ 배에 새끼도 아봉다롱.
• ᄒᆞᆫ 사름 ᄐᆞ라지민, ᄋᆞ섯가시가 ᄐᆞ라진다.
• 홀아방 삼년에 이가 서말,홀어멍 삼년에 꽤가 서말.
• 홉셍 ᄒᆞ영 그른 디 웃나.
• 홉으로 모은 인심 말로 판다.
• 후팔수 전팔수.
• 흉년엔 밭 풀젱마랑 입하나 덜 내라.
• 흥헐 놈 나민,망헐 놈 난다.

南濟州郡 安德面 德修里

〈提 報 者(伝承者)〉

오 열 보(女・90세),	이 빈 길(男・76세)
윤 추 월(女・70세),	김 정 옥(女・60세)
김 대 옥(男・57세),	송 태 병(男・52세)
김 동 오(男・43세),	이 창 진(男・40세)

信　　仰

指導教授 玄 容 駿
班　　員 申 德 一 (國教·4)
夫 淑 姬 (國教·3)
韓 敬 愛 (國教·3)
李 姬 京 (國教·2)
洪 姬 淑 (國文·2)

目　　次

Ⅰ. 概　觀
Ⅱ. 公認宗教
Ⅲ. 部落信仰
Ⅳ. 個人信仰
Ⅴ. 堂儀礼
Ⅵ. 其他 雜神

Ⅰ. 概　觀

德修里는 행정구역 상으로 濟州道 南濟州郡 安德面에 속하며, 安德面의 가장 서쪽에 있는 마을로 大靜邑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동쪽으로 산방산, 서쪽으로 단산봉을 끼고 있어 안개와 바람이 제주도의 어느 지역보다 심한 마을이다.

역사적으로는 1625년, 현재의 德修里를 중심으로 沙溪, 東光, 西光을 합쳐 「좌단리」라 하였으며 그후 德修里 만을 「새당(新一)」이라 개칭하면서 大靜郡에 예속됐었다. 1839년 행정구역 변경으로 安德里라 称하게 됐는데, 德修라는 명칭은 本里 출신 용문규 선생이 富村이 된다는 뜻에서 지어 붙인 이름이라 한다.

현재의 德修里는 東部落(큰가름), 西部落(덕수골), 上部落(도련동)이 합쳐진 自然部落이며 전체 332세대 중 312세대가 農家로 田作 위주의 농사

를 짓고 있으며 과수원(감귤)과 축산업도 성행하고 있다.

오래전부터 德修里는 島內에서 「불미마을(풀무마을)」로 널리 알려져 왔다. 그 풀무일이 정성이 많이 들고 힘드는 協同勞動인 때문인지 주민들은 伝統守護의 정신과 결속력이 대단히 강하다. 이러한 의식은 현재까지 살아 있어서 「안덕면 종합 체육대회」 같은 대외 행사에서는 적은 주민수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으며 한국방송공사 주최 탐라민속제의 우승과 더불어 1980년도에는 전국민속경연대회에서 「방앗돌 굴리는노래-」로 영예의 大統領賞을 차지하기도 하였다. 「불미일」이라는 마을 전체의 공동 직능에 대한 관심과 参与는 信仰面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현재까지 儒式部落祭를 계속 지내고 있다. 과거 「불미일」이 성했을 때에는 「불미제」를 꼭 드렸으며 그 당시에는 당도 무척 성했으나 현재는 이들의 이름만 전하거나 흔적이 남아 있을 뿐이다.

Ⅱ. 公 認 宗 教

현재 德修里에는 基督教 教会 1개소와 天地大安道 1개소가 있을 뿐이며 마을 경계선을 바로 벗어난 山房山 뒷면에 있는 절과 水雲教에 다니는 주민이 다소 있다. 따라서 마을의 역사와 더불어 전승해 온 오래된 寺刹이나 다른 公認宗教는 없다.

1. 基 督 教

1) 名称 : 대한 예수교 장로회 덕수 교회

2) 宗派 : 예수교 장로회로서 통합측에 속한다.

3) 沿革 : 1972년에 현재의 위치에 교회가 세워졌다. 교회가 세워지기 이전에는 몇몇 신도가 인근 部落인 仁城의 「대정교회」에 다녔다.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도 몇년 동안은 教職者가 달리 없이 방치된 상태로 운영되어 왔는데, 현재는 전도사 한분이 常住하여 교회일을 전담하고 있다.

4) 教会施設 : 1972년 200평의 대지 위에 25평의 불록 슬레이트 건물을 세웠다. 최근 16평 가량 되는 教職者 住宅을 교회 대지 안에 세워졌고, 전도사가 입주하여 生活하고 있다. 나머지 공터에는 귤나무가 심어져

있으며 수도와 전기 시설이 모두 갖추어져 있고, 또 교회 안에는 풍금도 있다.

5) 教職者 : 현재 목사는 없고 80년10월부터 전도사 玄永立씨(男1916年生)가 교회의 관리와 운영을 総括하고 있다. 玄전도사는 일정시대 중앙신학교를 다녔으며 오랫동안 제주시 오현중고등학교에서 교편을 잡다가 이곳으로 왔다. 가족은 제주시에 있고, 현재 부인과 함께 이 교회에서 생활하고 있다.

6) 信徒 : 처음 교회가 設立될 당시에는 30여명에 이르렀으나 거의가 他地로 이주해 버리고 현재는 男子 2, 女子 9명 등 모두 11명의 일반신도가 있다. 이들은 거의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원래부터 德修里에 거주했던 사람이 아니라 他道 등에서 근래에 이주해 온 사람이 대부분이다. 그외 15명 정도의 中高等学生이 고정신도로 되어 있어 유년부와 더불어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7) 事業 : 여러가지 여건에 비추어 특별한 사업은 벌이지 못하고 있으나, 야간에는 공부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책상까지 마련하여 시설을 개방하고 있다. 현재 10여명 정도의 中高等学生이 매일과 같이 나와서 自律学習을 하고 있다.

2. 天地大安道

1) 名称 : 天地大安道 德修 分教所

2) 系統 : 天地大安道는 鷄龍山 신도안에 본부를 둔 新興宗教로 약 30여년 전에 北濟州郡 旧左面 終達里 출신 부경선(女)에 의해 創始되었다. 부경선은 天地大安道를 創始하면서 教祖가 되어 「해월선님」이라 改名하였고, 현재 모든 의식에서 그녀를 「해월선님」이라 부른다.

3) 沿革 및 施設 : 7년 전에 양신용(女·71세)이 대지 150평을 기증하여 교당 25평과 식수간 15평을 지었다.

4) 教職者 : 양신용(女·71세)이 50세 때 고질병으로 100일을 앓다가 이 教에 들어와 10일 기도 후 병이 나아 信徒生活을 시작하였고, 그후 현위치의 터와 집을 기증하여 信仰生活을 해 오고 있다. 양신용씨는 安德面 沙渓里 출신으로 일본에서 40년전 帰国, 남편과 死別하였으며 현재 아들이 부산에 살고 있다.

5) 信徒 : 고정신도는 10余人 정도인데 대부분이 고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다. 신도 중에는 화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

6) 공사 : 신도들이 모여서 의식을 행하는 것을 「공사」본다고 한다. 공사는 음력으로 매월 5, 15, 25일에 행하며 음력 正月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은 生食을 한다. 공사 시간은 새벽 4시 또는 낮 12시부터 1시간 정도이며 순서는 아래와 같다.

① 単拜 : 해월선님像 앞에 절을 한번 한다.

② 합창예도 : 합창으로 맞추어 「기도소원문」「천지 평론가」「선양가」「찬양가」「영도가」「계운가」「信仰에 대한 질서」를 부른다.

③ 마지막으로「해월선님 어머님 경계의 말씀」을 합창하고 끝낸다.

공사를 볼 때는 모든 신도가 공사 옷을 입는다. 여자는 하얀 옷, 노란모자, 노란 방석이며, 남자는 하얀 옷, 흰 관, 흰 방석에 둥글게 앉는다. 모든 옷의 깃은 오른 깃으로 되어 있다.

7) 운영 : 3회의 공사마다 신도가 각자의 이름으로 성금을 내면 본부에 이것을 납부하고 본부에서는 다시 生活費와 事業費를 대어 준다.

8) 가치관 : 모든 시설과 기물에는 노란 색을 칠한다. 이는 하늘은 아버지요 땅은 어머니라는 運法에 기인하는 것으로 세상의 근원을 땅인 어머니에 두고 땅이 黃土라는 데서 황금색을 尊重하기 때문이다. 그 외 기도문 중 일부를 보면 다음과 같다.

① 기도소원문

천하유아 해월선 어머님전에 소원이올시다. 만천하에 중생들이 역전죄를 지을지라도 해월선 어머님의 은덕으로 많은 죄 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어머님 새로운 광채로 앞길을 기도하여 주시길 소원이올시다.

② 信仰에 대한 질서

해월선 어머님을 염원할 일, 나라에 충성할 일, 부모에 효도할 일, 형제간에 화목할 일, 예의를 마땅히 지킬 일, 비난한 자를 구제할 일, 어질고 바름을 지킬 일, 두 가지 마음을 먹지 말 일, 悪은 불을 재촉하는 것이니 반드시 소멸시키고 어짊을 향하여 우리 근본을 찾을 일, 미신을 영원히 타파할 일.

③ 해월선 어머님 경계의 말씀

남의 언권 뺏지 말 것, 남의 후론하지 말 것, 남에게 모략하지 말 것, 시기 투기하지 말 것, 자기 자찬하지 말 것, 내 몸에 사치하지 말 것, 말소리 자국소리 높이지 말 것, 사람의 복은 미신에 있지 않고 말과 예도에 있으니 주의합시다.

3. 水雲教

1) 名称 : 水雲教 安德支部

2) 沿革 : 1945年 丁丑年 설달에 충남에서 布教되어 왔다. 水雲의 「朴氏와 濟州에 인연이 있다」는 말에 따라 朴大好가 포교했다는 내력이 있다.

3) 寺刹 : 垈地는 郡有地로 현재 해마다 임대료를 내고 임대사용하고 있다. 건물은 법당 15평, 객실 18평, 조왕당 8평이 있으며 운영은 6개월에 한번씩 신도로부터 3,000원씩을 받아 반은 본부인 大田으로 보내고 나머지로 운영한다.

4) 教職者 : 萬虎 金安民(男, 65세)씨로 中文面 江汀里 월산동에서 출생했다. 6세때 부친을 여의고 편모슬하에서 자라다가 大靜邑 武陵里로 이사하여 20대부터 이 教를 믿기 시작했다. 현재 37년 째 같은 곳에서만 계속 信仰生活을 하고 있다.

5) 信徒 : 德修里에 약 50戶 정도의 고정신도가 있고 沙溪里에도 약 15戶 가량의 신도가 있다. 여자가 대부분이며 연령층으로는 40代에서 50代 사이가 가장 많다.

4. 佛 教

1) 名称 : 보덕암

2) 宗派 : 원효종

3) 寺刹 : 군유지에 법당 15평, 객실 18평으로 이루어져 있다.

4) 沿革 : 21년 전에 지금의 보살이 요양을 목적으로 직접 지어서 현재까지 살며 관리하고 있다.

5) 教職者 : 현재 常住하는 스님은 없고, 불공을 드리는 날에는 大靜 보현사에서 스님이 와서 공양한다.

6) 信徒 : 안덕, 대정 등지에 약간명이 있고 덕수리에 20호 정도가 분

포하고 거의가 여자들이다.

Ⅲ. 部 落 信 仰

마을 공동의 儀式으로서 지금도 1년에 한번씩 儒式部落祭인 別祭를 행하고 있으며 과거에는 農酺祭, 祈雨祭도 지냈다. 堂儀礼로 마을 공동의 儀式은 현재 행해지지 않고 있으나 오래 전에는 마을 동쪽 「군물왓」 지경에 「광정당」이란 本鄕堂이 있었으나 지금은 없어졌다. 현재 德修里에 分布하는 여러개의 당은 거의가 이 「광정당」에서 「가지 갈라간 당」들이라 한다.

1. 儒式部落祭

1) 別祭

① 祭名 : 別祭, 或은 別酺祭라고도 한다.

② 祭神 : 세 개의 紙榜을 써붙여서 祭를 지낸다.

里社之神位 : 德修里를 지켜주는 神, 즉 空間的인 의미를 갖는다.

太歲之神位 : 그 해를 편안하게 해주는 神, 즉 時間的인 의미를 갖는다.

別星之神位 : 콜레라, 마누라 등 궂은 병에서 마을을 구제해 주는 神,

③ 祭壇 : 동부락과 서부락의 중간지점에 별제터가 있다. 얕은 언덕으로 숲속에 가려져 있고, 숲의 주위는 밭이다. 별제터에는 돌로 제단이 마련되어 있으며 그 옆에는 가건물로 祭庁이 지어져 있고 光武 七年에 祭壇을 구입했다는 내용이 적힌 「諸賢紀念碑」라는 비석이 세워져 있다.

祭壇의 형태는 (그림 1)과 같다.

㉠은 太歲之神을 모시는 곳이다.

㉡은 里社之神을 모시는 곳이다.

㉢은 別星之神을 모시는 곳이다.

㉣은 別星之神의 下人을 모시는 곳이다.

㉤은 祭庁으로 ㉠ ㉡ ㉢ ㉣ ㉤ 등이 언덕 위에 위치해 있음에 반해 ㉤은 은 언덕 아래에 위치해 있다.

㉥은 「諸賢紀念碑」이다.

④ 祭의 管理 : 매년 음력 12월 25일에 열리는 部落 鄕会의 정기총회에서 部落祭를 発議하여 祭官을 선출하고 煙家米(밥해 먹는 집마다 내는 쌀)를 결정하는 등 祭의 準備를 한다.

⑤ 祭官 : 里長의 사회로 연령이 많고 德望이 있는 이를 祭官으로 선출한다. 喪主나 몸에 부스럼이 난 사람은 祭官이 될 수 없다. 生気에 맞는 사람을 고르는 일은 없으나 각 姓氏를 골고루 뽑는 것을 原則으로 한다. 이때 뽑는 祭官은 初献官, 亜献官, 終献官, 献官豫差(豫備 献官), 典祀官, 執礼, 大祝만 뽑고 나머지 小祭官은 執礼가 지명한다. 小祭官은 贊者, 謁者, 奉香 三人, 奉炉 三人, 奉酌 三人, 司樽 三人, 賛酌 三人, 飯監, 掌牲令 등인데 飯監과 掌牲令은 下人으로서 一人이 담당한다. 동네 下人은 약 30년 전까지도 있었다.

⑥ 祭日 : 立春 後 上丁日로 子時에 行祭한다.

⑦ 立祭 : 立春 後 첫 甲日에 立祭에 들어가면 4일 동안 모든 祭官이 祭壇의 祭庁에서 合宿 斎戒한다. 立祭日에는 和順里 「하강물」을 소 1마리에 2 허벅을 실어다 쌀과 祭器 등을 씻는다. 물을 길어 올 때에는 허벅을 실은 멕(멱서리)에다 「숨베기」를 꺾어 놓아 온다.

祭官들의 식사는 각 제관의 집에서 끼니 때마다 祭壇으로 날라가는데 길가에서 「밥 ᄋᆞ져 왔수다」고 소리치고 놓아두면 祭官들이 갖다 먹고 빈 그릇은 다시 길가에 갖다 놓는다. 이때 국은 먹지 않는다.

立祭 뒤에 마을에서 장사가 나면 다음 丁日로 미룬다.

⑧ 祭物 : 立祭 前에 부이장이 주동이 되어 家戸마다 煙家米를 받고 그것을 팔아서 準備한다. 煙家米는 10여년 전까지는 보리쌀 大升 1되 정도로 계산됐으나 현재는 里의 운영비로 準備하고 있다.

準備하는 祭物은 稲粱黍稷 대신 곤 쌀(大米) 3되로 쪄낸 곤메 二器, 좁쌀(小米) 3되로 쪄낸 조메 二器와 鹿脯(과거에는 사냥군을 시켜 노루를 잡아다 썼으나 현재는 쇠고기를 대신함), 粟黄, 芹菹, 荊鹽, 魚醢, 弊帛, 犧牲(돼지 3마리를 썼으나 지금은 1마리로 함), 毛血(돼지 두 귀 사이의 털과 처음 나오는 피) 등이다.

⑨ 陳設図 : 〈그림 2〉와 같다.

⑩ 行祭 : 執礼가 부르는 笏記에 따라 行한다. 笏記는 아래와 같다.

謁者引祝及諸執事 **入就壇前拜位** 北向立四拜 祝以下皆四拜 鞠窮拜 興 拜 興 拜 興 拜 興 平身 詣盥洗各就位 謁者引獻官入就位 北上西向立 謁者進初獻官之左 白有事 謹俱請行事 四拜 獻官皆四拜 鞠窮拜 興 拜 興 拜 興 拜 興 平身 **行奠弊礼** 謁者引初獻官 詣盥洗位 西向立 搢笏 盥手 洗手 執笏 引詣里社神位前 北向立 跪搢笏 三上香 執弊 獻弊 執笏 俯復興平身 次詣太歲神位前 北向立 跪搢笏 三上香 執弊 獻弊 執笏 俯復興平身 次詣別星神位前 北向立 跪搢笏 三上香 執弊 獻弊 執弊 俯復興平身 引降復位 行初獻礼 謁者引初獻官 詣里社**樽**所 西向立 執**樽**者挙幕酌酒 引詣神位前 北向立 跪搢笏 執酌 獻酌 執笏 復伏興平身 次詣太歲**樽**所 西向立 執**樽**者挙幕酌酒 引詣神位前 北向立 跪搢笏 執酌 獻酌 執笏 復伏興平身 次詣別星**樽**所 西向立 執**樽**者挙幕酌酒 引詣神位前 北向立 跪搢笏 執酌 獻酌 執笏 復伏興平身 詣読祝位 小退 跪搢笏 執祝 獻祝(여기서 祝文을 읽음) 執笏 復伏興平身 引降復位 行亜献礼 **行終献礼**(亜献礼와 終献礼는 **祝文** 읽는 과정만 제외하면 初献礼와 同一함) 献官皆四拜 鞠窮拜 興 拜 興 拜 興 拜 興 平身 **徹籩豆** 祝進徹籩豆 祝取祝弊 **燎於坎** 四拜 献官皆四拜 鞠窮拜 興 拜 興 拜 興 拜 興 平身 謁者進初献官之左 白礼畢 遂引献官出 祝及諸執事 俱伏拜位 四拜 祝以下皆四拜 鞠窮拜 興 拜 興 拜 興 拜 興 平身 以此出

⑪ 飮福 : 典祀官의 責任 아래 바닷 고기와 犧牲의 내장을 삶아서 祭場에서 식사를 하며 鄕首宅에는 반을 보낸다. 돼지고기는 班별로 나누어 주며 최종적인 정리는 부이장이 한다。

⑫ 祝文 : 특별한 양식은 없고 해마다 그 해의 마을 사정에 맞는 祝을 새로 지어서 쓰는데 하나의 祝文에 三神位에의 祝願이 모두 들어가게 한다. 祝文의 例를 보면 아래와 같다.

㉠ 祝文 例1 : 厚德載物 一城之主 歲德方熙 **無不周載** 明明維神 照臨下土 **司我生靈** 莫匪爾極 卜択吉辰 伏乞神明 **敢竭微誠** 特垂陰隲 遂被千 怪 播厥百穀 掃災降祥 転禍為福 使我群黎 永歲安楽 **謹以** 醴斎粢 牲盛幣 **祇薦于神** 尚饗

㉡ 祝文 例2 : 於赫靈神 鎭玆疆土 於熙歲德 無不周載 明明維神 照臨下界 立我烝民 莫非爾極 玆値良辰 謹具非薄 盛矣乎德 特垂陰隲 調雨順風 無原無隰 豊滋百穀 漸蕃八畜 凡百邪祟 四外駆遂 掃災降祥 転禍為福 使我

群黎 永歲安樂 謹以醴斎粢 牲盛弊 祇薦于神 尙饗

⑬ 祭服 : 祭官은 각자가 만든 靑衿을 입고 儒巾을 쓰고, 행경을 맨다.

⑭ 豫兆 : 行祭中이나 後에 꿩소리, 말의 울음 소리가 들리면 吉하다고 하고 소의 울음 소리가 들리면 凶하다고 한다. 立祭日에 날씨가 좋아도 吉하다고 한다.

⑮ 祭器 : 평소에는 봉하여 부이장이 따로 보관한다.

⑯ 參加者 : 女子는 식사를 마련하기 위하여서만 출입할 수 있다.

2) 農 祭

① 名称 : 農 祭

② 祭神 : 해에 따라 다르게 하나 보통 太歲之神位로 한다.

③ 祭日 : 조파종이 끝난 후 丁日이나 辛日 子時에 한다.

④ 由来 : 특별한 유래는 전해지지 않으나 그 해에 農事를 좋게 해주십사고 비는 祭이다.

⑤ 祭壇 : 別祭壇과 같은 장소를 쓰며 祭官, 祭物, 行祭는 거의 비슷하다.

⑥ 廢止 : 43年 前에 없어졌다.

3) 祈雨祭

① 名称 : 祈雨祭

② 祭神 : 雨使之神之位

③ 祭官 : 有德한 사람으로 献官을 한사람 뽑고 大祝, 執礼, 贊者, 奉炉奉香, 奉爵, 可樽등 小祭官으로 지낸다.

④ 祭場 : 일정한 장소는 없고 때에 따라 접하는데 보통 산방산 아래의 〈너른태역밭〉에서 한다.

⑤ 禁忌 : 祭를 지내는 外에 마을이나 집안에서 특별한 정성은 없다.

⑥ 廢止 : 없어진지 65년쯤 된다.

4) 불미제

① 名称 : 불미제에는 두가지가 있는데, 보습을 만들기 위한 풀무일 때는 「보습불미제」라 하고 솥을 만들기 위한 풀무일 때는 「솟불미제」라 한다.

② 由来 : 불미제에 따른 특별한 유래는 전하지 않는다. 다만, 業主인 物

主가 〈불미대장〉에게 모든 사항을 인계하며 조금만 잘못되어도 허사가 되어 버리는 일이므로 정성을 드려 풀무일이 잘되게 하고 또 일군들을 잘 먹이기 위한 일이라고 말한다.

③ 祭神 : 紙榜을 쓰거나 祝을 告하는 일도 없다. 祭物을 차려 놓고 절만 한다.

④ 祭場 : 祭를 지내기 위한 특별한 장소는 없다. 보통은 온도를 높이기 위한 바람을 만드는 기구인 발동기 밑을 정결하게 하기도 하고, 정성이 좋은 물주는 집에서 따로 행하기도 한다.

⑤ 祭物 : 보습불미 때는 간단하게 메, 갱, 해어 정도로 하고 솟불미일 때에는 犧牲으로 돼지를 한마리 잡는다.

2. 巫式部落祭

現在 修德里에서 巫式部落祭는 行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몇백년 전에는 마을 동쪽 「군물왓」지경에 「광정당」이라는 아주 큰 당이 있어서 여기를 本鄕堂으로 삼고 대부분의 마을사람들이 다녔다. 「광정당」에 관하여 내려오는 말들을 종합해 보면 아래와 같다.

오래전에 行人이 지나가다가 비를 만나 「괴」(岩穴)에 들어가 피했다. 오래 기다려도 비가 개이지 않아서 行人은 「괴」안에서 심심풀이로 土偶을 만들어 서로 음식도 나누어 먹고 이야기도 하며 놀았다. 비가 개어 나가면서 行人은 土偶보고 「나 가불걸랑, 늘랑 몰다리나 먹엉 살라」하니, 그로부터는 말을 탄 채로 이 앞을 지나가면 반드시 말의 다리가 절었다. 그래서 行人들은 이 앞에 오면 下馬를 해야 했다.

어느날 永川 李牧使는 이 말을 듣고 괴이히 여겨 직접 말을 타고 지나가보니 과연 말다리가 절었다. 이목사는 곧 말을 베어 이곳에 묻으니 「몰다릿도」라 하기도 했다. 이상히 여긴 이목사는 무당에게 굿을 하여 神을 보이라 했다. 무당이 큰 굿을 벌려 해가니 큰 대맹이(큰 뱀)가 꿈틀꿈틀 나타났다. 이목사가 칼로 그 뱀을 베어 버리니 그 후로는 당이 없어졌다. 이 때 뱀의 피가 倉川, 沙溪, 德修里의 도용남밭당으로 날아 와 갈라져 각각 당이 되니 그 당들은 지금도 있다.

Ⅳ. 個人信仰

1. 土神祭

1) 名　称 : 土神祭

2) 祭　神 : 土地之神

3) 祭　官 : 집안에서 글을 아는 사람이 직접 하기도 하고 글을 아는 사람이 없거나 할 수 없으면 이웃 사람에게 부탁하여 한다. 祭官은 남자 1사람이다.

4) 祭日 : 家族의 福德에 맞게 択日하여 한다.

5) 祭物 : 메, 시루떡, 날생선, 미나리, 생강주, 청주, 과실 등을 차리는데 정성을 드리기 위하여 하룻밤 이슬을 맞힌다. 젓갈과 갱은 하지 않는다.

6) 行祭 : 여자가 음식을 차리면 祭官이 青衿에 儒巾을 쓰고 儒教式으로 祝文을 告하여 行祭한다.

7) 禁忌 : 비는 사람이 병난 데는 안간다.

2. 백종재

畜産을 하는 사람들이 백중날인 음력 7월 14일 子時(15일 辰時)에 행하는 것으로 약 50년전까지 했었다.

메와 채소를 준비하고 犧牲으로 닭 1마리를 올렸다. 장소는 「맹감」을 지내는 「동ᄀᆞ지」라는 곳에서 行했다.

3. 맹감

한 집안의 1년 동안의 행운을 빌기 위해 하는 굿이다. 정초에 택일을 하여 심방을 빌어서 들에서 행하는데 아주 오래전에 없어졌다.

4. 삼승할망

아기를 잉태시켜 주고 해산시켜 주고 탈없이 키워 주는 産神이다.

초사흘, 초이래, 열사흘, 열이레, 스무사흘 스무이렛 날에 비는데, 상 위에 백지를 깔고 그 위에 메 3보시기, 향불, 쌀 1보시기, 맹실(실 1타래)을 차리고 상 밑에는 産母의 속치마를 놓는다.

難産인 경우에는 변문도 열고 「쇠질멧가지」를 지붕 위에 올리는 관습도 있다.

5. 마누라

마누라는 마마神으로 이 神을 치송하는 것을 마누라배송이라 한다.

마누라는 「사흘 솟고 사흘 들어가고 나흘 정성 드리면 나간다」고 한다. 그래서 마마를 앓아 열흘째가 되면 심방을 데려다가 빈다. 이것은 다른 집으로 치송해 버리는 것이다. 빌 때는 쌀 3보시, 채소 1보시, 메 1그릇을 상에 올리고 빌기가 끝나면 주위의 밭 정결한 곳에 그 음식물을 갖다 놓아 치송한다.

마누라를 할 때는 식사때 상을 차려 먹지 않으며 제사 때는 절도 하지 않는다.

마누라가 마을 아래쪽으로 들어오면 오래고 위로 들어오면 빨리 끝난다고 하는 伝承도 있다.

6. 뒷하르방(송도채비)

흔히 「뒷하르방」, 「송도채비」라 하는데, 사람에 따라 「김참봉」「김영감」「김치베기」「송영감」이라 부르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도깨비神으로 관념되고 있는 神이다.

이 神은 과거에 풀무일이 성했을 때 풀무일을 하는 집마다 모셔 왔다. 그러니까 이 마을의 家家戸戸마다 모셔온 셈이다. 모시는 장소는 뒷우영(뒷곁)이나 장팡뒤(장독대). 모시는 형태는 여기에 깎은 돌로 젯상처럼 만들어 놓아 모시는 집, 띠를 깔아 그 위에 시루를 덮어 놓고 〈주젱이〉를 덮어 모시는 집, 고소리(소줏고리)를 엎어 놓아 모시는 집 등 여러 가지 형태

가 있었다.

모시는 방법은 名節이나 祭祀 때에 本祭가 끝나면 잡식(祭床 위의 祭物을 조금씩 떠 모음)하여 이 神을 모신 곳에 던지는 것이 일반이고, 집안에 우환이 있을 때는 대죽떡(수수떡)을 만들어 그 앞에 올리기도 했다.

그래서 어느 집안이 不運이 계속돼 가면 「그 집의 도채비 잘못 위호지 아니허여신가」, 집안이 잘되어 가면 「저 집은 도채비 잘 위허여신가」하고 동네 사람들이 餘談 삼아 이야기하곤 했다.

이렇게 위해 오던 것을 약 15年前 宋氏宅에서 門中会議를 열고 議論하여 일제히 廢止해 버렸다. 理由는 그 由来도 正確히 모르는 것이니 廢止하는 것이 좋다는 意見의 一致를 보았기 때문이다. 이 神은 宋氏 집안뿐 아니라 다른 집안에서도 다 위해 왔다.

이 神을 모시게 된 由来에 대해선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한다.

옛날 몇 대 조상 때인지는 모르지만 이 마을 宋氏宅에 어떤 下人이 있었다. 이 下人이, 병인지 무엇인지 確実한 것은 모르지만, 주인 집의 큰 우환을 고쳐 공을 세웠다. 주인이 고마워하며 「이 공을 어떻게 갚느냐?」고 하니, 下人은 「내가 죽거든 장팡뒤(장독대)에 모셔서 대죽떡(수수떡)이나 해서 위해 달라」고 하므로, 그 공을 잊지 않기 위해서 모시기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가 전하는 정도로 지금은 이 神의 性格이 거의 잊혀지고 있으나 본래 풀무일을 守護하는 도채비(도깨비) 神인 것으로 판단된다.

7. 기 타

그외에 안칠성을 모신 집, 문전제(崇祖祭때 지내는 門前祭 말고 新年에 単独으로 지내는 門前祭), 조왕제를 지내는 집도 있으나 극히 그 수가 적다. 1년에 한번 정도 집에 탈이 없으라고 지내는 것이다.

崇祖祭는 일반적으로 다른 마을에서 지내는 법과 큰 차이가 없다.

V. 堂儀禮

德修里 住民들에게는 個人信仰과 마찬가지로 巫俗儀礼가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적다. 그러면서도 堂은 다른 마을에 비해 다소 많은 편이다. 확인된 堂

만도 광정당, 도용남밭당, 앞승물, 북문, 웃승물, 보시터숭물 등 6個所에 이르며 이외에도 한 두 個所는 더 있을 것으로 추정 된다.

당이 이렇게 6.7개소나 있으면서도 마을사람에게서 巫俗儀礼가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는 것은 各堂에 다니는 사람이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한다. 실제로 堂이면서도 堂이라 이름한 곳이 1個所 밖에 없으며 대부분의 住民이 堂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실히 모르며 알아도 한 두 군데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堂에 다니는 단골이나 메인심방도 확연하게 알려지지 않고 있다.

1. 심 방

德修里에는 심방의 職能을 가진 사람으로 김월화 (女·66세)가 있다. 그녀는 德修里 출신인데 다른 마을에 가서 오래 살다가 최근에 돌아왔다.

堂에 다니는 사람들 대부분이 堂에 갈 때 심방과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혼자 가서 빌고 오기 때문에 김월화씨도 마을의 당의 내력을 잘 모른다고 한다. 그녀는 주로 농사품팔이로 살아가며 가끔 다른 마을에 「족은심방(小巫)」으로 나가 굿을 하여 생계를 보탠다.

그녀는 沙溪里에서 가지 갈라온 당인 「청밭할망」에만 다니고 관리하는데, 그녀가 말하는 청밭할망의 본초는 다음과 같다.

「사계 큰물머리 큰당으로 가지 갈라온 사대기 낭알로 좌정하신 청밭할마님」

堂儀礼는 ① 날국섬김 ② 식솔연유닦음 ③ 문을림 ④ 축원 ⑤ 하직인사의 순서로 진행한다.

식솔연유를 닦을 때는 딸은 告해 올리지 않고 아들만 告해 올리며 문을림은 「상괴지기 불렁 상굇문도 을려줍서. 중괴지기 불렁 중굇문도 을려줍서. 하괴지기 불렁 하굇문도 을려줍서. 동창괴지기 불렁 동창문도 을려줍서. 서창괴지기 불렁 서창문도 을려줍서. 남창괴지기 불렁 남창문도 을려줍서. 천지중앙 황창 숫문도 을려줍서」라는 사설로 하고, 축원은 「관송에 빠를 일도 들게 맙서. 다 굿인 일랑 제초시경 좋은 수년 나수아 줍서. 굿은 수년일랑 맨숭시켜 줍서. 억만금전 나수앙 이 자손덜 먹을 년 입을 년 나수아 줍서. 云云」이라 하고 하직인사는 철변이 끝난 다음에 「이 ᄌᆞ손덜은 하직허염수다. 할마님이랑 좌정헙서」라고 한다고 한다.

2. 도용남밭당 (ᄃᆞ르못당)

마을 중심에서 북쪽으로 1.5㎞정도 떨어진 곳에 있다.

서부락 사람 서넛과 상부락 사람이 많이 다닌다.

원래는 ᄋᆞᆫ드렛당이어서 여드렛날 다니는데, 지금은 일뤠(七日)에도 다니고 丑日에도 다닌다. 원래 일뤠당은 神이 「초일뤠는 앉앙 바래고 열일뤠는 상 바래고 스므일뤠는 누웡 바랜다」고 하여 神이 재물을 많이 바란다고 전한다.

보통사람은 메 3器, 떡 3器, 海魚 3마리 감주(청주), 백지, 물색(色布), 멩실(絲)을 가지고 가 올리고 빈다。兎山에서 온 사람은 丑日날에 다니는데 上메 1器, 中메 4器, 합계 5器의 메를 올리고 나머지 제물은 위와 같다.

堂은 古木과 바위로 되어 있고 3개의 「괴」가 있으며 입구를 제외하고는 나무로 둘러싸여 있다.

3. 앞숭물 (큰물당, 청밭할망당)

沙溪에서 가지 갈라 온 일뤠당으로 「앞숭물」이라고 하며 「큰물당」「청밭할망」이라고도 한다.

덕수리에 들어온 지는 2代가 다 안되며 尹氏가 上단골이고 宋氏도 다닌다.

사발메 1器, 보시메 3器, 海魚 4마리, 흰떡(소금 안넣은 돌레떡), 모밀떡, 청국, 물색, 실 1타래, 백지, 책지 1장, 계란, 과일 등을 올려서 빈다. 술은 안쓴다.

4. 북문 (족은숭물)

북문의 바로 앞 족은숭물에 있어서 「북문」혹은 「족은숭물」이라고 한다.

旌義에서 가지 갈라온 堂으로 일뤠당이며 兎山里에서 移住해온 1家口 만이 다닌다고 한다.

매를 1서답바구리 하고 가는데 당에서는 비념 끝에 콩과 팥을 뿌린다. 이것은 허물이나 부스럼이 나지 말라고 하는 것이라 한다.

5. 웃숭물 (뒷숭물)

북문 옆에 있으며 「웃숭물」 또는 「뒷숭물」이라 한다.

대정골 산짓堂에서 가지 갈라 온 堂으로 「일뤠중저할마님」을 모신 堂이다.

人家와 인접하여 있고 커다란 바위와 오래된 나무로 둘러싸여 있으며 堂木은 동백나무이다.

현재 다섯 가호 정도 다닌다고 한다.

Ⅵ. 기타 雜神

이번 조사에서 얻은 「도채비」 기타의 妖怪에 대한 伝承을 記述하면 다음과 같다.

1) 봄에 고사리 꺾으러 간 덕수여자가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오는데 덕수로 내려오지 않고 대정골로 내려갔다. 그 마을 사람들이 정신나간 여자가 마을부근 가시덤불에서 헤매고 있는 걸 보고 큰소리로 집이 어디냐고 물으니 정신이 돌아와 덕수로 돌아 왔는데 오래 못살고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다. 이는 도채비에게 홀린 것이다.

2) 쌀(粢)에는 방애쌀과 꿩쌀이 있는데 불이 뽑아 나올 때 둥굴게 나오는 것을 방애쌀이라 하고 줄로 뽑아 나오는 것을 꿩쌀이라 한다. 불이 사람에게 날아와 맞으면 「쌀맞았다」고 하는데, 쌀맞은 사람은 죽는다.

3) 어떤 사람의 아기가 죽어 이 마을 가까이 묻었는데 그 어머니도 아기 무덤 곁에서 따라 죽었다. 그 후로 이 아기 무덤이 있는 곳에서는 비가 오려면 밤에 「웡이자랑 웡이자랑」하고 아기 구덕 흔드는 소리가 나고 아기우는 소리와 달래는 소리가 난다. 그래서 여기를 「웡이자랑 동산」이라 한다.

4) 송도채비란 것이 있는데, 이것은 송씨 집안에 참봉벼슬을 했던 웃대조상이 진도 벽파진에서 도채비를 져 와서 모심으로써 시작된 것이다. 어떤 이가 크게 정성껏 위하다가 하루 안 위했더니 집에 불이 났다. 또 조를 파종하는데 바빠서 안 위하고 급히 밭에 갔더니 밭 네귀에서 불이 훨훨 탔다. 큰일났구나 하여 급히 집에 와 보니 집 네귀에도 불이 훨훨 타고 있었다 한다.

도채비는 위하기 시작하면 그 도채비는 딸 뒤를 따라간다고 한다. 그래서

그 집안의 딸은 시집가면 다시 도채비를 위하기 마련이다. 외방에 가면 「덕수송도체비」라 많이 하는데 이는 송씨 집안에서 불미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이다. 쇳물을 녹여 펄렁거릴 때는 도채비 같기도 하다. 도채비는 아래 (下半身)는 없고 위만 있는데 「벌립」을 쓴다고 한다.

(以上은 金宋湖 (男 · 57세)씨의 口述)

5) 이장하르방이 개를 데리고 西広里 아래에 있는 「굉이동산밭」을 보러 갔는데 중문 근처의 큰길에서 정신을 잃고 걷고 있었다. 마침 지나가던 동네 사람이 「어디 감서」 하고 큰 소리를 지르니 「밭 보레 감서」 하고 대답하여 이상하게 여기고 집까지 데려 왔는데, 오래지 않아 죽었다. 이는 도채비에 홀린 것이었다.

6) 이 마을 어떤 이가 낮 열두시에 「웃녀븐드르」에 밭을 보러 갔는데 밤 열두시가 되어도 안돌아 왔다. 친척들이 이름을 큰소리로 부르며 올라가 찾아 보니 「곶자왈」 (산속의 가시덤불) 속에서 대답하는 소리가 들렸다. 들어가 보니 가시덤불 속에서 헤매고 있었고 얼굴은 피범벅였다. 왜 그러느냐고 했더니, 아무 것도 보이지는 않는데 정신이 아득하여 이 속에 들어와졌다고 했다. 도채비한테 홀린 것이 분명하다.

7) 도채비불이 집에 걸리면 집안에 액운이 일어난다고 한다. 아흔살 난 한 노파가 밤에 소피를 보려고 밖에 나와보니 「박거리 (바깥채)」에 불이 세개가 펠롱펠롱하며 왔다갔다하고 있었다. 이 중 하나가 돼지집에 앉았다가 사라졌다. 다음날 아침에 보니 돼지가 죽어 있었다.

8) 재작년에 안덕 우체부가 덕수에서 화순까지 가야 하는데 술을 마시다가 저녁에 출발하였다. 다음날에도 도착하지 않아 찾아보니 수금한 돈과 가방을 들고 자전거까지 끌고서 모슬포 공동묘지에서 정신을 잃고 쓸어져 있었다. 그 길은 자전거는 탈 수 없을 정도로 나쁜 길이다. 나중에 물어보니 어떤 여자가 「같이 갑주」하여 유인하므로 계속 같이 걸었다고 했다. 그 여자는 귀신이다.

9) 모슬포 비행장 동네는 외와 수박을 많이 해서 보리를 가져가면 바꿔 주

곧 했다. 봉석씨 형제가 외와 수박을 말에 싣고 오게 되었는데 저녁 어스름에 「개죽은 못」에서 쉬었다. 아우는 먼저 들어오고 형이 쉬다가 반대편을 보니 여자가 나와 서답 (빨래)을 하고 있었다. 빨래방망이 두둘기는 소리까지 확실히 났는데 여자가 갑자기 풍덩 소리를 내며 물로 빠져 들었다. 이 소리에 말이 놀래어 울며 달아나고 형은 아차,귀신이구나하고 느껴서 집에 왔는데 새벽녁에야 도착했다. 옷이 다 찢겨 있었고 어디로 어떻게 온지도 알 수 없었다. 말은 찾지 못했다.

보통 장마에 더욱 귀신이 많이 나타난다고 하며 말은 귀신을 보고 매우 놀래는데 소는 아무렇지도 않는다고 한다. 때문에 밤에 마소를 몰고갈 때는 소는 사람 앞에 말은 사람 뒤에 몰고 다녀야 한다.

10) 「베릿돌놔진밭」 지경에 가서 소를 먹이는데 키가 아주 작고 팔뚝이 좋고 이빨이 삭삭하게 생긴 난장이가 나타나서 같이 얘기하며 놀다가 씨름을 하자고 했다. 낮부터 저녁 때까지 줄곧 씨름을 했는데 한번도 이기질 못했다. 이 후에 곧 죽었다.

이런 놈들을 「그스렁닥세」라고 하는데 이는 생이 (참새)가 죽은 것이다.

11) 강씨댁 어느 할머니가 「곶바구리물통」에 빨래하러 가는데 홍짓대 (홍두깨) 만한 구렁이가 「팡돌」위에 앉아 있었다. 강씨댁 할머니가 이를 보고 얼른 집에 돌아와 쌀 일곱 알을 하얀 치마 위에 넣어 가서 「우리집 조상이거들랑 이레 들어옵서」 하니 구렁이가 슬그머니 치마 위로 기어 들어왔다. 그대로 들고 와 고팡 (광)에 모셨다. 제사 때도 문전제 뒤에 고팡제를 지내며 모시니 큰 부자가 됐다. 사람들이 「강칩할망이 부군 잘 위하니 잘됐다」고 한다. 아들대(代)까지도 괜찮게 잘살았는데 손자가 이를 다 부셔 버리니 그 집이 망하기 시작했다. 손자는 지금도 살아 있다.

〈이상 金東權 (男 · 45세) 씨 口述〉

12) 「중문무우남밭좌수」가 향교 출입시마다 산방산 앞에 오면 알 수 없는 아가씨가 인사를 했다. 눈 정기가 좋은 좌수는 이상히 여기고 하루는 가죽 옷을 속에 입고 도포를 밖에 입어 「군물」을 지나는데 또 아가씨가 인사를 했다. 좌수가 「둥뗑이에 돌아져 보라」고 하니 아가씨가 등 뒤에 매달렸

다. 이 때 재빨리 말 꼬리에 꽉 묶어 중문까지 내달렸다. 집 앞에 다달아 「검둥이야 봐라」고 버럭 고함을 치니 개가 달려들어 아가씨를 물었다. 죽은 걸 보니 여우였다. 지금도 「여이못」이란 地名이 있다.

13) 「새붙었저」라고도 하고 「접새 (接-)」라고도 하는데 이는 鬼入껏이 범접했음을 말한다. 새붙은 사람은 죽지도 않고 계속 아프며 광란을 일으킨다.

14) 62년도에 20대 청년 두명이 눈을때 사계에서 모슬포로 가게 되었다. 가다 보니 어떤 여자가 앞서서 가는데 아무리 가도 따라가지를 못했다. 중간지점인 「각시무덤」에서 셋이 쉬며 놀았다. 청년 둘이 먼저 떠났는데 한사람은 계속 갔고 한 사람은 가다가 여자와 더 놀다가 온다며 돌아갔다. 계속 가던 청년은 점점 정신이 흐려져서 멀리 불빛이 보이는데 와서 쓰러지고 말았다. 그 집은 제사집이어서 청년을 구해냈는데, 다음날 아침에 「각시무덤」에 가 보니 청년 하나가 무덤 앞에서 눈 속에 묻혀 죽어 있었다. 구조를 받은 청년도 나중에 정신 이상이 되었다.

15) 기상 (아기들만 묻는 무덤) 밭에서는 비가 오려면 「웽이자랑」 하고 애기구덕 흔드는 소리나 애기 우는 소리가 들린다. 밤에 그런 소리를 듣고 나가 그 속에서 헤매다 돌아와 죽은 사람이 있다.

〈이상 金宋湖, 金東権 兩氏 口述〉

16) 「죽산이」란 것이 있는데 이는 잘못 죽은 귀신, 비명에 죽은 귀신을 말한다.

17) 화일 (火日)에 집을 일 경우, 작업이 다 끝난 후 지붕위에서 오줌을 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릇에 물을 떠서 지붕 위에 올려 놓아야 한다. 그래야 화재가 발생하지 않는다.

18) 제삿날 정성을 극진히 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은 정성을 하느라고 오줌을 눌 때 「개팡낭 공젱이」로 성기를 받쳐 들어서 소변을 보았다고 한다.

19) 「그신새」란 것이 있는데, 밤에 나타난다. 이것은 하늘과 땅이 맞붙

을 정도로 큰 놈인데, 사람 모양으로 가랑이를 벌리고 서 있는 것이다. 사람이 그 밑을 지나가면 꼭 죽는다. 이 놈이 사람더러 가랑이 밑으로 지나가라고 하여 거부하면 씨름을 하자고 한다. 용감하게 덤벼서 이기면 괜찮고 지면 큰 우환이 생긴다. 노인들은 밤에 회심 (갈대꽃을 모아 가늘고 길게 묶은 불을 붙여 들고 다니는 것)을 들고 다니다가 이것으로 그 놈의 코를 찔러 쫓어뜨리고 지나간다고 한다. 이놈을 「그스텅닥새」라고도 한다.

20) 7사람이 밤길을 가는데 길을 못 찾고 같은 길만 계속 뱅뱅 돌다가 결국은 낭떠러지에 이르게 되었다. 이상하게 여겨 돌가루를 빻고 돌로 손가락을 찍어 피를 내어 보니 7사람 모두 「골창」속에 박혀 있었다. 그곳은 목적지에서 200 m정도 떨어진 곳이었다.

〈제 보 자〉

金文玉 (男·62세)
玄永立 (男·64세)
金安民 (男·65세)
양신용 (女·71세)
金栄湖 (男·57세)
金東権 (男·45세)
오열복 (女·92세)
김월화 (女·66세)
윤추월 (女·66세)

遺物·遺蹟

指導敎授：沈 汝 澤
班 員：梁 仁 碩(國敎·4)
金 東 根(國敎·4)
李 京 姬(國敎·3)
洪 模 娜(國敎·2)
尹 信 子(國敎·2)
吳 京 子(國文·2)
梁 安 順(國文·2)

目 次

Ⅰ. 指定文化財
1. 팽나무 Ⅰ
2. 팽나무 Ⅱ
3. 팽나무 Ⅲ
Ⅱ. 非指定文化財
1. 불미작업

Ⅰ. 指定文化財

1. 팽나무 Ⅰ

1) 樹 種 : 상수리과
2) 樹 命 : 약 250～300년
3) 나무높이 : 10m
4) 둘 레 : 1.8m
5) 所在地 : 안덕면 덕수리 서부락 (속칭 작은 동산)
6) 所有者 : 덕수리 공유

※ 일제强占時에는 군인들의 총의 과녁 노릇을 해왔다고 전해진다.

2. 팽나무 Ⅱ

1) 樹　　種 : 상수리과
2) 樹　　命 : 약 200 ~ 250 년
3) 나무높이 : 15 m
4) 둘　　레 : 2.2 m
5) 所在地 : 안덕면 덕수리 동부락
6) 所有者 : 덕수리 공유

3. 팽나무 Ⅲ

1) 樹　　種 : 상수리과
2) 樹　　命 : 약 200 ~ 250 년
3) 나무높이 : 20 m
4) 둘　　레 : 2.4 m
5) 所在地 : 안덕면 덕수리 상부락
6) 所有者 : 덕수리 공유

※ 이 나무는 마을의 豊凶을 예견한다고 해서 속칭 신들린 나무라고 지칭되고 있다. 동서로 뻗은 나무가지 중에서 어느 한 쪽이 먼저 싹이 돋고 무성한가에 따라 동부락과 서부락의 豊凶을 점쳤다고 전한다.

Ⅱ. 非指定文化財

1. 불미

제보자 : 허승욱씨외 마을 주민들

불미 작업은 대개 日帝强占 이전에 있었던 구식 불미 작업과 그 후의 신식 불미 작업으로 나눈다. 日帝强占 이전에는 마을에 작업장이 하나 있었던 것이 후에는 세개로 늘었으며 재료는 대체로 평안도 쇠를 수입하여 사용하였다.

1) 불미의 종류

①독닥 불미 : 손으로 하는 불미이며 마을마다 낫이나 호미 등을 만들었다.

②디딤 불미(발판 불미) : 한 쪽에 3명씩 하여 양쪽에 6명이 한 조가 되고 발판 위에 서서 한 쪽이 기울어짐을 이용하여 동력을 일게 함으로써 바람을 일으키며 불을 때는 불미

③청탁 불미 : 신식 불미

2) 제품의 종류

①다두대기(쌀 닷말들이)

②서두대기(쌀 서말들이)

③두말대기(쌀 두말들이)

④한말대기(쌀 한말들이)

3) 불미 작업장

대개 15～16 군데 이상으로 추정되며 3개소 정도가 현상 운영이 되었다고 한다. 보통 날씨가 화창한 날을 이용하여 불미 작업이 이루어지며 비가 오면 불미 작업은 하지 않았다.

4) 불을 때는 재료

①코크스 : 日帝强占 이후 부터 코크스를 사용(일본에서 수입)

②나무 : 나무를 벌채하여 사용

③숯 : 숯을 많이 사용하면 화력이 좋지만 경제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극히 필요할 때만 사용하였다.

5) 제품 제작에는 상당한 인원이 참여하였으며 불미하는 사람만도 6명 이상이 한 패가 되어 두 패로 불미 작업을 한다.

과정에 따라 작업하는 사람의 명칭과 그 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둑 대장 : 쇠를 올리는 사람으로 여러 사람이 필요하다.

②불미 대장 : 불미 작업하는 사람

③오시 대장 : 오시를 사용, 쇳물을 운반하는 사람

④일 대장 : 쇳물을 보습댕기 등 만들 물건의 틀에 비우는 사람

⑤질목 대장 : 만들어 논 물건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기술이 없는 잡부

⑥원 대장 : 불미 작업하는 주인, 영업주

⑦잡부 : 그 외 필요한 인원

※ 대장이라는 칭호는 일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사용한 명칭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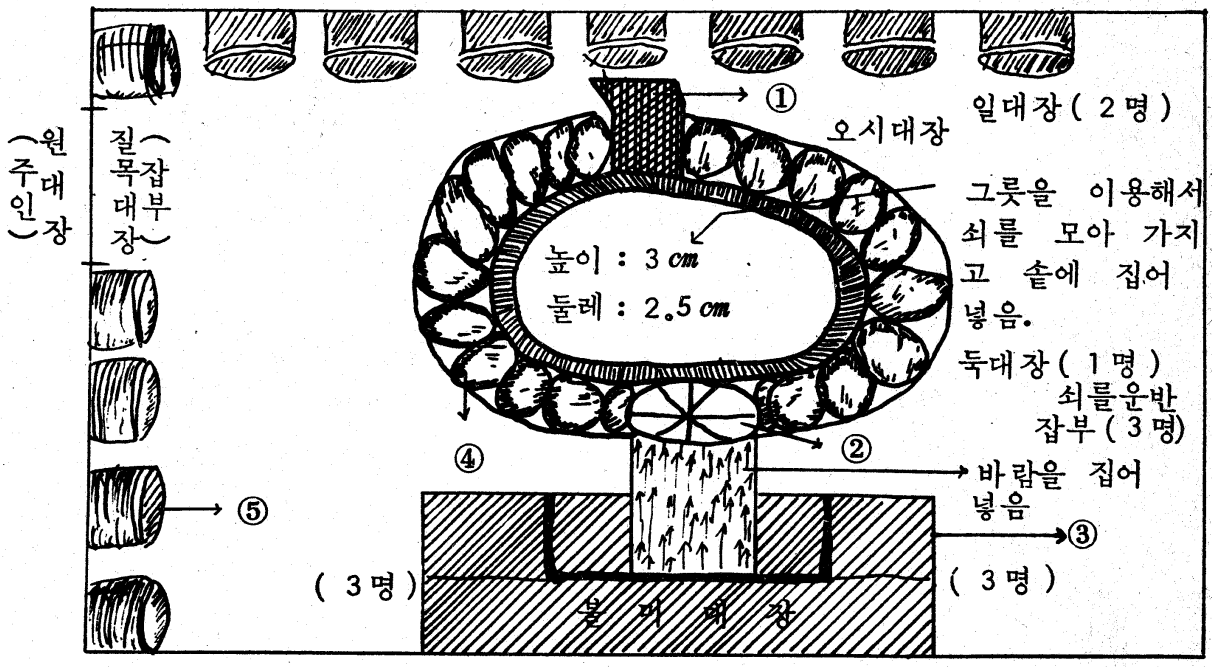
6) 제품의 판로 및 판로 방법

다른 지방에서 소나 우마를 이용하여 제품을 사가기도 하고, 이 마을에서 직접 팔러 나가기도 하며, 배를 이용하여 제주도 이외의 다른 지역으로까지 제품을 파는 도매상도 있었지만 대개 제품의 판로는 제주 지방에 국한 되었다.

7) 불미 작업장 배치도

※ 그림 I 참조

그림 Ⅰ 〈불미 작업 배치도〉



① 쇳물 排出口
② 마돌기
③ 바람을 집어 넣는 기구
④ 빨간벽돌
⑤ 만들 물건의 원형틀

※ 오시 : 도관이 쇳물을 운반하는 기구

그림 Ⅱ 〈보습틀〉

